

건축사

특별기고 건축사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칼럼 다음 50년을 생각하며…
화보 제1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폐막

KIRA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488
<http://www.kira.or.kr>
200912

건축사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2009 한 해를 마무리하며

Architects must be born again

- Finishing this year 2009

회원님께 드리는 글

전국의 회원님들께 한 해를 마감하며 인사를 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경제 위기를 맞아 건축적 상황은 더욱 어렵기만 한데 건축사업무를 영위해 나가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건축사계에 닥치고 있는 각종 도전에 대응하면서 근본적으로 건축사권익보호와 생존대책 강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즉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회원들이 피부로 느끼시기에는 답답하고 미흡하실 줄 압니다.

지금은 자본가와 소비자시대입니다.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자본가의 힘을 바탕으로 대형화·조직화·기업화를 지향하고 있고 국민서비스 차원에서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많은 제도가 자격과 면허를 무력화시켜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격시험에서 합격자배출이 대량화되어왔지만 그에 따른 자격자 대책은 무책임 해지고 능력자 생존이라는 방임주의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모품으로 전락되고 있고 권위를 상실한지 오래되었습니다. 비단 건축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 변호사, 교사 등 존경받던 직업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적인 자격증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고 대학교육은 교양교육이거나 직업교육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인격을 도야할 수도 없고 전문가가 될 수도 없는 교육과정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매년 건축계 최고의 자격증이라고 하는 건축사도 실상은 응시자격자의 1/10정도만 합격하는 셈인데 그나마 쓸 일이 없고 갈 길이 없습니다. 응시 자격만 어렵고 시험만 어렵지 합격 후의 상황은 암울하기 만 할 뿐입니다.

너무 어두운 말씀만 드리는 것 같지만 이것이 현실이고 이 시대 추세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와 사회가 건축을 문화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각 시도지방자치단체마다 '건축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5년제 건축대학에서는 매년 3,000명 정도의 예비건축사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문화의 주역이 건축임을 인식은 하였는데 아직은 행사성에 그치고 있고 외국의 스타 건축사 설계나 들여와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만 하고 있지 건축문화가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게 바탕을 튼튼히 하겠다는 정책을 펼치면서 주역인 건축사들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건축문화라는 가치가 사회에 부각되기 시작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보면 좋아 질 때가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분기점에서 건축사들이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새로운 건축사상을 정착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는 소리하면서 밥 타령, 사랑타령만 해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으며 오히려 점점 더 외면당할 뿐이라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차워과 전략을 달리하여 결과적으로 건축사의 힘을 키워야지요.



최영집 / Choi, Young-jeep, KIRA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의견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 건축문화의 해(1999) 기획위원장, 사업위원회
- 서울건축사회 부회장·회장
- 한양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 서울특별시 산의위원회
- 현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탑 대표
국가보훈처 삼의위원

그 일환으로 회장을 비롯하여 현 집행부는 그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3년간 논의해오던 건축사단체들의 통합을 마무리하고 새로 개정될 예정인 건축사법에 따라 새 시대 건축사상을 정립하고 국토해양부는 물론 문화체육관광부까지 등록하는 일원화 된 건축창작단체로 거듭나자고 하였습니다. 그 첫 단계로 이미 지난 2월 승인되었으나 그 후 발전적으로 일부 변경된 통합정관으로 정관개정절차를 밟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아시다시피 3년간 노력해온 통합의 미래지향적인 순수성과 진정성은 회석되어버리고 불신과 오해 속에 아쉽게도

우리는 건축사입니다. 오로지 건축과 건축사를 위해서만 생각해 나가기로 합시다.
국회에서 벌어지는 정치 싸움 배우지 말고 앞으로 우리의 살길만 생각해 나갑시다.
건축사의 미래만 생각해 나갑시다. 희망의 새해를 기대하며 회원님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과 가정에 화평이 늘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불발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생각하기 따라서 그렇게 쉽지는 않은 문제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전국을 순회하며 그렇게도 통합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토론하는 간담회와 공청회도 가졌고 16개 시도회장도 목표를 인식하고 동참하기로 결의하였지만 협회를 다른 각도로 사랑하는 일부 건축사님들의 조직적인 저지운동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회장의 부탁에 기인한 것임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목표를 회원들에게 좀 더 충분히 설득시키지 못한 것을 아쉬워할 뿐입니다.

협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물심양면으로 많은 노력을 들여 정관개정 저지운동에 앞장섰던 분들 특히 특별한 열정과 특이한 방법으로 건축사 사랑에 앞장섰던 건축사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일부 회원들의 걱정을 경청할 수 있었고 진행과정에서 자역적인 실수가 있었던 것도 인정합니다. 그분들의 협회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단지 때를 놓치고 소탐대실을 할까 염려할 뿐입니다. 사실과 다른 많은 이해들이 정착되지 않을까 걱정할 뿐입니다. 그분들 덕분에 비록 지난 2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던 안이라 하더라도 아직도 회원님들과의 합의를 충분히 이루지 못한 문제이고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대의를 이끌어내야 할 사항이라고 인식하게 된 것을 거듭 감사드립니다.

환갑의 나이인 회장이 무슨 개인적인 영화를 보겠다고 목표를 주장하겠습니까. 건축사업도 점고 명예롭게 은퇴하고 싶을 때입니다. 그러나 지도자 자리에 앉아 있는 이상 회원님들과 후배들, 후학들을 위해 바른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집행부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사 품위향상과 생존에 관한 많은 사항들은 1차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3차원적으로 복합적으로 풀어야 하는 고등수학입니다.

선배들은 자신이 살아왔던 과거를 거울로 삼을 것이 아니라 후배들의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아직도 정부(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건축사단체 통합의 기대를 접지 않고 있으며 국회에서의 건축사법 전면개정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고 통합 상대 단체들도 건축사계가 살길이며 건축문화시대 건축사의 도약을 위해 통합이 필수절차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협회도 지난 12월 8일~9일 임원·시도건축사회장·위원장·시도사무국장 워크숍에서 토의결과 몇 년간 계속해 왔던 통합추진의 관성을 죽이지 말고 미비점과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회원님들과의 합의과정을 충실히 가지면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곧이어 개최된 이사회에서 통합추진위원회 구성과 통합추진위원 9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환자가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60%의 대의원이 찬성을 하였지만 통합문제를 절대 얹지로 추진해 나가지는 않습니다. 일정도 아직은 계획이 없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반세기만에 온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래도 불씨는 살려야 합니다. 이 문제는 전 회원의 합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행히 의외로 회원합의가 빨리 이루어진다면 새해에 통합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요. 어떤 경우든 집행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긍정적으로 이해해주시고 보다 넓은 차원으로 문제를 수용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변화를 두려워 마시고 손해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변화 한들 개인이나 협회에 무슨 손해가 있겠습니까. 통합을 실현시켜 제병회원이나 미가입 건축사들이 입회하여 현실적으로 회원 수가 배가될 수 있다면 건축사와 협회에 무슨 손해가 있겠습니까? 협회에서 대응해나가야 할 기타 여러 문제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차근차근 풀어나가고 슬기롭게 이겨나가기로 합시다. 모든 문제들이 다 연동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건축사입니다. 오로지 건축과 건축사를 위해서만 생각해 나가기로 합시다. 국회에서 벌어지는 정치 싸움 배우지 말고 앞으로 우리의 살길만 생각해 나갑시다. 건축사의 미래만 생각해 나갑시다. 희망의 새해를 기대하며 회원님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과 가정에 화평이 늘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 50년을 생각하며…

Thinking of the next 50 years

이제 5년 후면 협회가 설립된 지 50년이 됩니다.

지난 45년 동안 우리는 협회가 회원들을 위해 많이 날려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건축문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는지, 건축과 그 중심인 건축사가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 반성을 해봐야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문화를 만드는 전문가의 일원으로서 선진국에서처럼 정치가, 정책수반자 또는 일반인들에게 존중을 받아왔는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의무단체로서 제도권 안에서 특혜를 만끽하며 여유를 부리다 임의단체가 되고나서 친밥이 되어 가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50년이 다되도록 제도권 내에서 헐떡이며 밥그릇을 쟁기려 노력하다 지금은 달콤한 개처럼 되고 먹거리에 숨기쁜 우리의 모습이나, 서로 가협회다 사협회다 길라서서 서로의 삶을 짚어내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시기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건축단체의 맘형이라고 큰소리치지만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생각해본 건축사가 있는지요? 더 이상 우리 사회는 앉아서 나 맘형이고 어른이니 공경해라해서 공경하는 사회가 아님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기반인 국해부에 가서도 주인대접을 받지 못하고 제도하나 만들어도 가협회나 새건협이 반대하면 밥그릇이라 생각하는 밥그릇도 놓치고, 어디 위원회에 들어가면 교수들에게 밀리고, 가협회 새건협 한자리씩 나누기가 디반사입니다. 심자에는 자기가 설계한 건물의 준공식에도 참여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현실을 혹자는 싸움을 덜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국해부가서 책상을 부수고 데모 안해서 그렇다고 외칩니다. 정말 그럴까요? 존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무나 수행해야 할 책임을 더 이상 잘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존중해달라고 외치고, 일을 달라고 만외치는 그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진정 이런 우리의 일그러진 모습에서 해어 나오려면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우선 건축설계에 관여하는 전문가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사가 되려고 공부하는 학생들, 그들이 온전한 건축사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수들, 건축사가 되기 위해 월급 떨 받고 자기의 짖음을 바치는 건축사보들, 그리고 건축사들, 이 네 그룹은 다른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건축사를 중심으로 통쳐야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도시건축문화를 창당하고 좋은 도시건축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저 하는 하나의 목적아래 통쳐야 합니다.

다음으로 협회는 제도권에서 눈앞에 보이는 제도의 변화에만 급급하여 그때그때 대응하고 싸우는 전략을 벼려야 합니다. 좀 더 큰 전략을 가지고 백년대계를 세워야 합니다. 건축사가, 건축전문인이 존중받을 수 있는 단체가 되도록 그림을 그려야 할 것입니다. 안으로는 기존의 건축사의 자질을 지속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하고 유지운영하며, 밖으로는 후세에 물려줄 훌륭한 도시건축 환경을 만들고 저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사회봉사하며 공공의 이미지를 부가하여 거듭나야 존경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앞에 있는 밥그릇을 쟁기다 다리위에서 자기의 먹이까지 빼어버리는 안타까운 강아지 끌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변화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큰 그림은 모든 회원들과 건축전문인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회장이 바뀌어도 이 원칙이 무너지지 않는 장기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설계가 건설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으려면 건축이 건설의 도구로서 전략함을 더 이상 좌시하지 말고 도시건축문화의 주요한 도구로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건축사에게 그리고 모든 일반인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훌륭한 도시건축문화야말로 후손에게 남겨줄 수 있는 우리의 유산이어야 합니다.

곳곳에서 변화의 외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가 변화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하려면 약간의 희생, 아니 어쩌면 많은 희생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 우리의 희생이 좋은 도시건축문화를 만드는 초석을 다질 수 있고 후배건축사들이 조금 더 존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가치가 충분히 있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변화 없이는 건축사로서의 건축전문가로서의 우리의 존재는 미미해질 뿐입니다. 변해야 살 수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 50년을 새로이 준비할 수 있는 대한건축사협회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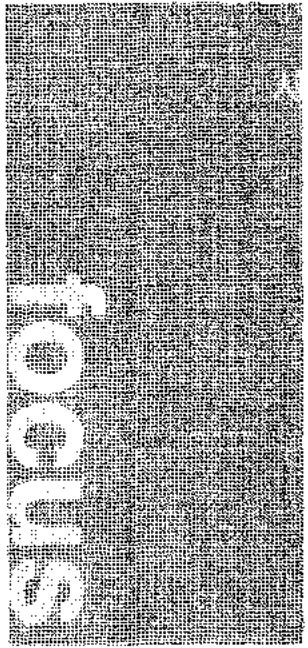
신춘규 / Shin, Chunyu, KIRA/AIA
씨지에스 건축사사무소
씨지에스 건축사사무소

약력

- 씨지에스 건축사사무소 대표
- 대한건축사협회 국제담당 이사
-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원원 리모델링?!

Win Win Remodeling?!



20세기 한국 문화예술사에 비추어 건축 장르만큼 모더니즘의 유산이 짙은 그늘을 드리운 문화 영역도 별로 없을 것이다. 주거·업무 활동에 적합한 기능적 효율성을 승배하며, 장식을 최악으로 뇌부시한 국제주의 모더니즘 건축은 지금도 우리의 도시 경관 곳곳에 군림한다. ‘형태는 기능을 따룬다’는 19세기 말 미국 건축가 루이스 셀리번이 남긴 명제는 지금도 이 땅의 건축 환경을 대변하는 열쇠 말이다. 서울 강남·북은 물론 수도권 변두리까지 뒤덮은 격자형 아파트와 치솟는 업무용 빌딩군의 풍경처럼 한국의 모더니즘 건축은 21세기에도 존재하며 즐식을 거듭하는 중이다. 이런 한국적 상황의 아이러니랄까. 요즘 문화계에서는 20세기 초창기 국내 모더니즘 건축의 선구가 된 옛 병원 건물의 보존과 활용을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1930년대 초 조선총독부 광복회 계파에서 설계한 서울 북촌의 소격동 옛 기무사 본관(경성의전 부속 병원)¹⁰ 그 주인공이다. 기하학적인 창호 배치, 정연한 수평축의 3층짜리 매스에 앞뒤로 뚝 튀어나온 반원형 돌출부가 인상적인 이 건물에 정부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세우겠다는 방침을 확정하면서 건물의 건축사적 가치를 미술관 용도와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기둥 형태와 배열, 조직적 외벽 등에서 강한 근대적 취향을 보여주는 본관은 건립 당시 ‘조선의 바우하우스’로 일컬을 만큼 파격적인 외관의 모더니티를 자랑했다. 1930년대 초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병원으로 신축된 본관의 모던한 조형 개념은 근대 병원의 기능적 요구에 충실히 한다는 당시 일본인 병원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해방 뒤에는 서울대 제2부 속병원과 수도육군병원, 12·12 부대의 운상인 보안사 건물로 술한 꼭질을 거듭해왔다. 식민지시대 물질된 모더니즘 디자인을 간직한 이 건물을 미술인들이 미술관 적으로 지목하고 10여 년 전부터 건립 운동을 벌여온 것도 우연 때문만은 아닐 터다. 미술인들은 건축사적 가치가 깊은 본관 보존의 원칙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최근 전면 철거 신축론이 일각에서 등장하면서 논란이 뜨거워졌다. 배순훈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지난 9월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옛 기무사 본관은 미술관 용도에 부적절하다”고 단정했다. 재활용 가능성이 있는 것은 재료인 벽돌 정도뿐이라고도 했다. 새 미술관을 세계적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본관을 헐어 첨단 건축물로 신축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친 것이다. 이 발언은 건축역사학계의 반발을 불렀고, 지난 9월 29일 열린 옛 기무사 본관 활용을 위한 선포지엄에서 본관 신축과 미술관 건립 벽지화를 요구하는 건축사학자들과 이어 맞선 미술인들의 의견 대립이 노출되기에 이르렀다. 본디 병원이던 본관의 재활용 방식은 시작이 엇갈릴 수밖에 없다. 천장이 높고 개방적인 전시 공간 개념에 기준 공간이 맞지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겠지만, 건물에 배어든 엄중한 역사적 흔적들을 상기시켜 줄 공간적 배려 또한 필요하며, 본관의 모더니즘 스타일이 지난 건축사적 의미를 되살리는 일부 원형 복원도 요구된다. 결국 건물의 구조미학과 내력 등에 깃든 디자인 역사적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가 될 것이다. 사실 논의의 난장을 펼칠 기본 토대는 꽤 축적되어 있다. 지난 9월 미술관 쪽의 의뢰를 받아 나온 한국건축가협회 연구팀의 본관 활용 태당성에 대한 조사 보고서는 건물을 온전히 보존하는 방안, 정면 파사드만 남기는 방안, 중앙홀+파사드, 중앙홀+한쪽 윙+파사드 등 여러 실무적 대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미술계도 지난 9월부터 연말까지 ‘플랫폼인 기무사 전, ‘신호탄’ 전 등 비엔날레를 방불케 하는 전시 난장을 본관에서 열어 현대 미술 전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을 탐진했다. 12월 9일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미술관 조성계획에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던 본관 옆 국군 지구 병원의 이전을 확정하고, 새 미술관 설계 아이디어 공모와 지명 실계 경기의 참가 자격을 국내 건축사로 한정하겠다는 방침 등이 공개됐다. 근대 건축물의 보존 활용을 놓고 문화적 상상력을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은 나름 충실히 확보된 셈이다.

현재 건축 디자인은 모더니즘이 절대 정신으로 군림했던 20세기 전반과는 양상이 다르다. 형태가 의미, 유팔과 결합하는 포스트 모던한 흐름 속에서 인문적 정체성과 창의적 상상력에 바탕한 브랜드 캐릭터가 강조되는 시대다. 옛 기무사 본관의 미술관 재활용을 놀려싼 논의에서 우선 중시되어야 할 것은 건물 곳곳에 걸쳐놓 서린 역사적 이야기들이다. 초기 모던 건축의 가치를 담은 본관 건물의 매스, 불륨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요소들이야말로 새 미술관의 아우라와 활용 가치를 증폭시킬 수 있는 특장일 것이다. 건축계와 미술계가 역사사지의 입장에서 꾸준히 논의를 거듭하면서 서로 ‘위워할 수 있는’ 미술관 인프라의 대안을 찾출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



노형석 / No, Hyeng-seok
한겨레신문문화부 대종문화
팀장(문화재 담당)

의역
· 월의대학교 대학원(미술사) 수료
· 전 한겨레21 문화팀장

제1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폐막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한 제1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The 1st Seoul International Architecture Film Festival, 이하 SIAFF)가 4월(11월 19일 ~ 22일)간의 뜨거운 호응 속에 지난 22일 폐막했다.

'건축과 영화' 두 분야의 첫 만남은 성공적이었다. SIAFF의 객석점유율 69.2%, 이미 국제적인 영화제로 자리 잡은 부산국제영화제의 객석점유율 64%와 비교해보더라도 시작부터 큰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상영 프로그램 중 2편(렘 콜하스 : 도전과 혁신, 노먼 포스터와 거친 빌딩)이 서울 광화문 미로스페이스의 요청으로 2주간 연장 상영돼 '건축사(The Architects)'라는 주제에 걸맞

게 '건축사'에 대한 홍보가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19일에 개최된 개막식에서는 서울국제건축영화제 김형수 집행위원장의 개막선언과 함께 대한건축사협회 최영집 회장이 영화배우 지진희 씨에게 감사패를, 또 영화배우 박시온 씨를 서울국제건축영화제 홍보 대사로 위촉해 주요 일간지와 연예 미디어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지난 11월 19일 오후 7시에 열린 개막식에는 SIAFF의 첫 걸음을 축 하하기 위해 건축계와 영화계 내외인사들이 참석했다. 영화진흥위원회 조희문 위원장(교수/인하대 연극영화과)과 이성한 의원(한나라당)이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 미로스페이스를 찾았으며, 유영식 감독(오감도



1.상영관인 광화문 미로스페이스 진경

2.개막식 사회자인 박시온 씨와 유영식 감독

3.김형수 SIAFF 집행위원장의 개막선언

4.축사중인 대한건축사협회 최영집 SIAFF나사회장(대한건축사협회 회장)

5.9.관객들의 대체로인 환호도, 권문성 건축사

6.영화제의 대표인 출연인 김형수 위원장, 유영식 감독

7.영화제에서 활동 중인 걸작

8.영화제 대표인 출연인 김형수 위원장, 유영식 감독

연출), 정재은 감독(고양이를 부탁해 연출) 등 젊은 영화감독들이 침식해 명화제를 빛냈다.

개막식 사회는 유영식 감독과 영화배우 박시은 씨가 진행했다. 대한건축사협회 최영진 회장(SIAFF 대회장)은 개막식 축사에서 "건축과 영화의 만남을 통한 건축문화의 고양과 건축을 창조하는 작가인 건축사가 대중들과 함께 호흡하고 건축을 통하여 인간 삶의 의미를 반추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고무했다.

이어 최영진 회장은 텔런트이자 영화배우인 지진희 씨와 박시은 씨에게 각각 감사패 전달과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순서를 가졌다.

영화제조직위는 드라마에서 건축사로 열연한 지진희 씨를 '건축사로 가장 잘 어울리는 배우'로 선정하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지진희 씨는 최근 KBS드라마 '결혼 못하는 남자'에서 무뚝뚝하면서 까칠한 '건축사 조재희 역'을 맡아 시청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지진희 씨는 "건축사라는 직업을 잘 몰랐지만 드라마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으며, 힘들지만 멋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위촉 소감을 밝

혔다. 아울러 최근 KBS드라마 '천추태후'에서 열연한 박시은 씨를 STAFF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밖에도 상영직후 관객들과 함께하는 호스트 아카데미 포럼(Host Architects' Forum)은 타 영화제와 차별성을 둔 프로그램이었다. 영화와 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영화제에서는 접할 수 없는 신선하고 색다른 경험을 안겨주어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SIAFF는 16회 상영기준으로 전체 1,920석의 좌석 중 1,330명의 관객을 동원해 69.2%의 높은 객석점유율을 기록했으며, 상영관인 미로스페이스 측은 관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SIAFF 폐막 후에도 영화제 기간 동안 선보인 영화 중 2편(렘 콜하스 : 도전과 혁신, 노먼 포스터 와 거친 빌딩)을 2주간 연장 상영했다.

대한건축사협회도 건축사 회원들을 위해 상영작 중 '마천루', '램콜하스 : 도전과 혁신', '노먼 포스터와 거친 빌딩'을 11월 30일, 12월 2~3일(오후 5시)총 3회에 걸쳐 서초동에 위치한 건축사회관 1층에서 무료 상영했다.



1_제1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포스터
2_콜하스 도전과 혁신
3_노먼 포스터와 거친 빌딩

4_마이 아키텍트
5_마천루
6_프랭크 게리의 스케치
7_최희선

유·스퀘어 문화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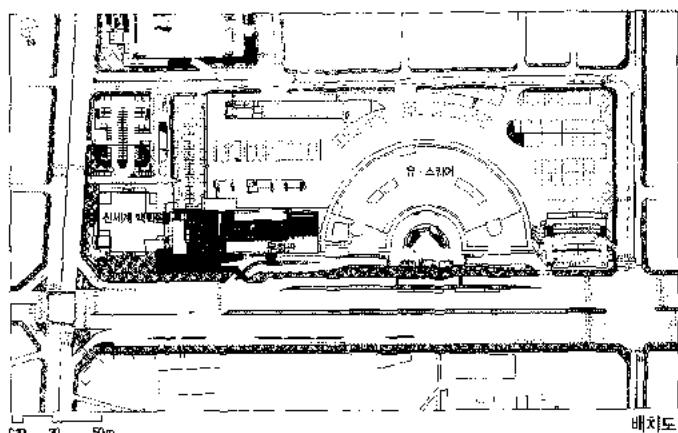
U · Square Cultural Center

김상식 / 정희원, (주)금성 종합건축사사무소

by Kim, Sang-sik, KIRA

김용미 / 정희원, (주)금성 종합건축사사무소

by Kim, Yong-mi, KIRA



대지면적: 광주광역시 서구 광진동 40-4

주제 및 특징: 일상적인 터미널과 대중교통 터미널

주요 용도: 문화시설, 그린 생활시설, 일반 업무시설,

민박시설, 음식 및 전통상설

설계연도: 2006년

설계인원: 35~40명

면적: 면적 15,000m²

층: 층 6층

높이: 높이 27m

예상 기간: 2009

주제: 유·스퀘어, 문화예술, 청년문화

외부마감: 아비 두께24 투명 폐증유리, 무석

현영률성형 세멘트 패널,

무광스마트 패널

내부마감: 민족대리석, 무페10 방청 우드풀

프랑, 화강석마감

밀리실계 유리MDF

구조설계 구조소

설계설계 설립기술단

시공: 시공단

설계담당: 김운주, 이승연, 이정임, 구용모

김상식, 이정선

유스퀘어 문화관은 터미널과 신세계백화점 사이에 이미 2006년에 현대화 리모델링 공사를 끝낸 슈핑몰 건물위에 광주가 본사인 금호 터미널에서 시민을 위한 6개층의 복합 문화시설로의 중축 프로젝트였다.

1992년 개장한 기존의 터미널은 당시 동양최대 규모의 터미널이었으며 현재도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버스터미널이다. 그만큼 새로 중축되는 문화관은 그만큼의 랜드마크적 기대가 크게 작용하였으며, 광주에서 처음 들어서는 복합문화관인 만큼 기존의 단순 터미널의 이용객과 백화점 이용객의 단순 유입과 연계공간이 아닌 새로운 하나의 문학적 공간으로 존재 하길 원했고 그러한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은 유기적인 연계속에서 지역 문학에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했다.

M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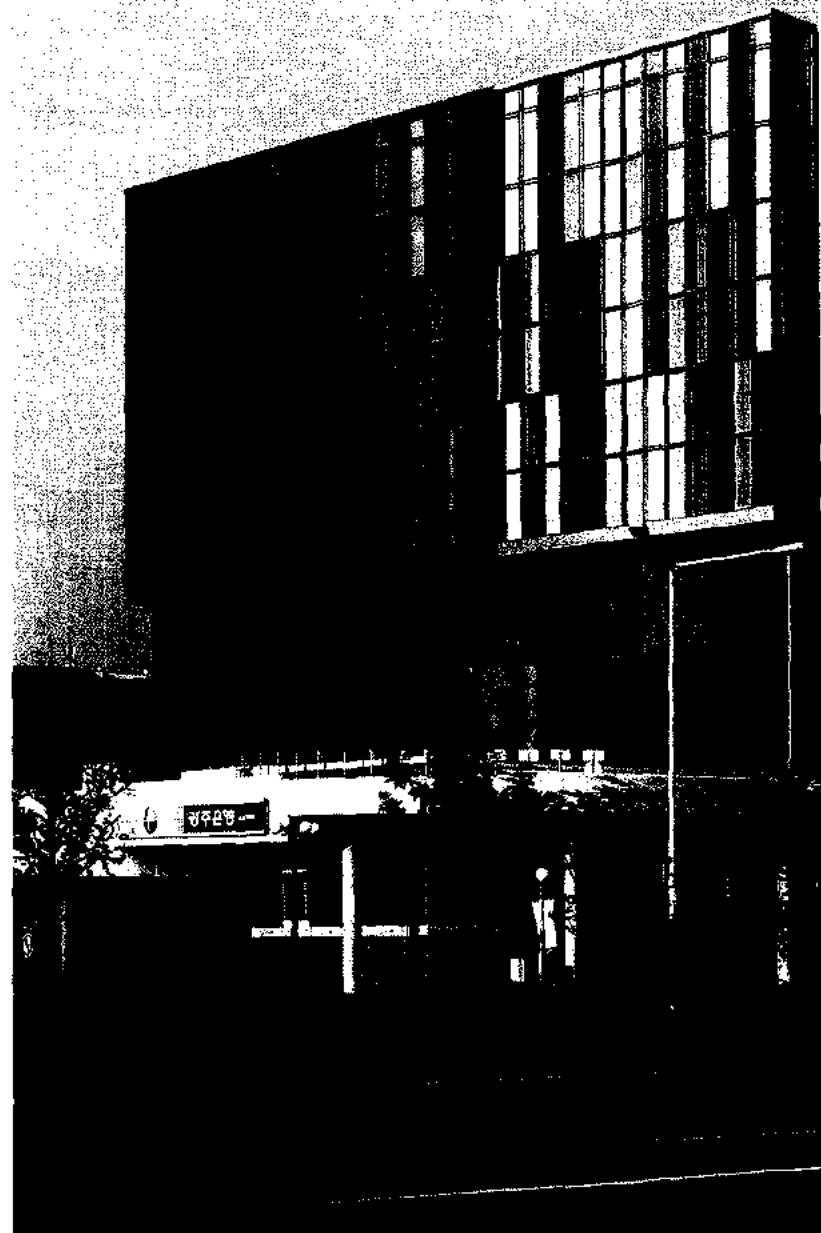
신축이 아닌 기존의 1층 소핑몰위의 중축이었고 기존의 터미널 건물과 신세계백화점 사이를 잇는 150m길이의 세정한 형태의 불리함은 차칫하면 단순한 연결건물의 형태로 전락될 수도 있으며 넓은 전면도로에 대하여 막혀있는 답답한 건물을 인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조건에 대하여 설계 개념의 진행은 간들의 매스는 수직적인 분질 보다 수평적인 분절을 위하여 저층부와 상층부의 매스로 나누고 저층부 대스는 유리마감으로 하여 상층부의 솔리드한 매스와 대비시키 상대적으로 상층부 매스의 부각시켜 부유하는 듯한 형태로 넓은 대로변에서도 인지성이 높아시도록 하였다.

Facade

보자는 전면에 60m폭의 기아로와 접해있고 대중교통 이용의 첫 관문인 터미널부지인 만큼 건물 파사드의 장면은 프로젝트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였다.

국내의 건축물에서 외관에 나체토운 색을 사용한다는 것은 나소 우험할 수 있는 시도였으나 단순한 색의 반복적 나열보다는 파사드 전체가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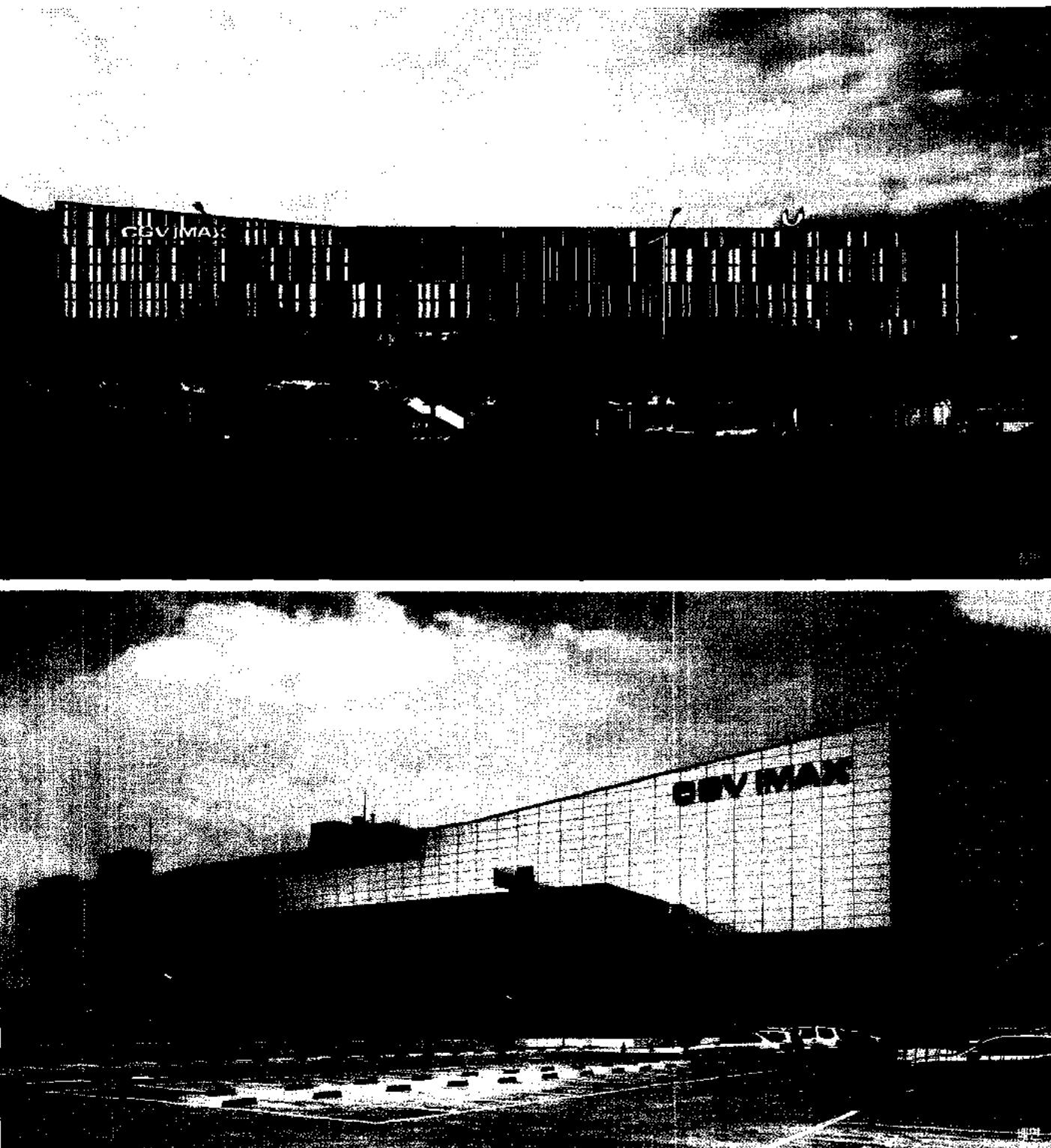


의 변화된 흐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점이었다. 색판 외부의 유리는 저철 분 유리를 사용하여 최대한 투명한 새로운 스킨을 만들도록 하였고 중앙 아트리움의 외부는 수직루버를 사용하여 입면 색채의 흐름이 끊기지 않으며 나부에 필요한 차광을 유입하도록 고려하였다.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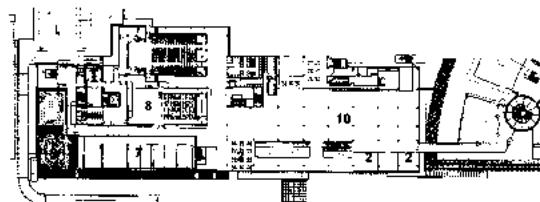
내부의 프로그램은 음악홀, 공연장, 미술관과 별도의 운영주체인 영화관 이었다. 같은 관람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소리에 민감한 이 프로그램들에

게 터미널 차량의 진동은 아주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이를 위해 터미널 주차장에 면한 음악홀은 특별히 이중 슬라브로 계획하여 외부 차량 진동에 대비하였고 각각 개별의 실들과 방음과 진동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했다. 또한 기준의 1층 쇼핑몰 프로그램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했으므로 수평적인 조닝보다는 수직적인 조닝으로 프로그램의 분리를 피하고 그를 이어주는 중앙 아트리움을 계획하였다. 또한 서로 다른 성격의 터미널과 백화점으로부터의 진입은 각각 야외 테라스를 가지게 함으로서 옥외공간의 활용과 각기 다른 프로그램으로의 국적인 전이과정을 연출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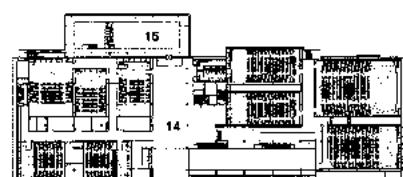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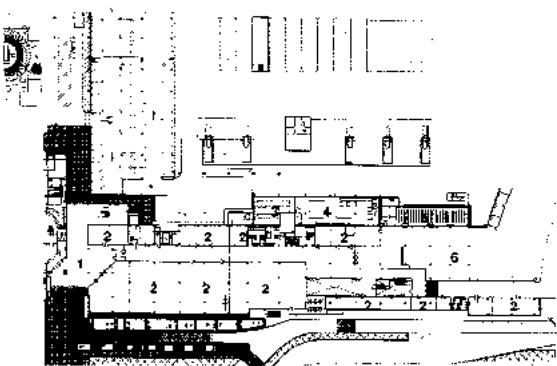
01_연결홀 05_물랭크실 09_음식홀 13_영화관
 02_상점 06_서점 10_미표출 14_독거홀
 03_전기실 07_미술전시관 11_공조실 15_옥상정원
 04_기계실 08_광연장 12_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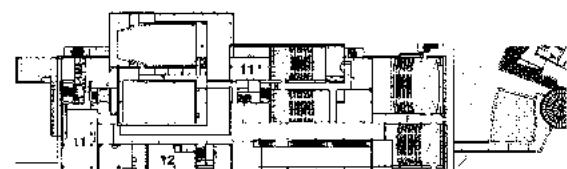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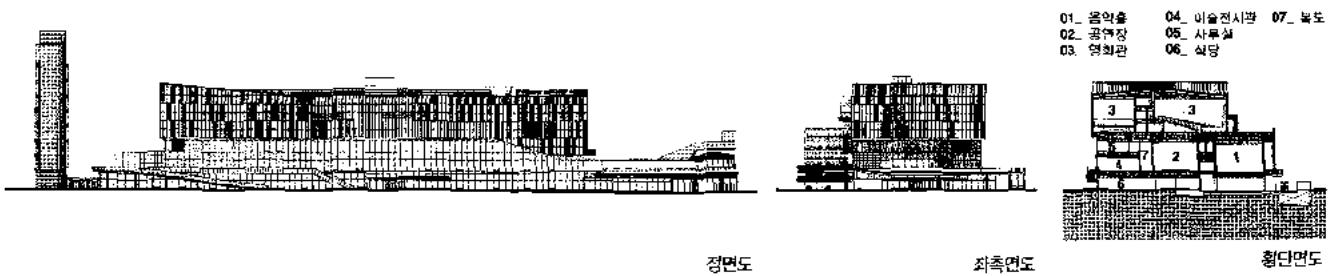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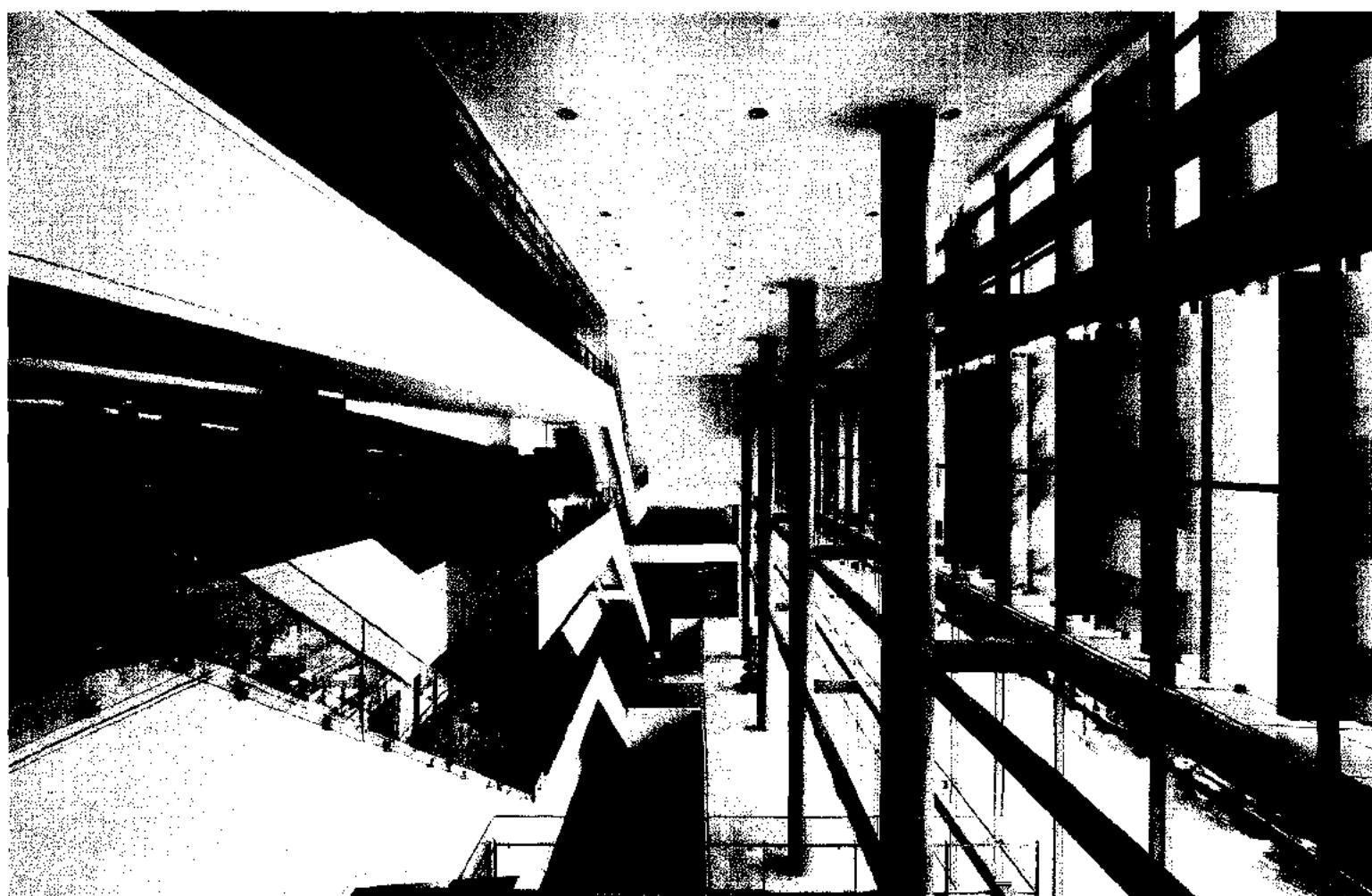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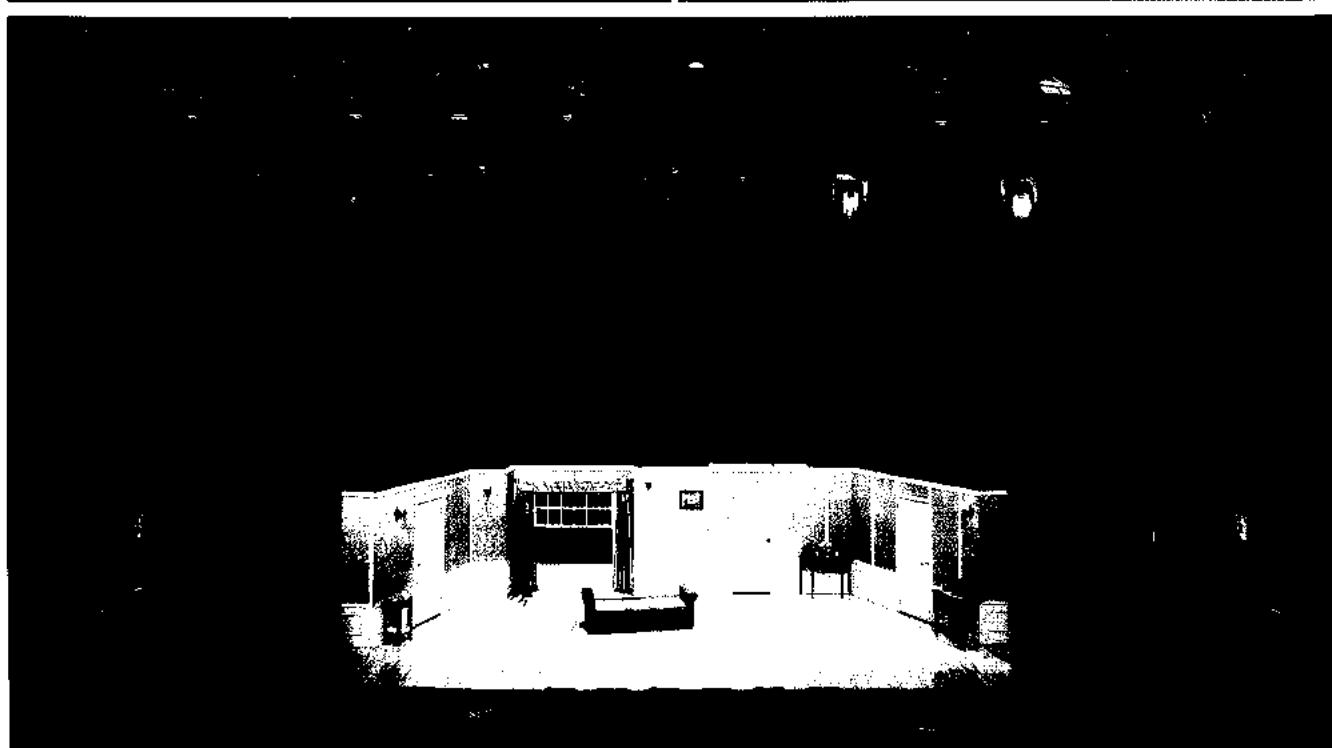


3층 평면도



- | | | |
|-------------|--------------------|-------------|
| 1. 아외 테라스 | 2. 음악홀, 공연장 흙이 우선판 | 3. 영화관 흙가운데 |
| 4. 중앙홀 | 5. 금지비드를 내부 | 6. 금지비드를 내부 |
| 7. 공연장에서 내부 | 7. 유산비드를 내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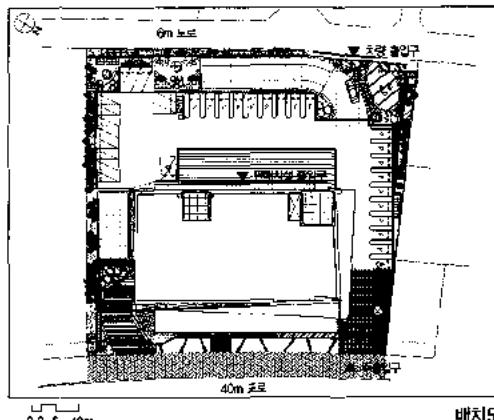


논현동 도요타 자동차전용복합건물

Nonhyeon Toyota Building

민병욱 / 정회원, (주)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by Min, Byoung-wook, KIRA



내재위치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25-5번지
주요용도	민예사업
대지면적	4,156.5m ²
건축면적	1,719.57m ²
전 면적	9,267.66m ²
전 높이	41.37m
율	132.48%
보	지하 1층, 지상 5층
주	지하 주차장, 지상 주차장, 휴게실, 운송장, 관광관
	지상: 텔레비전타워, 지상: 텔레비전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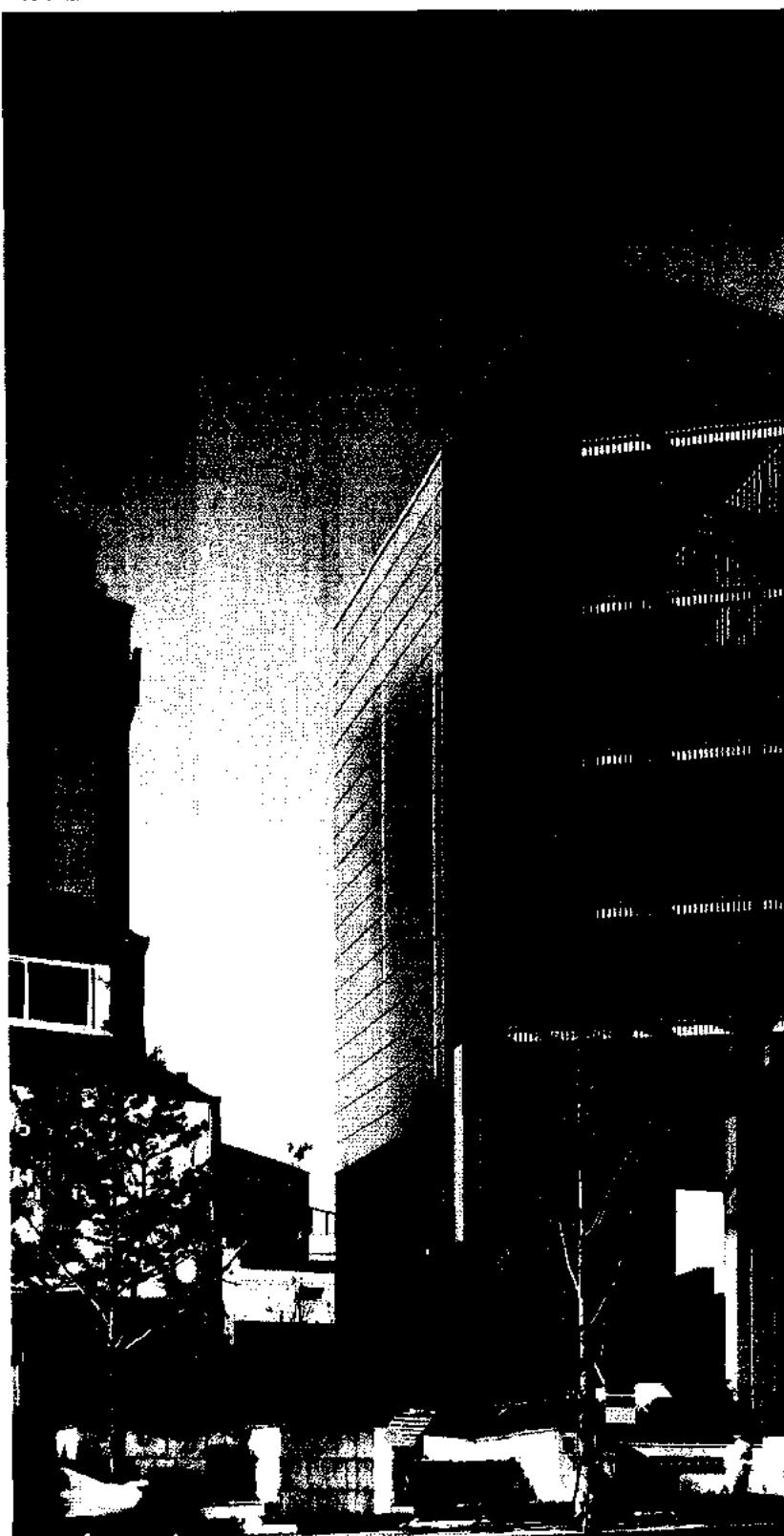
외부마감 알루미늄 패널, 흑동리브글라스,
일루미네이션, 우바
내부마감 대리석, 석고보드 위 VP, 노출콘크리트, 시멘트블록
건축 주 동양간접난방
설계담당 설계총괄_풀 펠 데아비스
이광현, 이준찬, 허승만, 윤지영,
김종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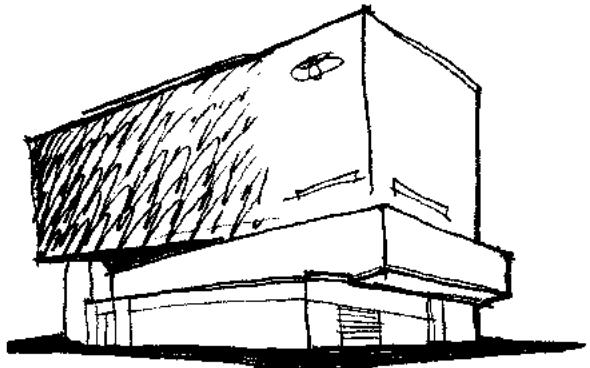
세계 10대 도시 중 하나인 서울, 2,000만 인구와 300만 대의 자동차가 함께 살고 있다. 그런데 현재 서울의 도시구조와 앞으로의 도시 계획은 사람 위주로만 디자인 되고 있다.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만 하듯이 자동차도 고장이 나면 필수적으로 정비소(자동차 병원)로 가야한다. 서울은 이러한 시설이 성수동 공업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태이다. 할 수 없이 도시 외곽지역에서 수리해야만 하고 이에 발생되는 왕복교통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과 비슷한 도시구조를 가진 도쿄, 싱가폴, 대만 등은 이미 자동차의 전시, 판매, 정비, 자동차 문화 교육 등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자동차 전용 복합건물이 있다. 서울에도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2000년 대치동에 만들어진 'Lexus' 건물이 자동차 복합건물의 하나이다.

강남구 대치동의 Lexus 건물은 IMF전에 오피스전용건물을 공시 중이었던 건물을 Redesign하는 프로젝트였다. 기둥 Span이나 차량 농선이 일반 오피스위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 그 해결책으로 자동차 정비기능을 2, 3층에, 자동차 전시 및 판매 기능은 1층에 두어 이 3개 층을 연결하는 Carlift를 별도로 마련하여 주된 자동차 농선을 해결했다.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2층에 자동차정비기능을 해결할 수 있는 '전용정비 시스템'을 구상하였다. 또한 이 곳 정비 장소를 고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평면배치하였고, 예측치 못한 Peak time의 정비를 해결하기 위한 Reserve 정비기능 및 정비 교육기능을 3층에 배치하였다. 지하의 주차공간은 자동차 전용 복합건물로써는 매우 부족했는데 공사중이었던 지하층을 그대로 쓸 수밖에 없었던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그 후 2009년에는 Lexus와 같은 회사인 도요타가 자동차 전용 복합건물을 만들었다.

이미 지하층이 완성된 후의 자동차 전용 복합건물이었던 Lexus와 달리 강





스케치



(6)

남구 논현동의 Toyota자동차 전용복합건물은 site면적도 Lexus에 비해 크고 Redesign 하는 것이 아니기에, 지하층부터 마음대로 Design 할 수 있었다. Site는 동쪽 전면도로와 서쪽 후면 도로가 약 3미터의 Level차가 있어서, 후면으로 Level을 자동차 정비 Level로 하고 전면으로 Level은 전시 및 판매기능으로 설정하였다. 2층은 1층 판매시설의 연장으로 사용하고 3, 4, 5층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소 공간이다.

지하 1층의 정비층은 충분한 길이의 진동 정비 시스템을 Layout하고 비상정비 및 경정비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정비 Line을 두었다. 반면에 정비 대기차량 및 출시대기 차량을 보관할수 있는 공간은 협소하여 2개의 Par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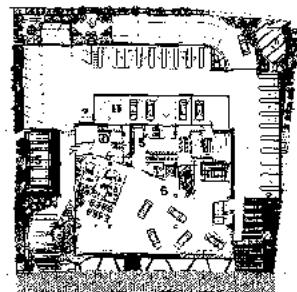
Tower를 두어 해결했다.

1층 전시공간은 전면도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전시공간을 두고 그 후면에 판매 승강 및 정비접수 공간을 만들어 원활한 기능 해결을 시도하였다. 정비 접수공간에서 지하 1층 정비층으로 연결할 수 있는 별도의 Ramp와 Carlift가 지하 1층과 1층 접수공간을 긴밀하게 연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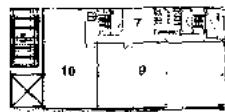
건물의 외관은 새로이 제정된 Toyota Standard에 충실히 하면서 논현동 선시장의 거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전시공간과 사무 공간이 1층과 2층은 약 3°, 2층과 3층 0 상은 약 5° 뒤틀려서 완성된 Mass감이 독특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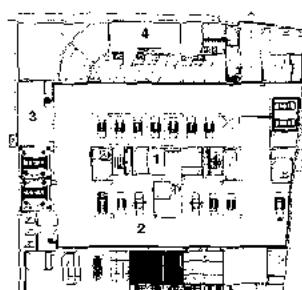
- 01_ 솔
- 02_ 차량통로
- 03_ 창고
- 04_ 전기실
- 05_ 판매 시설
- 06_ 자동차 전시장
- 07_ 이벤트홀
- 08_ VIP룸
- 09_ 업무사실
- 10_ 경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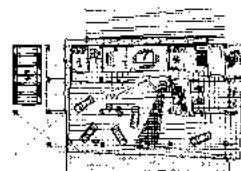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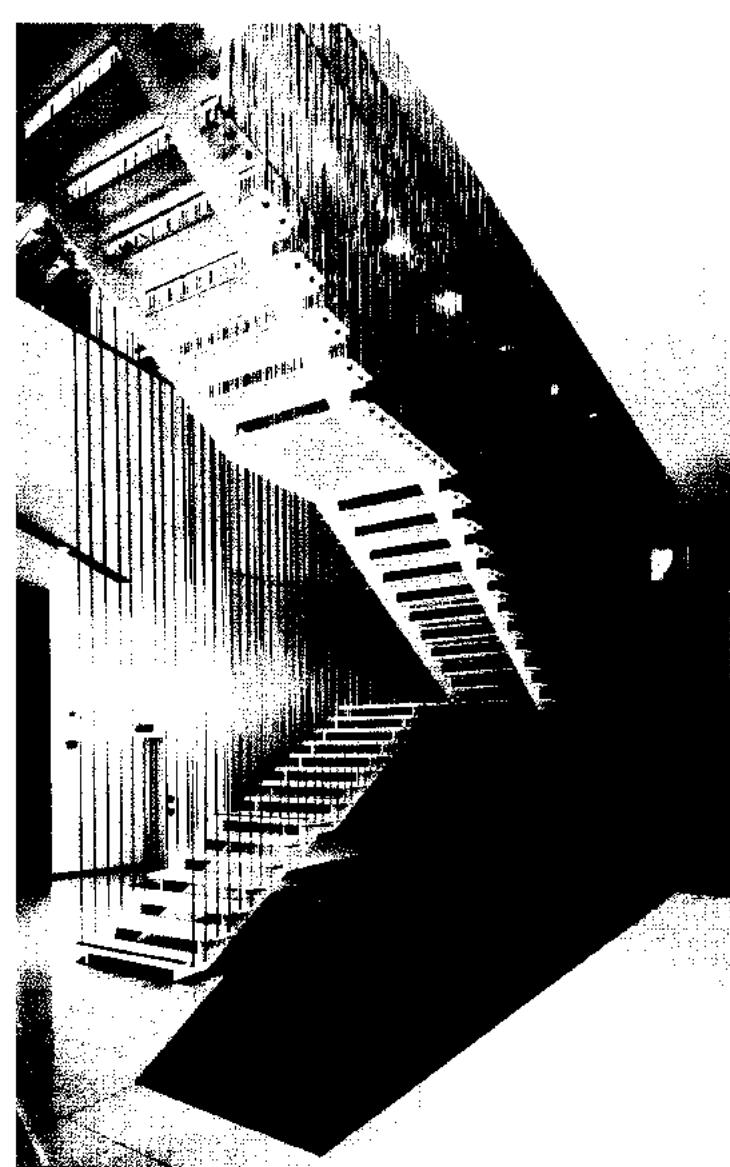
시화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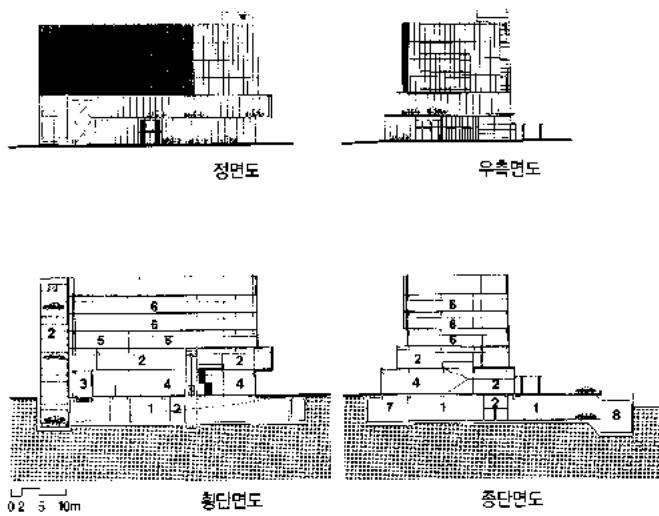
2층 평면도

02 5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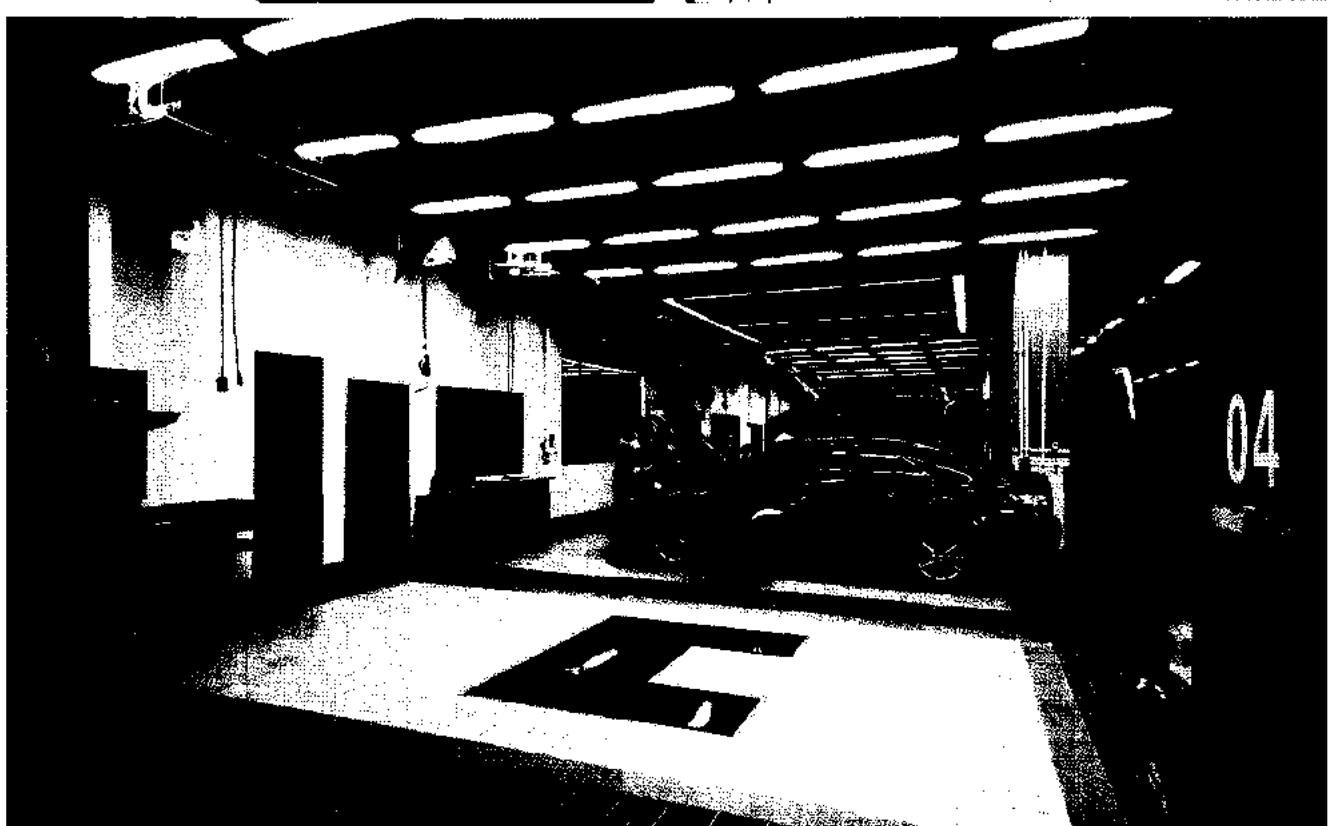


01_ 2종근린생활시설	05_ 전시광
02_ 판매시설	06_ 업무시설
03_ 퀸즈티	07_ 정보통신장
04_ 자동차 전시회	08_ 발전기술



정면도 우측면도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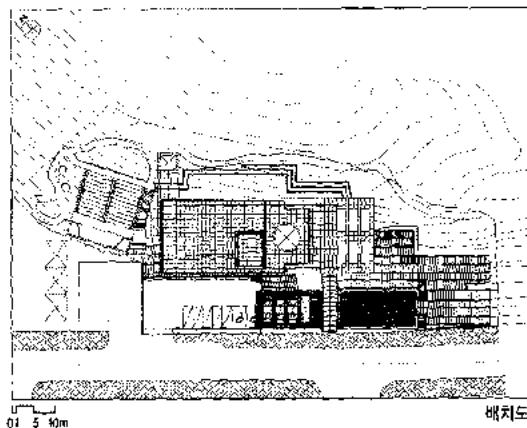


상록 어린이 도서관

Sangnok Children's 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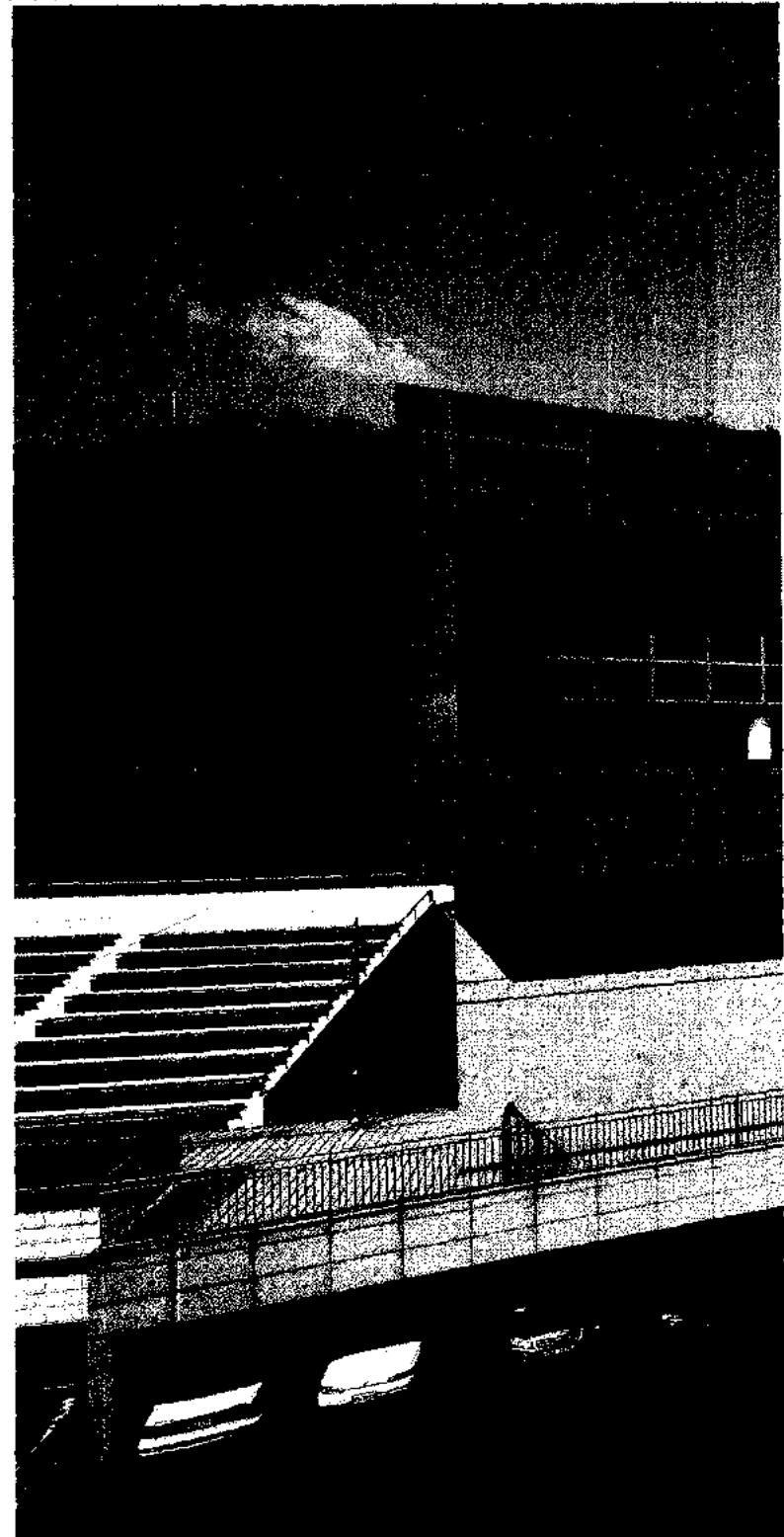
조원용 / 정희원, 주식회사 다이아몬드 건축사사무소
by Cho, Won-yong, KIRA

설계위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청룡 산마루로 70
제작기사	제작: 노동자 4명
총면적	어린이 도서관
내부면적	3,730.70m ²
건축면적	1,146.75m ²
면적비	3.28:1.00
층 높이	2.80m, 3.00m
연면적	20,000
용적률	0.35%
기타	기획: 1층, 커뮤니티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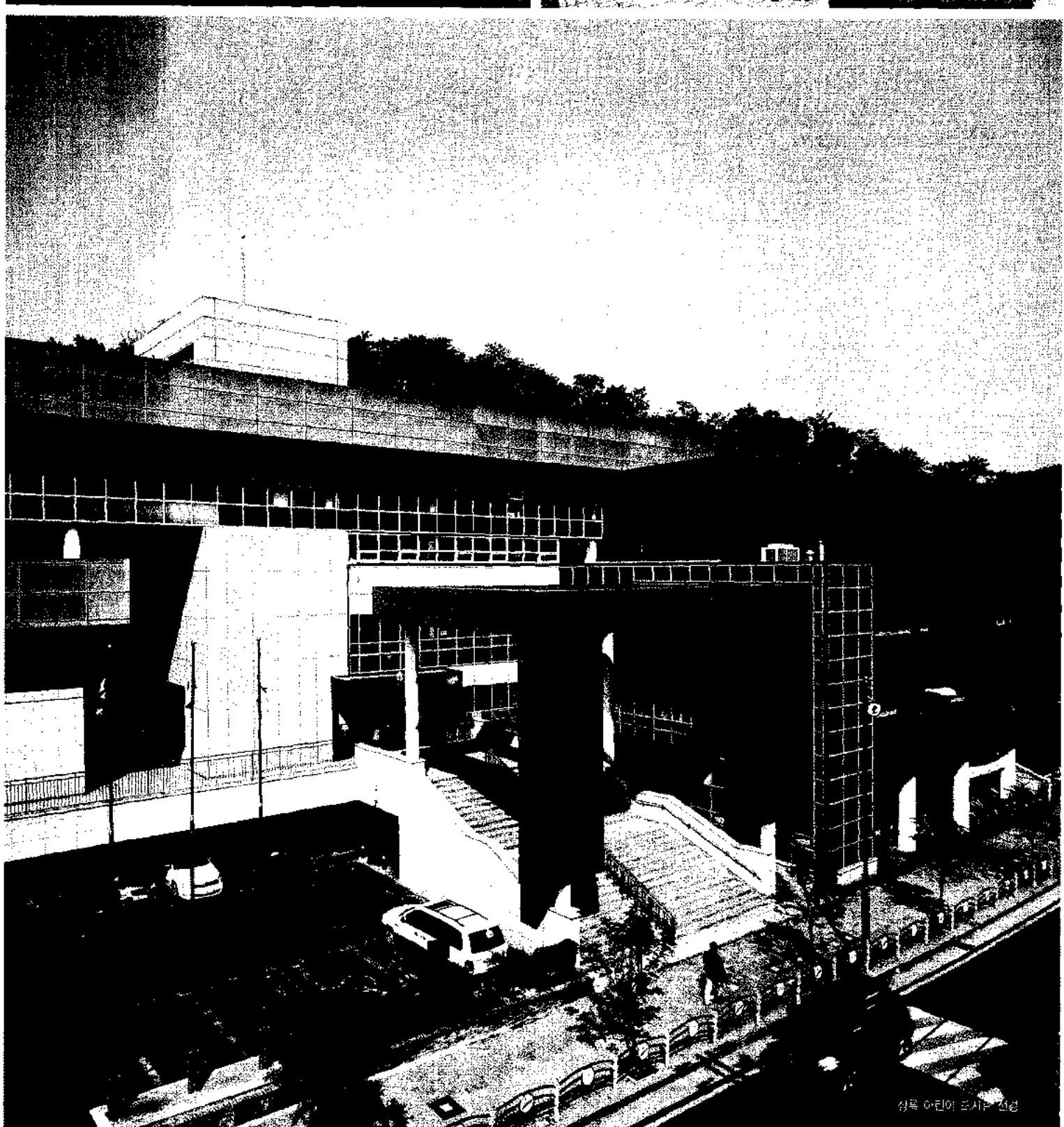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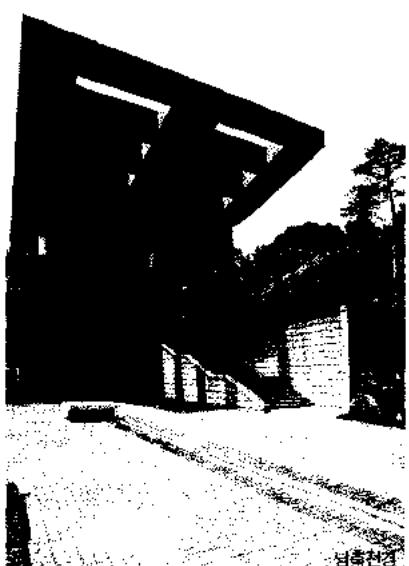
프롤로그_하늘, 나무, 별 그리고 꿈
아름 책 내가 살던 동네 텃신엔 언제나 푸른 꿈이 살고 있었다.
개울가 물놀이로 하루해가 기울어가고 끝별리 노래 속에 꿈이 자라난
곳… 어린 시절 우리의 고향은 어느덧 자취를 감추고 마음의 고향으로 남아있나?
우리의 아이들에게 고향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
또 어느 곳이 우리 아이들의 기억에 담고 추억의 장소가 될까?



첫 만남_설계경기를 통해 선정된 계획안의 대부분은 상당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건립되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경우가 책정된 건립비용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물론 예상 공사비에 대한 부분 또한 계획안을 제출한 건축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므로 미성 밖주차 탓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제한된 대비로만으로 작성하는 기본계획 안에 건립비용의 여유 폭을 감안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설계변경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원성도에 많은 영향을 다친다. 설계자와 시공자 그리고 감리자, 이 3자의 유기적인 협력 없이는 건강한 건축물이 건립될 수 없다.

상록어린이도서관의 경우도 설계경기를 통해 선정된 계획안에 의해 건립된 것으로 위에서 설명한 경우와 같이 설계설계 및 건립 증·크고 작은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밖에도 불구하고 처음 접한 상록어린이도서관의 원성도는 기대 이상이었다. 약 30°에 이르는 경사지에 건립, 쉽지 않은 건립과정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드러난 높은 원성도는 설계자, 시공자 그리고 감리자와 건축물에 대한 신세한 배려와 많은 노력이 녹아든 결과일 것이고 이러한 결과를 도출한 이들에 밤주차와 더불어 박수를 보낸다.

Context_낮은 층수의 주거지역과 인접한 구릉공원의 도로변에 위치한 상록어린이도서관의 첫인상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보다는 주변에 몰려 있는 듯한 인상이 강했다. 분절된 두 개의 마스는 주변 구릉지의 경사면과



많은 부분이 자연스럽게 어여졌고, 이는 소키이고인과 함께 강한 수명성을 인지토록 하여 시각적으로 부당스럽지 않는 규모로서 인식되고 있다.

도로에 면하는 남서쪽 전면은 목재페널의 비교적 단순한 형태를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목재페널의 입면은 1층 부분에 기둥을 그대로 노출, 떠있는 나무 상자를 연상케 하고 있으며 단일 재료의 깃털한 전면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에서 계단실 유리박스의 산입은 매스의 단순함을 잊게 하는 수직요소이고 이로 인해 분리된 외부 계단 상'의 조율은 실질적인 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도서관 현관으로 방문객을 이끄는 정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어린이 상록어린이도서관은 주 이용객인 어린이들을 고려한 설계자의 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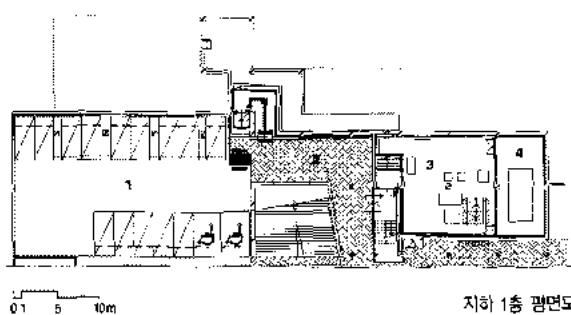
기 곳곳에 물어나고 있다.

먼저 형태적인 측면에서 금속, 목재, 콘크리트, 유리 등의 재료를 적절하게 이용, 한글의 자음인 ㄱ, ㄷ, ㅁ 등의 형상을 이 방향, 저 방향에서 인지도록 하여 어린이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즉 어린이들의 시선에 대한 거부감을 제거코자 한 작가의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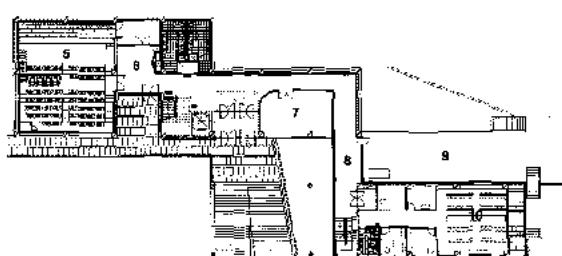
공간적 측면에서 보면 경사지인 부지의 상형을 이용, 각 층에서 외부공간으로의 다양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있나는 것이다. 내부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작은 외부공간들은 지루함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어린이들에겐 또 하나의 배움의 공간이다. 어린이들은 이곳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나무의 습결을 느낀 것이고 아간에는 번을 헤아리며 꿈을 꾸 것이다. 이 같은 자연 이외에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역동적인 도시를 내려보며 미래를 계획할 것이다.



서울_장경



지하 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밝은 공간과 그린 디자인 Hallway라고 명명된 공용공간은 도서관의 내부 분을 차지하는 정적 기능이 아닌 동적 공간이다. 가장 많은 어린이들이 경유하게 되는 이 공간은 밝음으로 가득 찬 투명 공간이다. 이는 도서관이라는 정적의 공간의 분위기에 어린이들이 쉽게 적응토록 하는 매개 공간이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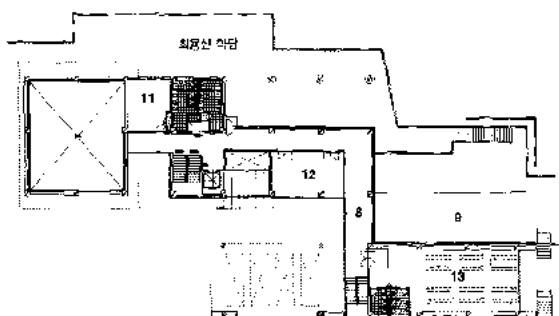
전·후의 두 개의 큰 매스를 연결하는 이 공간은 남쪽에 면하고 있으며, 외기와 면하는 부분은 실내에서 외부공간을 편안하게 조망할 수 있는 시연에너지가 충만한 공간이다. 또한 이칠 외장 자료들의 접합부분 요철은 자연스럽게 차양 역할을 수행하면서 건물 곳곳에 그늘을 만들어 주고 있다. 형태적인 요소의 이러한 복합적 기능 수행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그린디자인의 모범적인 사례일 것이다.

에필로그_어린이에게 꿈을… 그리고 추억을 담을 수 있는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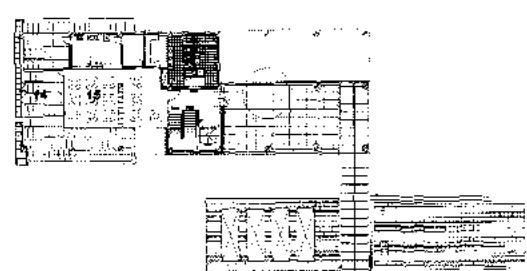
지역의 발전과 함께 나타난 도시화로 인해 우리의 아이들은 개울가의 놀이터, 풀빌레의 노래 속에 성장하지 못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 주목 꿈을 간직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하지만 지역 공공시설을 통해 이러한 꿈을 키워주고자 하는 노력들이 시작되고 있다.

상록어린이도서관의 건축물로써의 가치는 여러 부분에서 평가받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 이용객인 어린이들에 대한 역할일 것이다. 단순히 책을 비치, 빌려주고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우리 아이들이 맑은 눈과 밝은 미소 속에 미래의 꿈을 꿀 수 있는 상록어린이도서관이 되기를 기대한다. ■

(글 : 밤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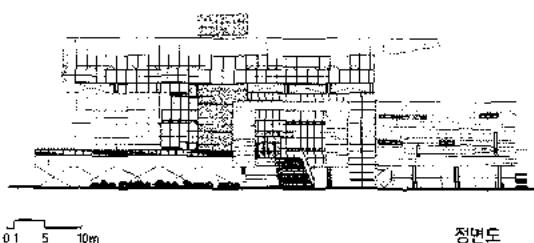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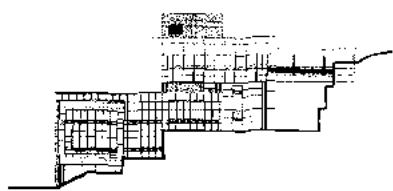
3층 평면도

01_ 주차장	06_ 품	11_ 사원용사실
02_ 사이다발	07_ 안내, 사무실	12_ 보증서고
03_ 기기실	08_ 연결돌로	13_ 열람실
04_ 전기실	09_ 유모마당	14_ 데크
05_ 대강당	10_ 유아연출장	15_ 카페데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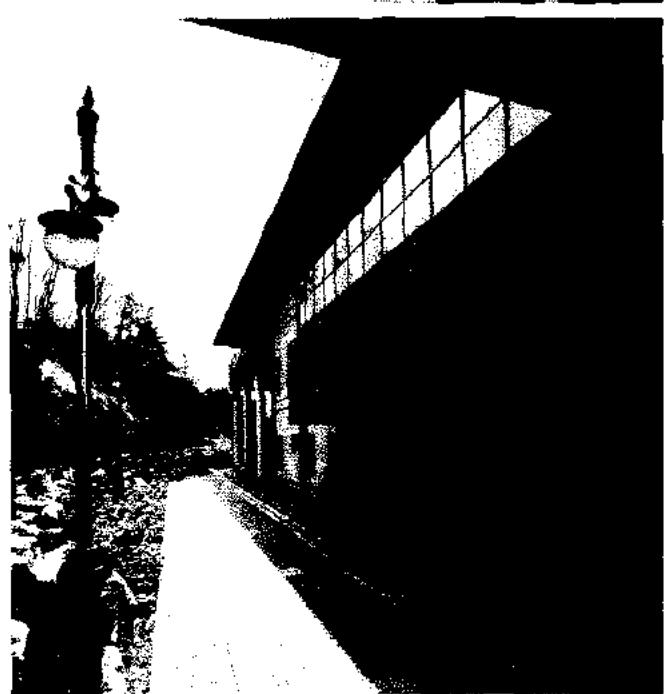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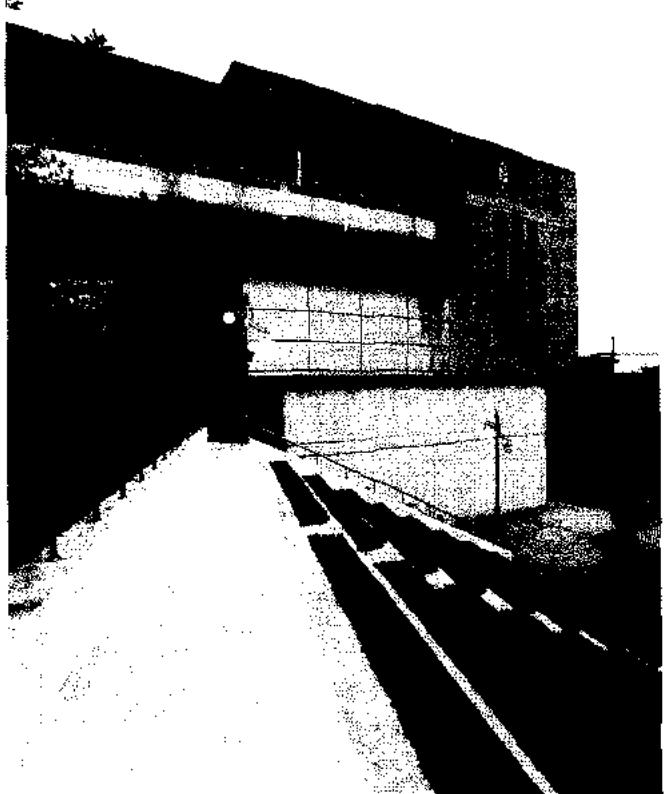
0 1 5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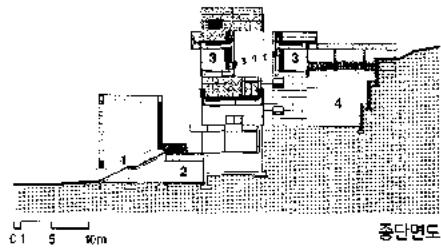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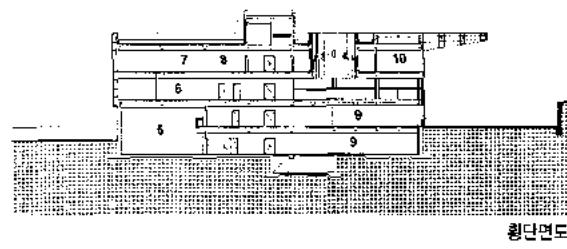
우측면도

- 1. 스크린구
- 2. 풀사유 차장
- 3. 후면 공식이 연계되는 복도
- 4. 유행마당
- 5. 대강당
- 6. 암자실
- 7. 8층 출입문 9층 설무 Room igh)를 비단으로
- 8. 3층 출입문





중단면도



횡단면도

- 01_ 외부계단
- 02_ 사이마당
- 03_ 전시공간
- 04_ 쪽화공간
- 05_ 대강당
- 06_ 카페테리아
- 07_ 청난기획설습실
- 08_ 둘리교육시설
- 09_ 복도
- 10_ 그늘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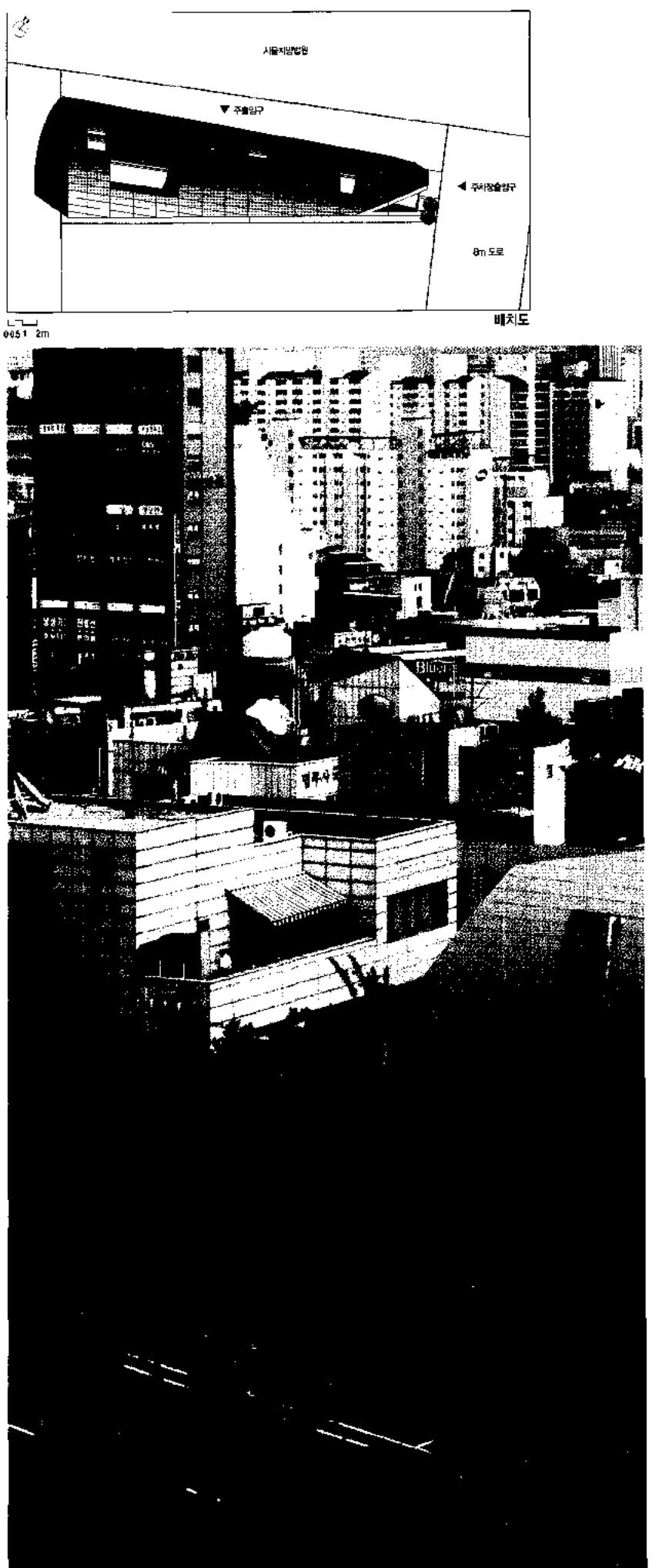


서초동 1703-9

Seocho 1703-9 Bldg.

박유진 / 정회원, (주)건축사사무소 시간
by Park, You-jin, KI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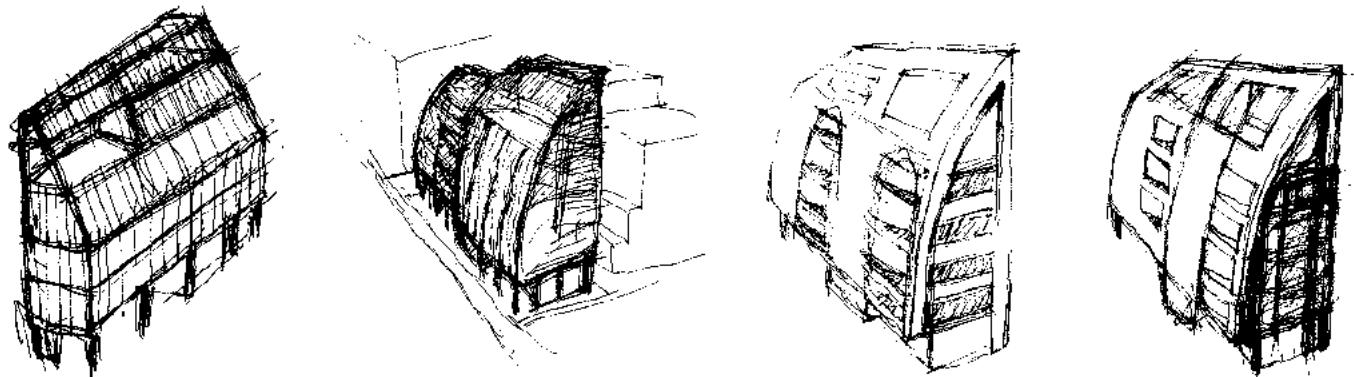
설계자료		기타	
도시계획	서울시 지정구 도로명 주소: 서초구 서초동 1703-9번지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도시계획	도시계획 제작일: 2010.09.01	구	한국로보드구조
구역별도	근린생활시설	면적	부동면적: 240.90m ²
면적	250.90m ²	면적	면적: 170.15 m ²
면적	면적: 902.75m ²	면적	면적: 902.75m ²
면적	면적: 50.97%면적: 80%면적	면적	면적: 50.97%면적: 80%면적
면적	면적: 50.97%면적: 80%면적	면적	면적: 50.97%면적: 80%면적



경관요소로서 사선제한 일조와 채광, 미관 등의 도시환경을 고려해 일정한 도로 폭 혹은 인접 내지 경계선과 관계에 따라 건축세한을 받도록 한 사선제한은 때론 그 취지와는 다르게 특유의 고정된 방향성으로 인해 공간의 유동성을 떨어뜨리고, 유사한 형태들을 출현시킨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박스형 형태만 양산해 내는 현실에서 그 끝이 지향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점은 도시경관의 다양성 측면에서 볼 때 존재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특히 도시의 대다수 지역이 주거지역임을 감안하면 그 각도가 상징하는 사회적인 의미 역시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 그것은 대지가 위치한 지역적 차이는 무시한 채 별 고민 없이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할 시 대량으로 획일화된 경관이라는 달갑지 않은 상태와 마주할 수도 있지만 동일한 법규 조건이라도 대지가 가진 미세한 차이를 발견하고 특징들을 부여하면 개성을 가지면서 전체적으로는 일정한 경관을 유지할 수 있는 양면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접근 방법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하는 사선제한은 '도시의 경관' 틀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며, 넓게는 도시의 공간적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지 내부로 그 의미를 좁혀 보면, 개별 사선들은 눈에 띄지 않으면서 내지경계선 처럼 '내사경관의 한계'를 규정하는 요소아자 '한계'라는 성격 때문에 설계 시 풀어야 할 현실적인 숙제이기도 하다.

서초동 균생 시설 역시 계획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흔히 사선과 건물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한계' 중 하나인 사이 공간을 최소화하여 유동성의 부족을 극복하는 것이다. 사선이 적용되는 대지라면 반드시 극복해야하는 일반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추가로 사용자와 방문객이 건물에 적용되 너무나도 선명한 사선의 존재를 통해 디자인의 개념을 짐작하기 보다는 그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의도된 듯 한 형태로 인지할 수 있게 최대한 자연스럽고 안정된 형상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좁고 긴대지로 인해 경사각이 더 깊은 불리한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대지만의 고유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동일한 법규의 적용이라도 개성을 위한 여건은 다를 수밖에 없는 대지간의 기본 차이인 셈이다.



스케치 초기 규모 검토 이후 제작조건들은 디자인의 필수요소가 아닌 단순한 충분 요소로 인식된다. 경계에서 자유로운 만큼 최적화된다.



경계의 실체화와 형상의 구체화_유용상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끝으로 갈수록 예각에 의해 계속 발생하는 불용공간을 줄이는 작업이 우선이다.

이 작업은 사선의 가장자리에 인장을 가해 전제석으로 긴장감 있는 형태를 만드는 일종의 ‘경계의 실체화’ 조작을 통해 구체적 모습을 띠게 된다. 무형의 존재인 사선에 대해 새로운 관계를 성립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접점의 최소화로 외형적으로는 손실이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 유용 가능한 비단면적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일대면적의 총합은 증가되어 건축주 입장에선 임대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줄여 줄 수 있는 방법이다. 부수적으로는 지상에서 불 때 곡면 최고점 부분에서 느껴질 아스마트로 발생하는 입구 상승효과 때문에 관찰 위치에 따라 경계점이 모호해지는 ‘경계의 불명확화’가 연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변형은 외부의 불리한 조건에 대해 공간의 낭비를 없애기 위한 일종의 내부적 형태 부풀리기라 정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구직이면서도 안정된 형상이라는 또 다른 목적에 투합하는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연장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협소한 대지 여건으로 발생하는 투시도적 관찰 한계와 그로인해 왜스해질 매스(Mass)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화된 형상을 추상화’ 시키는 과정이 더해지면 전체적인 윤곽이 완성된다.

‘구체화된 형상을 추상화’ 시킨다는 것은 형상은 같으나 비율이 다른 양 측면을 이용한 왜곡효과와 한 고현으로 사선제한과 함께 대지 내 주요 지향사항인 건물과 대지의 이격으로 인해 축소된 부분을 시각적으로 보정한다는 의미가 있다.

다른 한편, 법적인 조건에 정확히 틀을 맞추려 한 건물은 어색함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장식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것은 대지의 ‘공간적 한계’와 ‘디자인의 한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적 조건들을 이해석하여 그 경계에

서 자유로운 간불은 최초의 형상으로도 대시에 좌석화된 모습이며, 입면과 세부공간구성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대법원 넓은 마당을 담기 위해서 별도의 공간적 장치나 의미 없는 옥상공간의 활용에 아닌, 형상은 그대로 유지한 채 입면의 일부를 자연스럽게 도려내며 한 건 어쩌면 당연한 시도다. 형태적 특성으로 하늘까지 연장된 3차원의 입체적 조망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주변이 작은 테라스들 역시 곡면의 외형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입면을 인체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최소한의 도려냄으로 자리를 잡게 한 건 같은 맥락에선이다.

근생시설의 새로운 가능성_거주를 위한 최적의 환경확보를 우선시하는 지역에 신축되는 건물은 용도와는 상관없이 여러 제약에 의해 운신의 폭이 좁은 게 사실이다. 너구나 도시의 내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주거지역이고 보면 유사한 형태를 지향하기 위한 건축가의 고민이 하나의 대지에 국한되는 특수적인 것만은 아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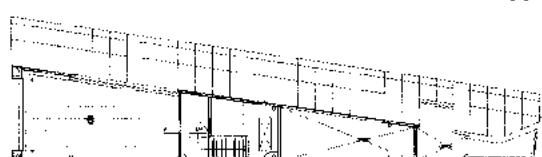
지역적 특성(법조타운)과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형태의 제안을 통해 의도하고자 하는 것 역시 난순히 한 대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 아닌 공통적인 문제에 대해 네기다브적인 자세를 견지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면 불리한 조건하에서도 새로운 디자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시에 사선제한의 초종 목적인 개방감 확보에도 걸맞고 주변과 차별화된 무 습도 갖춰 인근 블록에 자극과 활력을 주는 사회적 역할도 가능함을 말하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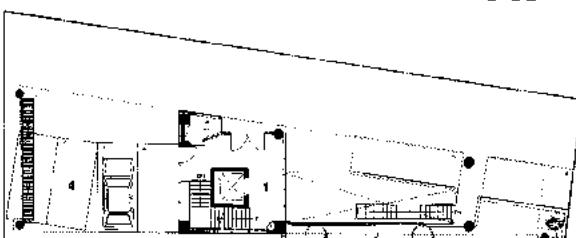
미래에 있을 주변 ‘도시의 경관’ 변화에 대해 서초동 근생시설이 하나의 전형으로 남길 바라는 것도 이 때문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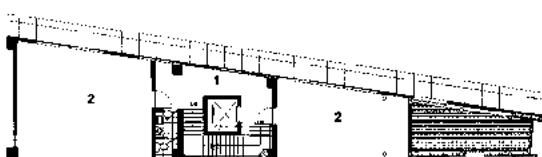
2~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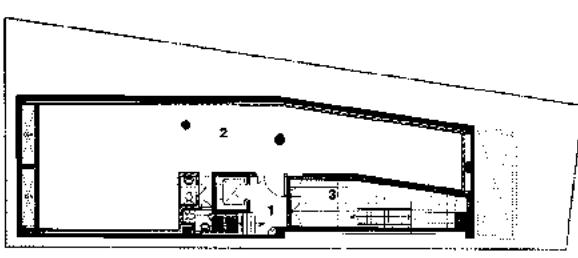
옥상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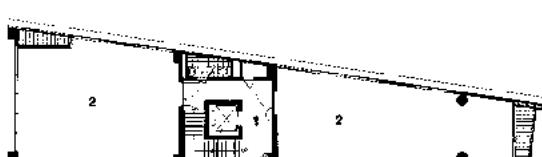
1층 평면도



5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4층 평면도

0651 2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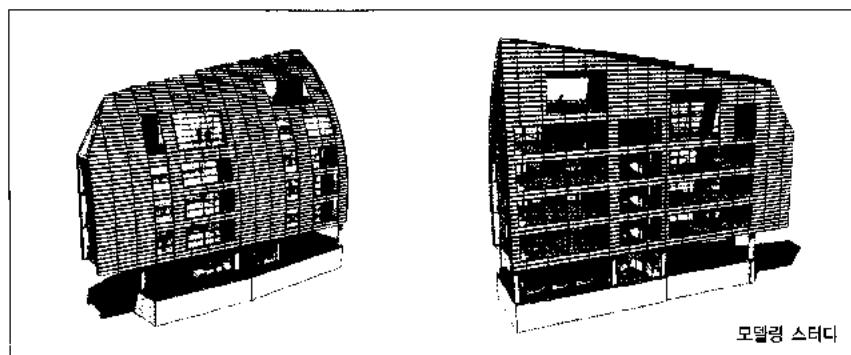
설민에서 찾은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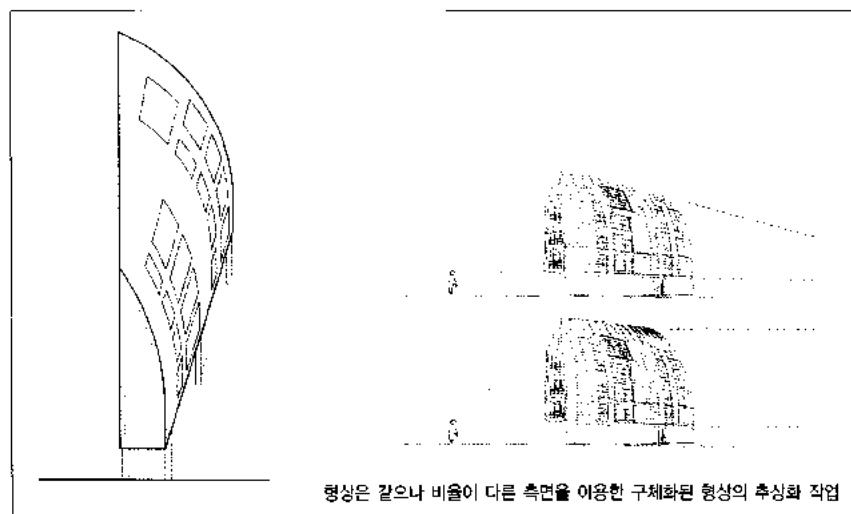
우승: 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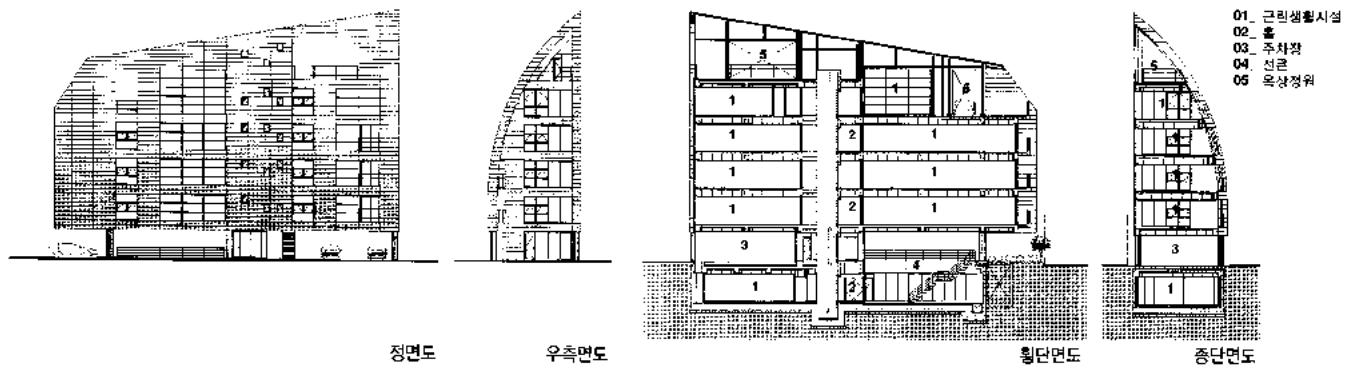
신근



모델링 스터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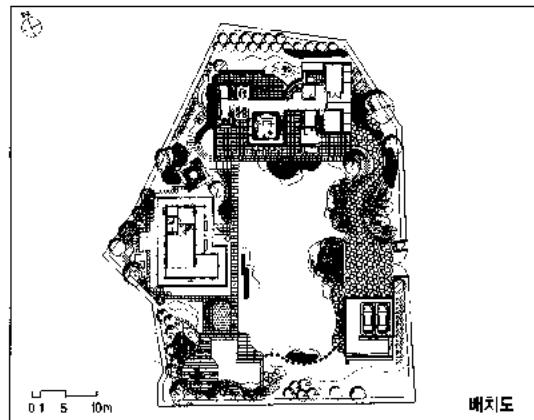
형상은 같으나 비율이 다른 측면을 이용한 구체화된 형상의 추상화 작업



행복한 나의 집

Mi Hogar

명제근 / 정희원, 웰하우스 종합건축사사무소
by Myoung, Je-geun, KIRA



대체부처	미국교 육군장 훈련단 301-7번지	정부미관	로마서를 쓴 아우구스티누스(395년)
지정부처	국내 노동시행	국가보통법	국가보통법(보통실크)
주소부처	전국주부	내부통제	마리아나리온, 헤리갈라프로비아(마리아)
부서별적	2245.00m ²	외부통제	마리아리온, 헤리갈라프로비아(마리아)
집합면적	300.00m ²	한정V/F	마리아리온, 헤리갈라프로비아(마리아)
면적률	49.95/100m ²	설비설계	마리아리온, 헤리갈라프로비아(마리아)
전체면적	17,541m ²	구조설계	마리아리온, 헤리갈라프로비아(마리아)
부지면적	21,695%	전기설계	마리아리온, 헤리갈라프로비아(마리아)
부지율	80%~100%	설비설계	마리아리온, 헤리갈라프로비아(마리아)
구조설계	마리아리온, 헤리갈라프로비아(마리아)	설계도면	마리아리온, 헤리갈라프로비아(마리아)
구조설계	마리아리온, 헤리갈라프로비아(마리아)	설계도면	마리아리온, 헤리갈라프로비아(마리아)

이 주택의 건축주는 30년 동안 남미의 해외에서 생활하신 사업가이다. 힘든 티지생활을 정리하고 국내에서 생활을 하고자 주택을 계획하게 되었다. 처음 현장을 찾았을 때는 한창 농사준비철인 초봄이었다. 계획대지에는 농작물이 심어져 있고, 주변에는 푸른 초원이 펼쳐진 전형적인 우리 농촌의 풍경이었다. 도시 근교에 위치한 대지는 북쪽으로는 주산이 위치하고, 남쪽으로는 남한강줄기와 시내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경관이 우수한 대지였다. 대지형상은 Level고가 약 8m 정도 나는 경사형 지반을 콘크리트 옹벽을 사용하여 이미 평坦하게 조성해 놓음으로써 주변 사연경관과 조화되는 계획을 할 수 없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현장을 둘러본 후 건축주는 바로 출국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업무적인 대화와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맙지 않은 대화 속에서도 의도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었다.

건축주의 부재중에 계획하고 진행하는 Project이기에 큰 책임감과 부담감을 안고 작업에 임하였다. 기본 설계 방향을 현대식 수택과 전통 한옥주택, 한식 담장 등 현대식과 고건축이라는 두 양식을 한 대지 안에 조화롭게 구성하는데 수안석을 두었다. 대지의 남북방향을 축으로 주산을 둘지고 남한강을 바라보는 전저후고청의 본동을 계획하고, 동서방향으로 전통 한옥과 괴리동을 계획하였다. 한옥의 부지가 진입구 Level보다 낮게 형성된 것을 보완하기 위해 대문입구와 한옥 앞마당의 Level을 분리하여, 마운딩 형태의 조경계획을 함으로써 진입구와 계획대지 간에 발생된 Level 차를 극복하였다.

본래의 각 실 배치는 일자(一)형태의 공간에서 옮 수 있는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비정형적으로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건축주와의 협의과정에서 계획방향이 바뀌어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오랜 외국생활에 익숙해진 건축주의 생활방식으로, 거실을 비롯한 공적공간은 1층에, 침실 등의 사적공간은 2층에 계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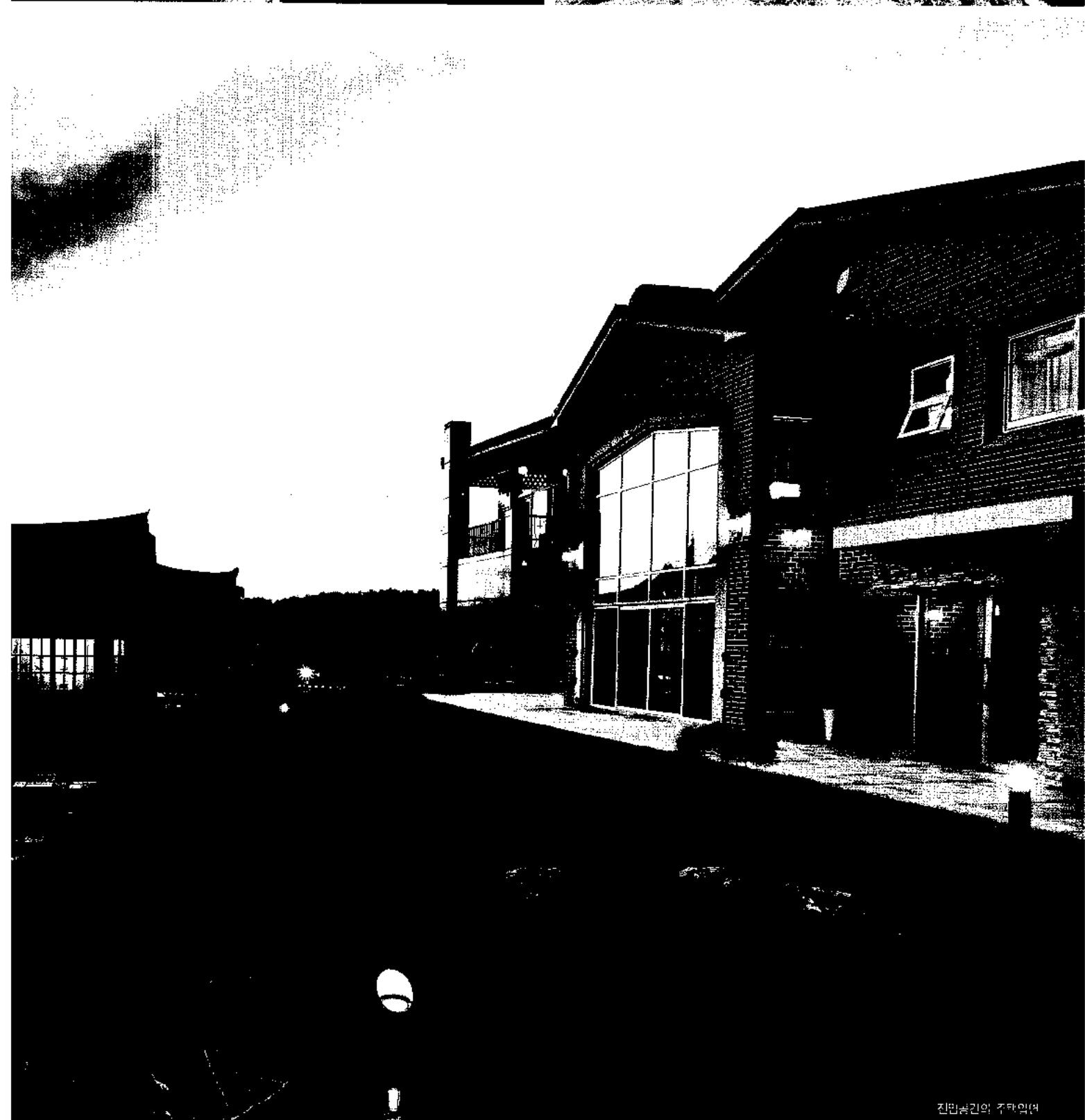
현관과 거실을 근접 계획하여 동적인 동선을 최소화되게 하였고, 현관입구 전면에 이미지월과 코속을 계획하여 내부로의 전구 시 방향성을 제시



부록



국립현대미술관



진입금간의 주차법

하고자 하였다. 서사에는 고층창을 두어 일부 성로수를 살피어서도 사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라운드형 층을 두어 단조로운 질 수 있는 입면 형태 변화감을 주고자 하였다. 또한 거실 천정을 높게 구성하여 개방감을 확보하고, 거실 창을 통해 2층에서도 조망과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기실과 연계되는 주방·식당은 동선을 줄이고, 전·후면 창을 계획하여 개방감을 확보함과 동시에 자연환경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수직동선을 타원형으로 계획하고, 키튼월 창은 계획하여 타원형 계단과 소화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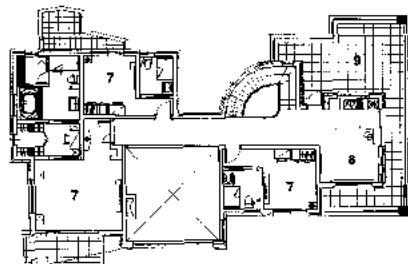
2층은 가족실과 부부침실, 각 자녀들의 침실을 두고 각자의 공간 내부에 전용 욕실을 계획하여 프라이버시를 확보하였다. 당시 거주하기 될 건축주 내외의 부부침실은 베란다를 통해 자연과 쉽게 소통할 수 있게 하였다.

주택 외관은 박공형태의 지붕으로 주요 신세의 스키아리온을 이어주고, 간결한 느낌의 노출콘크리트 바닥을 하였으나, 건축주의 요구로 시공과정 중에 가감자리를 변경하였다. 주변 환경을 읽으며 대자로 연결하여 풍수적인 부분을 적용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우수한 수변 경관을 수벽 내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Project가 그리하겠지만, 건축주의 부자증에 진행되었기에 협의 하에 결

정된 부분 드한 간죽주 이상의 조심스러움과 고민이 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무리 된 시점에서 시내 온 곳들을 되돌아보니 아쉬움, 노럼 등의 만감이 교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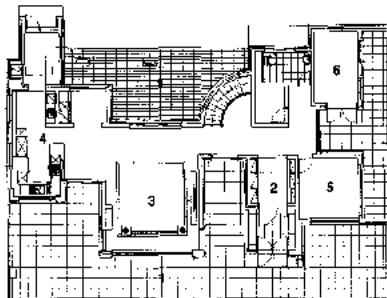
도심시에 서어서는 내구보 건축물들은 설계니시안과 시공상 등이 높은 수준에 이르지만, 그 외 소규모 건축물 등은 아직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할을 느낀다. 그러한 변화는 설계사와 시공자만으로는 이룰 수 없고, 건축주와 함께 모두의 억식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효율적이고 원성도 있는 설계 노서가 만들어져야 공사과정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줄이고, 완성도 높은 건축물과 많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우리만의 고유의 건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설계자는 건축주의 요구사항과 설계사의 창작성을 반영하여 공사 예산, 시공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보완하고 계획하여야 한다. 또한 내·외부 마감재에서부터 외부 소경까지 이르는 종합적인 설계능력을 갖추어야 함을 이 Project를 통해 다시금 알겠다. 끝으로, 01 프로젝트의 실행을 맡고 맡겨준 건축주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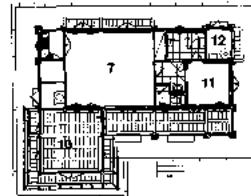


본동 2층 평면도

- | | |
|------------|---------|
| 01_ 테라스 | 07_ 방 |
| 02_ 현관 | 08_ 가족실 |
| 03_ 거실 | 09_ 발코니 |
| 04_ 침문, 주방 | 10_ 누나루 |
| 05_ 서재 | 11_ 환풍문 |
| 06_ 보일러실 | 12_ 경지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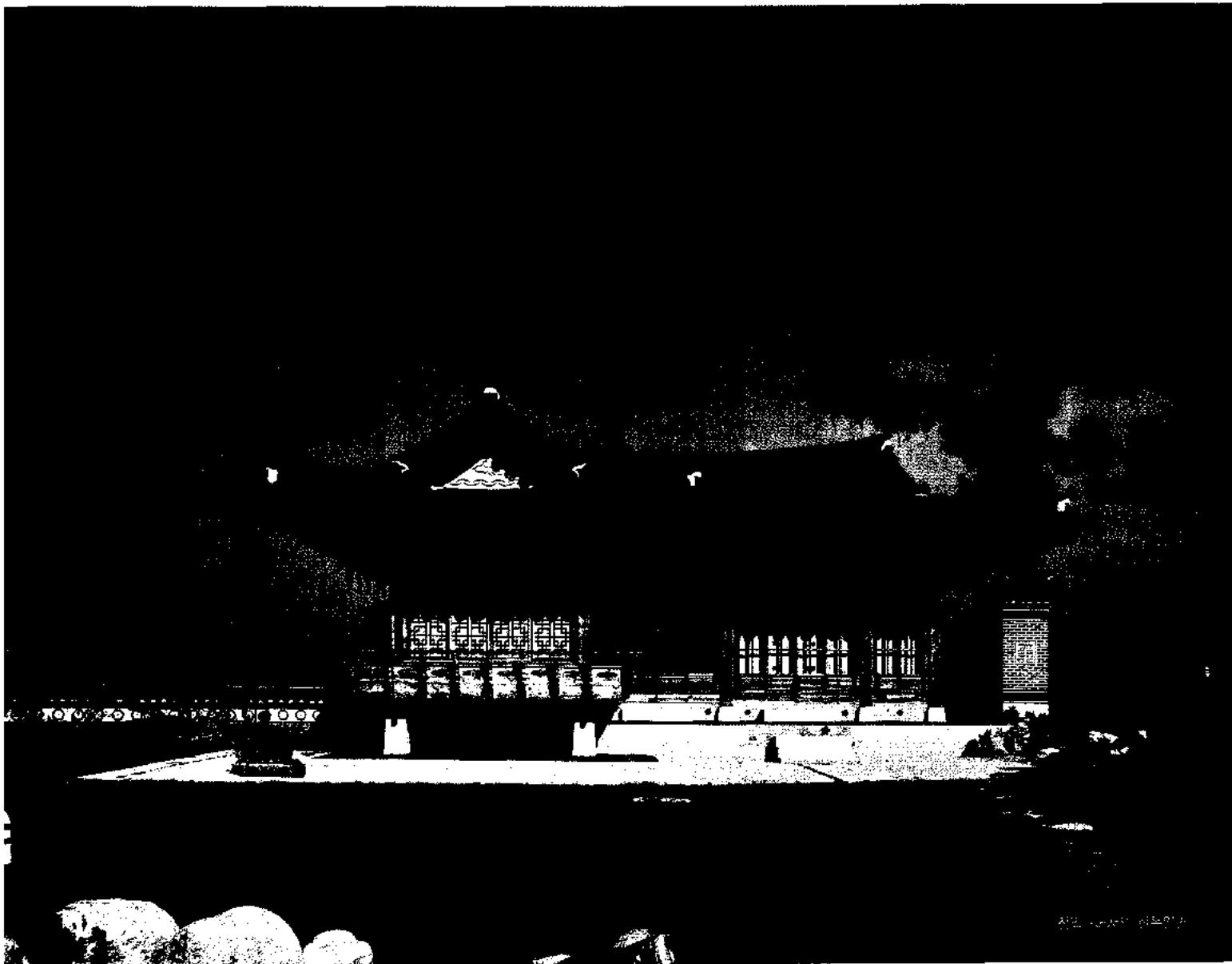
본동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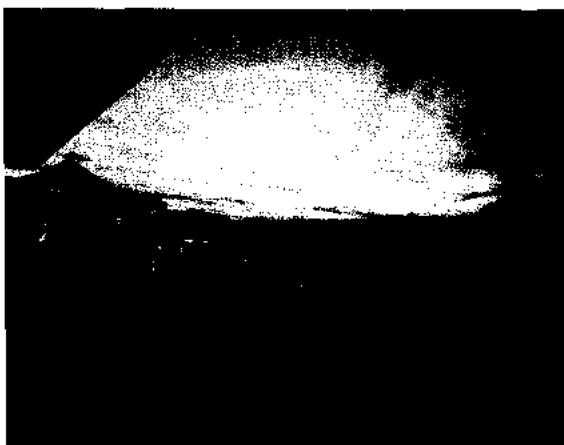
한옥 1층 평면도

0 1 5m

0 1 5m



설립 : 대한건축사협회



본동 정면도

본동 우측면도



0 1 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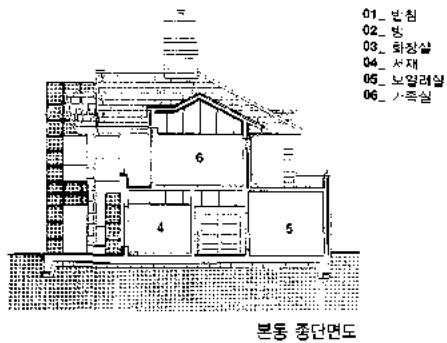
한옥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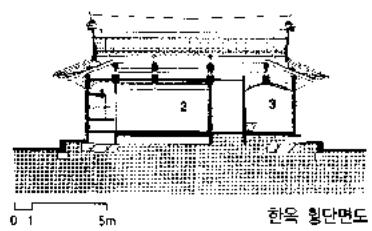
한옥 우측면도

1. 희지 서축 궁? 5. 만장에서 후장 노송
2. 전각과 정도 사이의 창도녀 6. 거실과 보교를 통한 조방
3. 한옥 난간, 창호 및 누끼두 7. 노다루를 통한 의보조망
4. 본래 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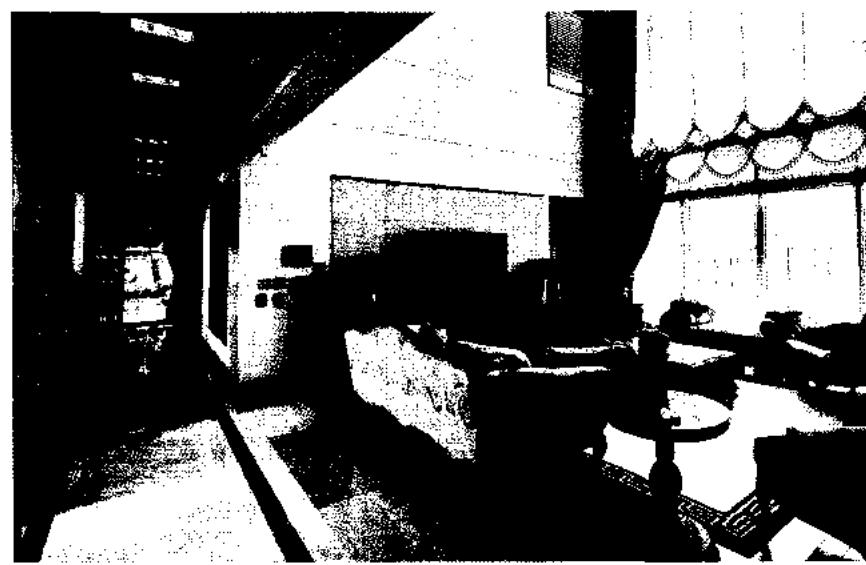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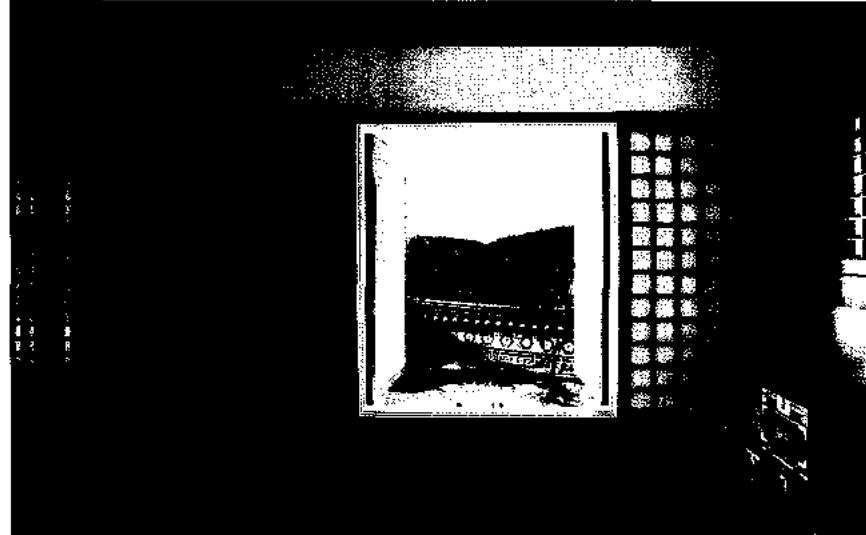




본동 종단면도



한옥 횡단면도



이시대 건축가로 살기

Existing as architect in this age

류춘수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 대표

1946년 11월 경북 봉화생

한양대학교 건축과 졸업(1970년)



건축과 입학동기

저는 원래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건축과에 가려고 했습니다.

적성검사에서도 그렇게 나타났었구요. 미대보다도 건축과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경북에서 제일 그림을 잘 그린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영남일보에서 주최하는 학생사생대회에서 1등을 하는 바람에 그런 생각이 굳어진 것 같아요. 고등학생 솜씨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수학·물리과목을 잘 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과목들을 합치면 당연히 건축과에 지원한 거지요.

64년, 65년 2년간은 봉화군에 있는 '죽서사'라는 절에서 보냈습니다. 2년 동안 공부도 하고, 사실은 제가 절을 좋아하거든요. 집이 부자였다면 미국 유학가서 서양건축을 배워 지금과는 다른 취향의 건축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요. 대학 졸업 당시 졸업 작품이 절(寺)이었는데 졸업하자마자 대한불교 조계종 대본산 계획 안 현상이 있어 졸업 작품을 그대로 제출했고, 상금을 받았습니다. 전통을 현대화하려는 취향이 이미 당시부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건축이 내게 준 영향

월드컵경기장 당선 후 일본 NHK방송에서 2002년 6월경 '시공을 초월하여'라는 제목의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이때 전통건축과 월드컵경기장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게 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30분짜리였는데 저에게는 시골에서 태어나 자라고, 절간에서도 오랜 기간 묵은 적이 있고 종가집에서 자라난 경험이 몸에 배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혹 건축가들이 전통건축에서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눈으로 본 것으로, 이성으로 느낀 것을 가지고 말할 때, 때로는 탐탁스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던한 기술적인 건축에 등한 한 바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의 역할을 짚어짐

1970년 대학교 졸업하면 해 2월에 부친이 돌아가셨습니다. 저에게는 영주세무서 공무원인 여동생, 연대 주생활과 다니던 여동생, 건국대 상대 다니는 동생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공부를 시켜야 할 책무기 지워

진 것입니다. 특히 막내 동생의 공부는 내가 책임질 둇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건축사사무소의 급료가 1만원 혹은 1만 5천원 하던 시절이나 25세의 청년의 삶으로는 정말 짹짜한 것이었습니다.

생애 첫 번째 설계경기 당선

주변 친구들이 생활 때문에 은행에 취직하고 그러던 때 나는 제네랄 건축연구소(대표 한창진)에 취직하고 부족한 돈은 투시도를 그려주는 아르바이트로 충족 하던 때였습니다. 1970년에 불교미술관 공모전에서 당선하여 당시 돈 5만원을 상금으로 받았습니다.

처음 설계비로 집을 짓다

당시 조계사 총무스님이 부산 대각사 주지스님이었는데 불교회관 설계를 부탁했습니다.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설계비를 60만원 받았고, 당시 휘경동에 살 때인데 당시 집값이 90만원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설계비를 받으면 집 한 채 살돈이 되는데 72년도에 봉천동에 주택을 짓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2년 만에 집을 진 것입니다.

대연각화재로 죽을 뻔하다

배고픈 시절에 설계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투시도 그리며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 도움이 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71년 12월 24일, 성탄절날 저녁에 대연각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영건축(민경재 소장)부탁으로 투시도를 밤새워 그려 주어야 할 형편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성탄절 저녁이라고 들떠있는데 나만 아르바이트 하려고 생각하니 마음이 울적해 있던 차였습니다. 당시 화급을 다했던 건축주 측에서 하루 이를 연기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는 다른 직원들이 "놀자" 하는데 나는 김이 새서 집에 간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다른 직원들도 덩달아 다 따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 밤에 불이 난 것입니다.

사무소는 도면이고 뭐고 다타버리고 연필심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나를 따라 나왔던 직원들이 나에게 생명의 은인이라고 합니다.

제네랄건축과 공간사에서의 경력

제네랄 건축은 71년 밀까지 다니다가 종합건축으로

나는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해서 돈을 벌 목적을 가진 사람은 차라리 다른 직업을 택하라고 하고 싶어요.
비지니스를 목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목적이 뒤바뀌다보니, 남의 입에 들어간 일로 차
뺏어내려고 하는 것을 보면 추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사무소들은 건축계에 존재할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옮겼고 74년에는 김수근 선생의 공간사로 옮겼습니다.

당시 홍순인 소상이 공간의 대표로 있었는데 나를 김수근 선생에게 소개해서 74년 9월 9일 입사한 뒤 86년 10월 말까지 12년을 있게 된 것입니다. 86년 6월 14일 김수근 선생이 돌아가시고 4개월 동안 공릉사옥에 머무르다가 86년 10월 이공이라는 간판으로 개업을 한 것이지요.

제네랄 건축에 있을 때 한 것으로는 부산해양대학 현상설계(낙선) 그리고 주택설계가 하나있는데 스케치 옆에 한창전 선생이 '장래의 건축가 류준수에게'라고 메모를 쓰고 수정사항을 조목조목 적어 놓으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종합건축에서는 서울대학교 도서관(1971~2), 청와대 제2신관 그리고 공간사에서는 서울대 환경예술관(1975년), 한계령 휴게소(1979), 이란 양보자 하우징(1976), 부산 야구장(1979), 체조경기장(1983~5), 경북궁 지하 절역사(1984) 등입니다.

특히 체조경기장으로 호주에서 시행하는 쿼터니리오상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당시 윤상은 노만 포스터, 동상은 호주의 필립 록스 등이 받은 것이 기억납니다.

김수근 선생 돌아가심

공간사는 84년부터 소장제를 도입하여 각 소장별로 독립채산제였습니다. 그리고 작품 이름도 소장 이름이 들어갈 수 있게 하였는데 결국 유능한 사람들을 불들어두려는 생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김수근 선생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독립이 당겨진 것이라고 봅니다. 86년 독립하기 전 공간사에서 눈물의 고별사를 하고 당시 나에게 속했던 팀 전원(12명)을 끌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팀원들 중 실반이 현재까지 남아있습니다.

이공건축 개업 후의 일들

개업 후 한 일들을 꼽아보면 삼하리 주택(1987년 한국건축가협회 아천상 수상), 강촌휴게소(1989년 한국건축가협회상 수상), 영등포 구민회관, 말레이시아 사라와크 주경기장 기념설계(1988~1989), 러츠칼튼 호텔(1992), 이공사옥(1992), 김포공항 지하철 역사(1989),

월드컵경기장(1998, 서울시 건축상 금상), 영주 경륜훈련원(1994년) 등입니다. 그리고 해외프로젝트로는 중국 해남성 해구시 신부도 도시설계(설계경기 당선, 2006년), XIAMEN올림픽 테니스경기장 및 클럽하우스(2005년), 부산 해운대 트리플스퀘어(117층, 규모 20만 평, 2007년) 등이 있습니다.

나의 사무실 운영방식

이공건축은 사람이 없습니다. 2000년도부터 독립채산제로 해서 1997년부터 각 소장 독립 채산제로 각 소장마다 독립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5~6개의 소장이 주도하는 회사체제로 되어있습니다. 이공건축 이름으로 계약하고 합동으로 계약하기도 하고 각 소장별로 따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장점은 월급을 주는 고통에서 벗어난 셈이지요. 나는 디자인만 신경 쓰면 되니까요.

요즘 100층 이상 되는 기본설계를 맡고 보니 건축주가 회사소식만 보고 능력을 의심하는 세태가 되어서 사람 없다고 일 못하는 것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것이 싫더군요. 좋은 점은 각자 80% 혹은 70%의 설계비 내에서 설계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내 밑으로 이공건축 본부팀을 강화하여 조직을 짜려고 합니다. 20명 정도의 팀을 만드려고 합니다.

소장이 6명이고, 한 소장 밑에 5명 있는 팀도 있고 12~13명인 팀도 있어 모두 40명 정도 됩니다.

이공공사라는 이름으로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을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나의 비전

비전은 없구요. 재작년에 환갑을 맞았는데 나이에서 20년을 자르고 40세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생각도 바꾸고 젊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중국말도 배우고 컴퓨터도 더 열심히 배우기로 했습니다.

큰 애가 건축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양건축에 있습니다. 출연하고 10년이 되었는데 따지면 30년 후배인 셈이지요. 내년에 건축사시험을 보는데 어쨌거나 장가도 보내고 면허도 따고 그리고 이공에 와서 능력 있는 사람 밑에서 더 커야 되겠지요.

- (주)제인 종합건축사사무소
- 한양대학교 건축과 및 동대학 산업대학원 졸업
- 한국건축가협회 명예이사
- 대학건축사협회 건축사지 편찬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초기

중국에서 당선된 868타워로 국내 신문지면을 채운 기사가 나왔을 때 나는 기본계획만 하고 나머지는 손대지 말라고 충고를 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 류준수 선생의 답변은 “아니야 디테일까지 다 해야돼”라고 답하면서 인생 최대의 도박을 건 듯한 강한 인상을 받았다. 그 이후 그 일이 추진이 잘 안되어서 아주 힘들게 되었을 때 그를 구해준 것이 바로 월드컵경기장설계이다. 이 경기장 설계 당선으로 그는 유명해졌고 다시 한 번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만큼 공공대형건축의 수주는 한건축가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이다. 그는 대당하다. 일례를 들자면 같은 영어실력으로 내가 수줍게 영어를 구사한다면 그는 같은 실력으로 담대하게 해외에서 영어로 강의를 할 정도로 배짱이 두둑하다. 그의 배짱을 그의 건축에서 한 번 더 볼 수 있기를 바란다.

파트너십에 대한 나의 생각

엄밀한 파트너십이라면 동격이 되어야 하는데 동등하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리더로서 젊고 능력 있는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인물들과 파트너십을 갖고 싶습니다.

미국건축가협회 명예회원이 되다

2008년 미국건축가협회에서 미국건축가협회 명예회원(Hon. FAIA)이 되었습니다. 명예회원 5인의 추천이 있어야 하고 심사가 엄격한데다 매년 5~600명이 신청합니다. 분야는 교육계, 건축계 기여도, 기술, 디자인 부문 등으로 나누어 선정합니다.

나의 건축인생에 대한 신조

제가 늘 살아가는데 신조로 삼는 말이 있다면 수시 중체(隨時中處)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뜻을 풀면, 주어진 환경에 딱 맞는 작업을 한다는 뜻으로 풀고 있습니다. 만약 뉴욕에 그층 건축을 설계한다면 뉴욕생활 패턴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추는 디자인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868타워(1992)라고 중국민원공사(해남소재)에서 발주한 일인데, 한·중수교가 이뤄지던 해 12월 국제지명설계경기에 참여한 것이 있습니다. 연면적 13만평에 86층 그리고 68층으로 오피스, 호텔 및 상업시설 등이 혼재한 복합건축으로 하나는 바위산의 형상을 모티파이(modify)하고 하나는 하이테크한 건축의 조합으로 전혀 다른 이질적인 것을 조합한 것입니다.

해나는 촉서루 같은 모양으로 즉 은양의 조화를 피하려는 목적이 가미된 계획이 당선되고 DD(Design Development)단계에서 오너가 갑작에 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그가 중국CDMA(이동통신기기) 국제입찰에서 일 등을 해서 바야흐로 중국최대갑부기 되려는 순간 이동 회사가 된 총리의 동생회사에서 그에게 죄목을 걸어 감옥에 보내버린 것입니다. 5년 내에 회사는 거덜나버렸지요.

중국에서 개최되는 아시안 게임에 대한 자문을 하다

1984년 올림픽체조경기장 설계를 미국 가이거박사와 같이 하게 되었는데 그의 제자가 펜싱경기장설계에 참여하였습니다. 고조관계를 내가 잘 이해하니까 1986년 김수근 선생이 아시안게임 끝나고 내가 독립직전에 북경에서 1990년 아시안게임 하게 될 때였습니다. 올림픽 치르기 전에 세미나를 하면서 가이거박사 제자가 중국아시안게임 당국자에게 자문 받으려면 한국의 류준수를 불러라 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나는 41세였는데 당시 중국정부에서는 거절했답니다. 아직 대한민국 정부와는 수교도 안 된 상태이고, 기타 등등해서 그런 차제에 청화대학교 교수인 평교수가 강력 추천해서 1988년 한국올림픽 직전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 9월에 출국하여 한 달여를 중국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백두산도 가보고 했지요. 한 달 있으면서 스포츠시설의 방향 등에 대해 강의해 주고 완공 후 활용방안 등에 대해 말해주었지요. 특별 대우 받았습니다. 1990년 말 스포츠건축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는데 당시 내가 주장한 것은 올림픽 행사 후 활용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북경올림픽 행사 후 그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지 걱정이 됩니다. 돈을 물 쓰듯이 쓴 행사 후 어떻게 잘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도 상암동월드컵경기장은 한 달에 20억 매출에 연 10억씩 이익이 난다는 겁니다. 서울시 전체 수입 중 제일 많다는 겁니다.

현재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나의 생각

나는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해서 돈을 벌 목적을 가진 사람은 차라리 다른 직업을 택하라고 하고 싶어요. 비지니스를 목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목적이 뒤비끼다보니, 남의 입에 늘어간 일수자 뺏어내려고 하는 것을 보면 추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사무소들은 건축계에 존재할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

설계경기 | Competition

덕성여자대학교 약학관

Duksung Women's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Construction

당선작 / 조주환 정해원
(주)시아플랜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419번지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183,408m ² (캠퍼스 전체)
건축면적	2,436m ²
연 면 적	8,571m ²
건 빌 을	16.28%(캠퍼스 전체)
용 적 률	44.94%(캠퍼스 전체)
규 모	지하 1층, 지상 4층
발 주 처	덕성여자대학교
설계팀명	양희범, 최용진, 이성민, 남민기, 유원창, 김재섭, 최봉이, 조현민, 이지민

Campus Masterplan_북한산 인수봉과 배운대의 스카이라인이 그림같이 펼쳐져 있는 수려한 경관 아래 자리잡고 있는 덕성여대 캠퍼스는 용기종기 낮은 조적 건축물과 내부에 형성된 중정들, 그리고 이 중정들을 연결하는 필로티를 특징으로 하는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다.

자연과 벽들, 필로티는 다른 서울의 도심캠퍼스에서 볼 수 없는 덕성여대 캠퍼스 만이 가진 특징으로 'D-SQUARE'는 이러한 캠퍼스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한 학습과 연구공간이다.

건축계획 특징_북한산과 도봉산의 능선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골짜기에 자리잡고 있는 계획부지는 캠퍼스 내로 자연을 유입시킬 수 있는 관문에 위치하고 있다. 필로티로 뛰워진 매스 아래에 레벨 차를 이용한 아트홀을 계획하여 아트홀 지붕을 통해 자연을 유입시키고, 멀리 북한산 조망까지 가능한 외부공간을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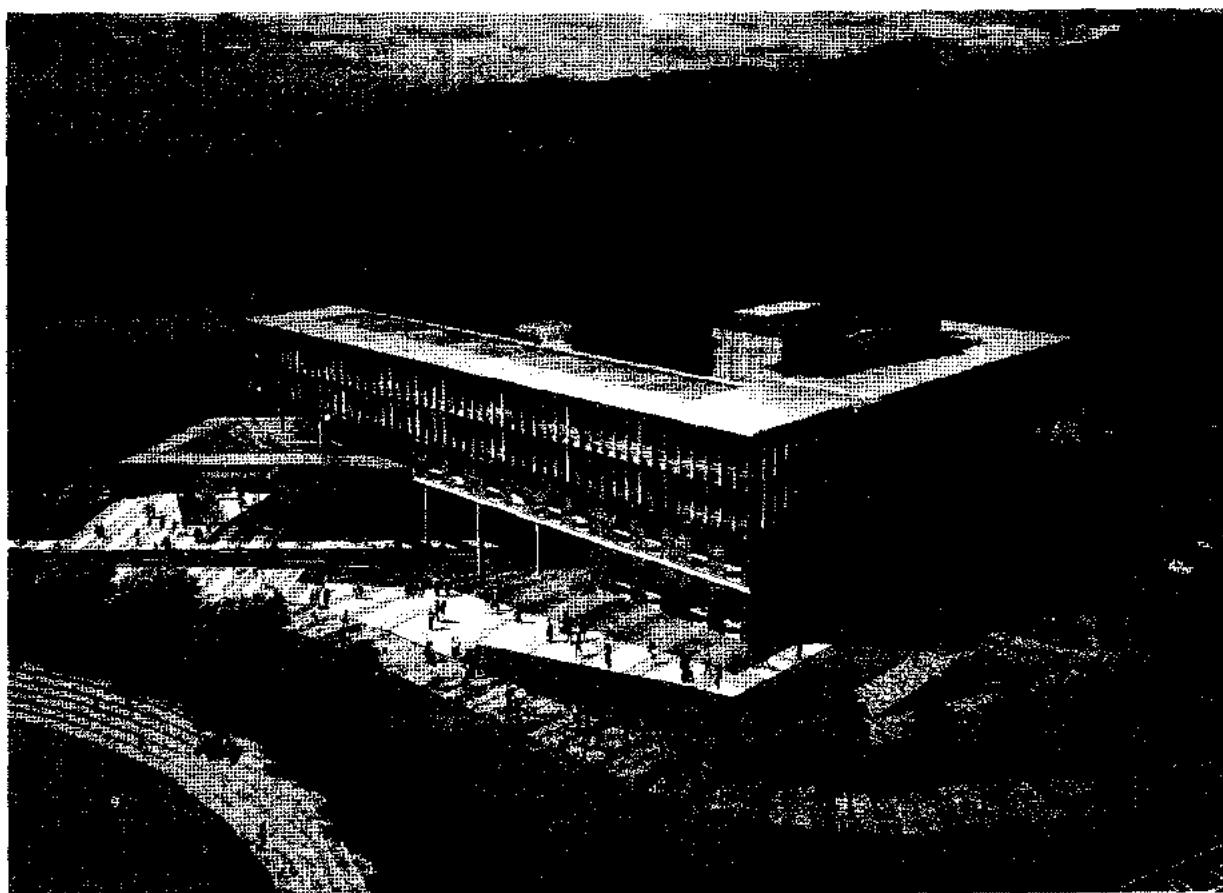
공하였다. 김수근 선생이 처음 캠퍼스를 설계하면서도 밖을 향하여 내다보았을 때 멀리서 캠퍼스를 감싸고 있는 산들이 조망될 수 있도록 1층을 피로티로 계획했다고 한다.

뛰워진 매스(3, 4층)에는 수려한 경관을 조망하면서 장시간 연구할 수 있도록 교수연구실을 계획하였다. 이 곳에서 약학대학의 비전인 신약개발을 이룰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 될 것이다.

Court_중정과 레벨차를 활용하여 학습과 휴식, 커뮤니티의 성격을 갖는 공간을 계획했다.

학습영역인 Pharm's Hill은 아트홀의 경사지붕을 활용한 공간으로 휴식과 함께 학습이 가능한 약초원 및 북한산조망이 가능한 휴게데크, 팝 키오스크를 계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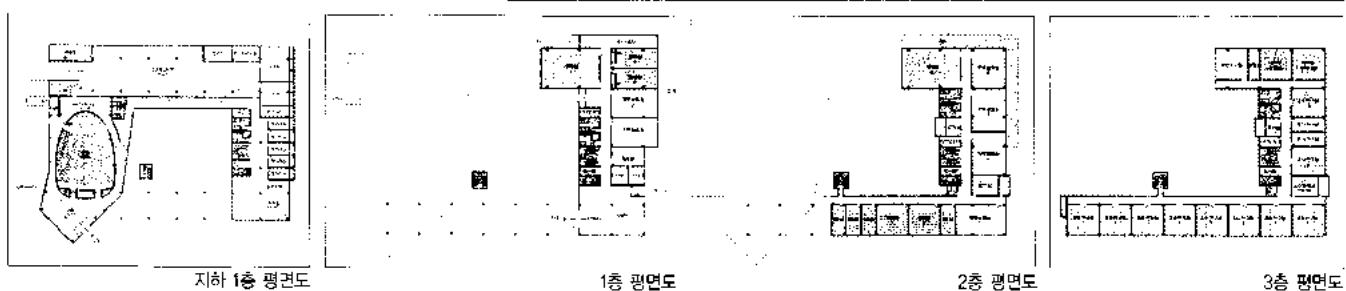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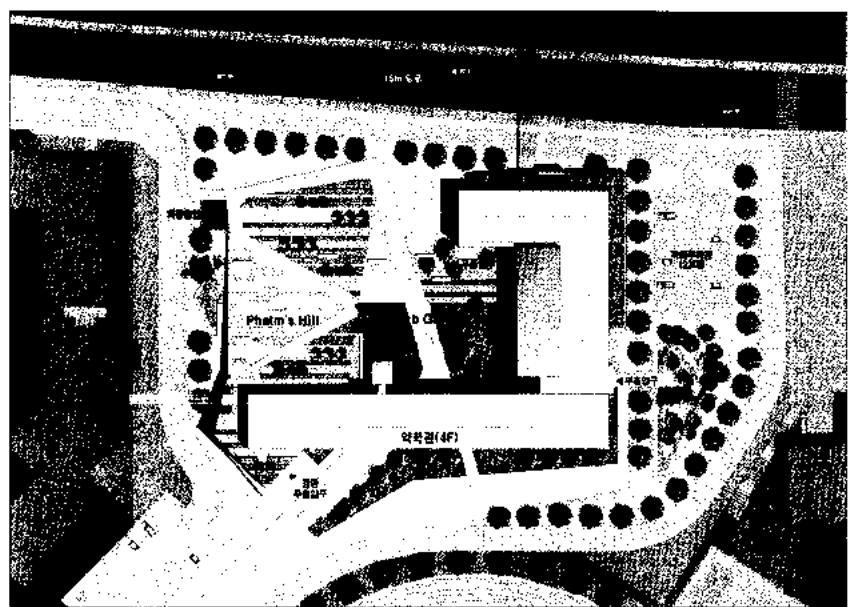
휴식영역인 Herb Garden은 치유와 휴식의 허브힐, 지압정원, 수공간을 계획했다.



커뮤니티 공간인 Dios Plaza는 자연속에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다.

Brick & Glass_캠퍼스 내 모든 건물은 4층 이하 조적조 건물이다. D-SQUARE는 기존건물들과 높이가 비슷한 2층까지는 벽돌로 계획하고, 신약개발의 심장작공간인 Floating Mass는 Glass로 계획하여 캠퍼스의 전통과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동시에 구현했다. 또한 상층부의 Glass는 계획부지 남동측에 신축중인 Glass건물인 체육관과 조화를 고려하였다.

D-SQUARE는 덕성여자대학교의 전통과 악학의 아버지 Dioskorides의 정신을 재승하여, 신약개발의 꿈(Dream)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



지하 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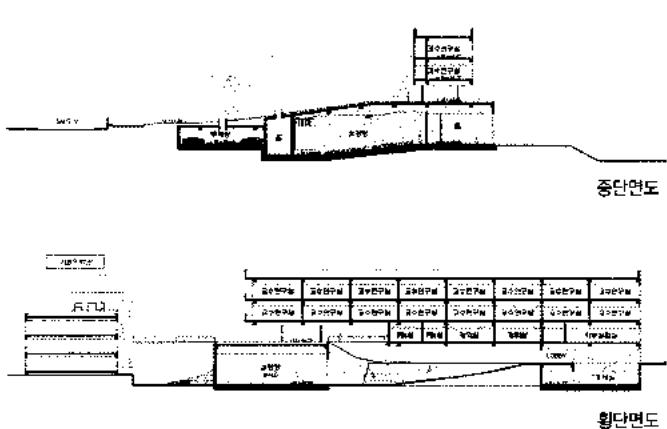
3층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설계경기 | Competition

울산 서부 중학교

Ulsan Seo Bu Middle School

당선작 / 김정영 장학원 · 구자선
(주)희현 건축사사무소
+ 김원효 장학원 (주)원통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사부리 285번지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중학교)
대지면적	13,100m ²
건축면적	3,606.99m ²
연 면 적	11,283.31m ²
건 배율	27.53%
용적률	86.13%
규 모	지하 1층, 지상 5층
C G	(주)디자인그룹 지엔(Design group GN)
발 주 처	울산광역시교육청
설계담당	희현건축_구태형, 양미순, 이철수, 최은실, 이지혜 원통건축_이종우, 홍승태, 최병득

본 프로젝트는 지역주민 및 교육수요자
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육 환경 조성 및
인프라구축을 통한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람, 자연, 소통'이라는 기본개념
을 바탕으로 공부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
은 공간을 조성하여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 문화적 중
심체로서의 역할을 분담하게 될 것이다.

배치와 외부공간

- 열림_지역사회의 구성체로서 화합과
교류의 열린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
- 비움_주변의 자연을 담아내는 중정도
입과 개방된 필로티로 외부 공간의 연
계성 증진
- 덧붙임_학습영역과 개방영역의 기능
적인 분리와 연결을 통한 효율적인 복
합화 시설 계획

동선계획

- 학생, 교사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고려
해 주출입구를 보행전용으로 계획, 보

행동선과 차량동선을 분리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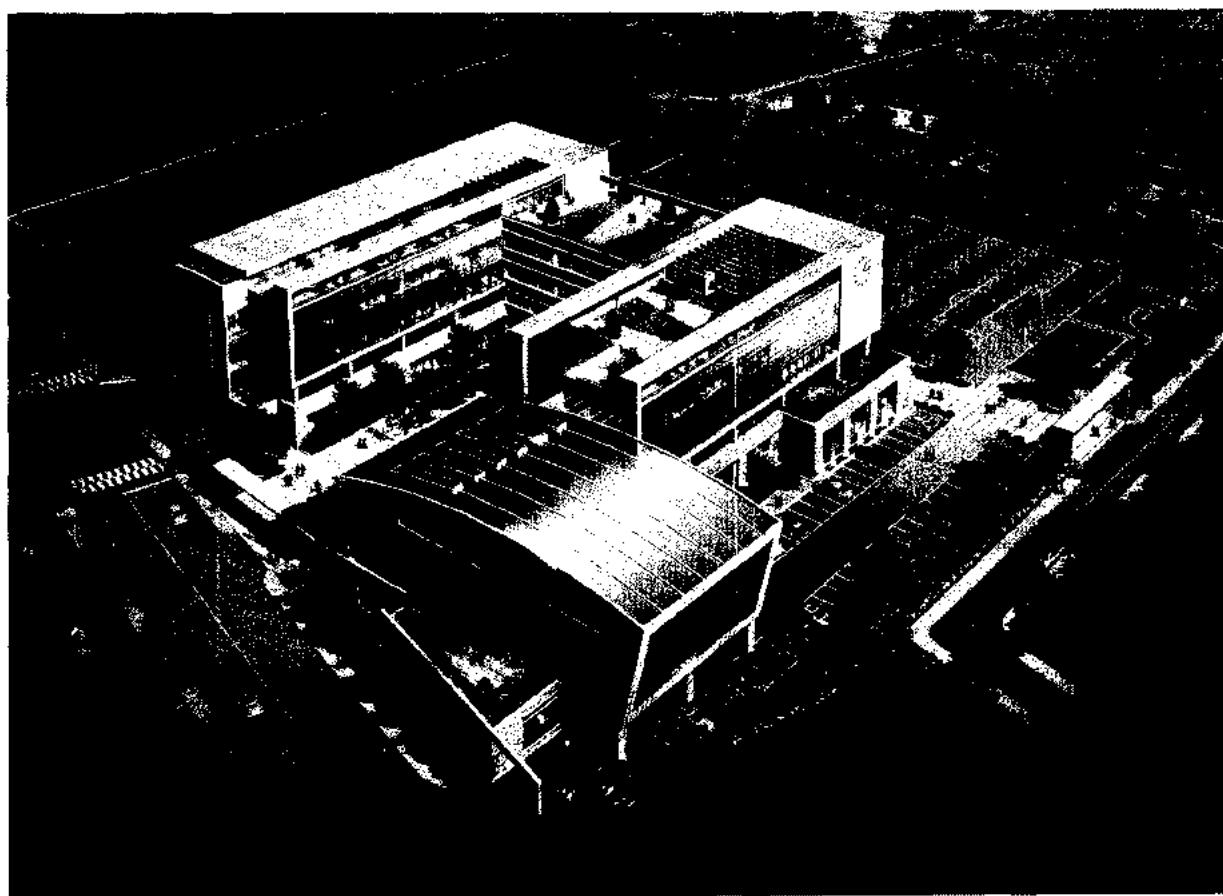
- 경사로를 배치하여 장애인 이용의 용의
성과 자연스러운 동선의 흐름을 계획

조경계획

- 하늘정원에 이벤트 광장을 설치하여 휴
게, 교육, 모임의 다목적공간으로 활용
- 주요 소음원(도로, 운동장)에 차음 식
재를 하여 소음을 상쇄
- 수공간을 두어 정서적 안정감 도모뿐아
니라 건축물 투영을 통한 공간감 부여
- 옥상 조경을 통한 에너지 효율을 증대
시킴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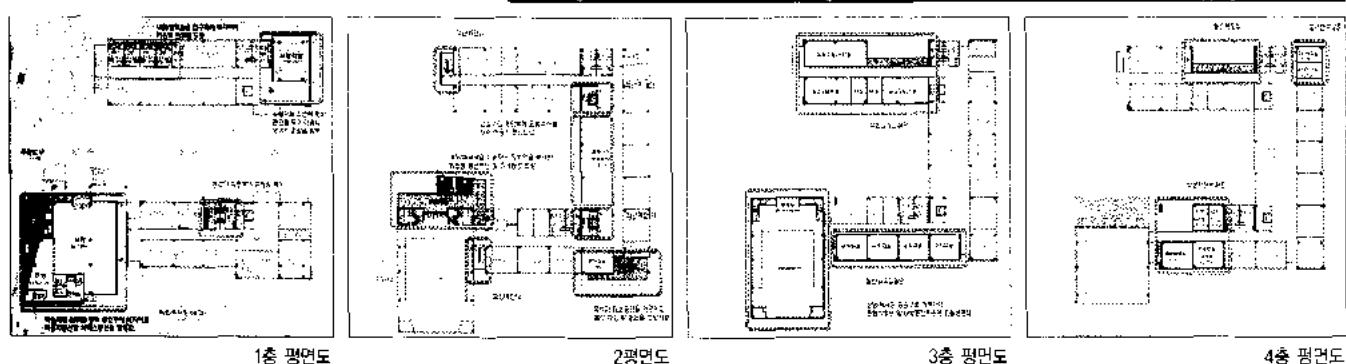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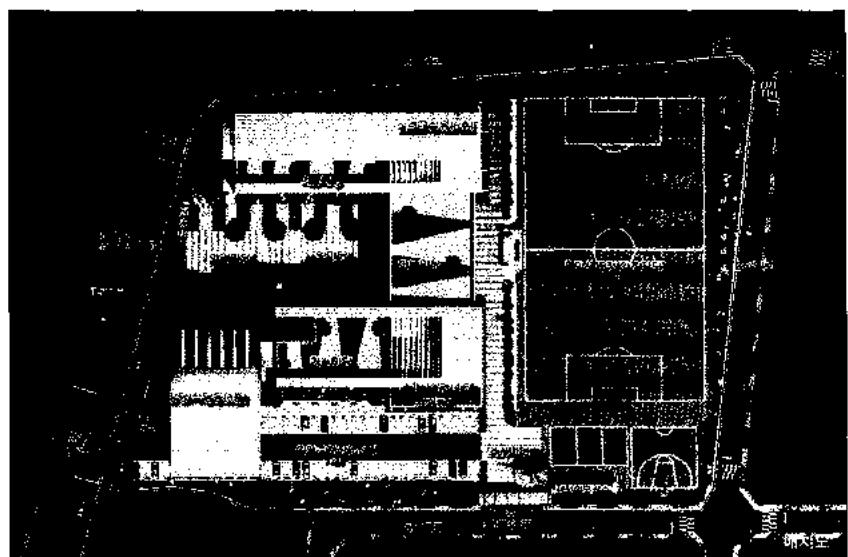
- 홈베이스를 중심적 위치에 배치하여
수업동선의 간략화에 중점
- 교과 성격에 따라 영역을 분리하고 교
실보통화로 균일한 교실환경 도모
- 필로티 및 휴게 데크 등의 완충공간 계
획으로 다양한 체험공간 창출
- 다목적교실을 가변형으로 계획하여



이용성격에 따라 공간구획이 가능하도록 계획

입면계획

- 천정구간에 태양광전지를 설치하여 입면 외장재로서의 활용 뿐 아니라 자연에서 에너지를 얻는 친환경 계획
- 실습교실동과 교과교실동의 매스가 흄베이스를 중심으로 팬임되어 있는 평면특성을 입면화
- 사각형태의 매스를 중첩시켜 점진적인 호기심을 유발하고 매스적 볼륨감을 유도 ■



울산 서부 중학교

Ulsan Seo Bu Middle School

가 작 / 김영석
(건축사사무소 토담)

대지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285번지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절대정화구역, 학교용지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중학교)

대지면적 13,100.00m²

건축면적 2,584.50m²

연 면 적 11,214.92m²

건 폐 율 19.73%

용 칙 률 83.46%

규 모 지하 1층, 지상 4층

설계담당 박재호, 박현숙

대지 계획부지는 4면 중 3면은 8m 계획도로에 1면은 15m 계획도로에 접하고 있고, 계획 부지의 향은 남향을 보며 길게 위치하고, 부지의 남서쪽은 기존 소규모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다.

부지의 고저차는 남쪽 8m 계획도로와 남서쪽 아파트 부분과 접한 부지면이 3m 정도 낮아 레벨차를 이용한 주차계획 등이 요구되는 부분이고, 3m 정도의 옥벽으로 처리하기에는 아파트 주민의 민원발생이 우려된다.

서쪽 15m 도로 건너편은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학생들의 접근이 예상되고, 15m 도로와 부지의 남서쪽에 위치한 소규모 아파트 와는 3m의 고저차가 있어 주차진입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접근로 서쪽의 15m 도로와 동쪽의 8m 도로는 부지를 기점으로 남북으로 긴 축을 이루며 도로가 연결되어 학생들의 통행에 최단거리이며, 쉽게 이동할 수 있어 주접근로로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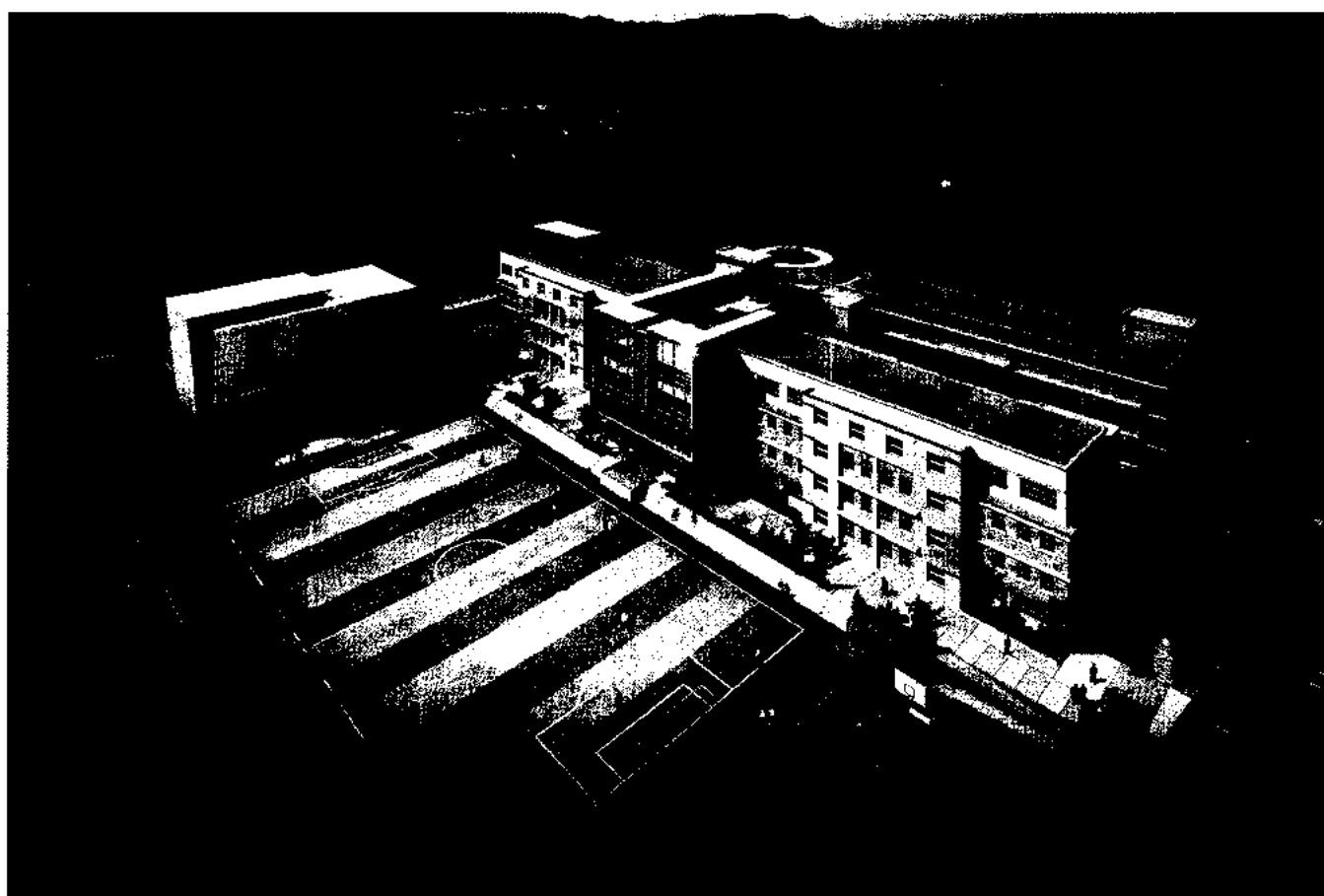
배치 대부분의 모든 교실을 남향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 특별교실과 공용교실만을 예외로 계획하였으며, 체육관은 기존 남서쪽에

위치한 아파트로 인한 달힌 전망을 고려하여 아파트와 인접하여 배치하고, 체육관지하에는 대지 고저차를 이용한 지하주차장을 계획하였고, 체육관 1층의 식당의 서비스차량 진입은 15m 도로에서 해결하였다.

2층 식당에서는 부진입로와 운동장으로 연결하여 점심시간 동선의 혼잡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였으며, 부지의 남북방향의 폭이 협소하여 운동장과 교사동을 배치하면 진입공간이 부족하여 진입공간의 폭을 최대로 넓히기 위해 기둥을 한곳으로 모아 구조를 해석하였고,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동과 동의 출입을 자유롭게 계획하여 동선을 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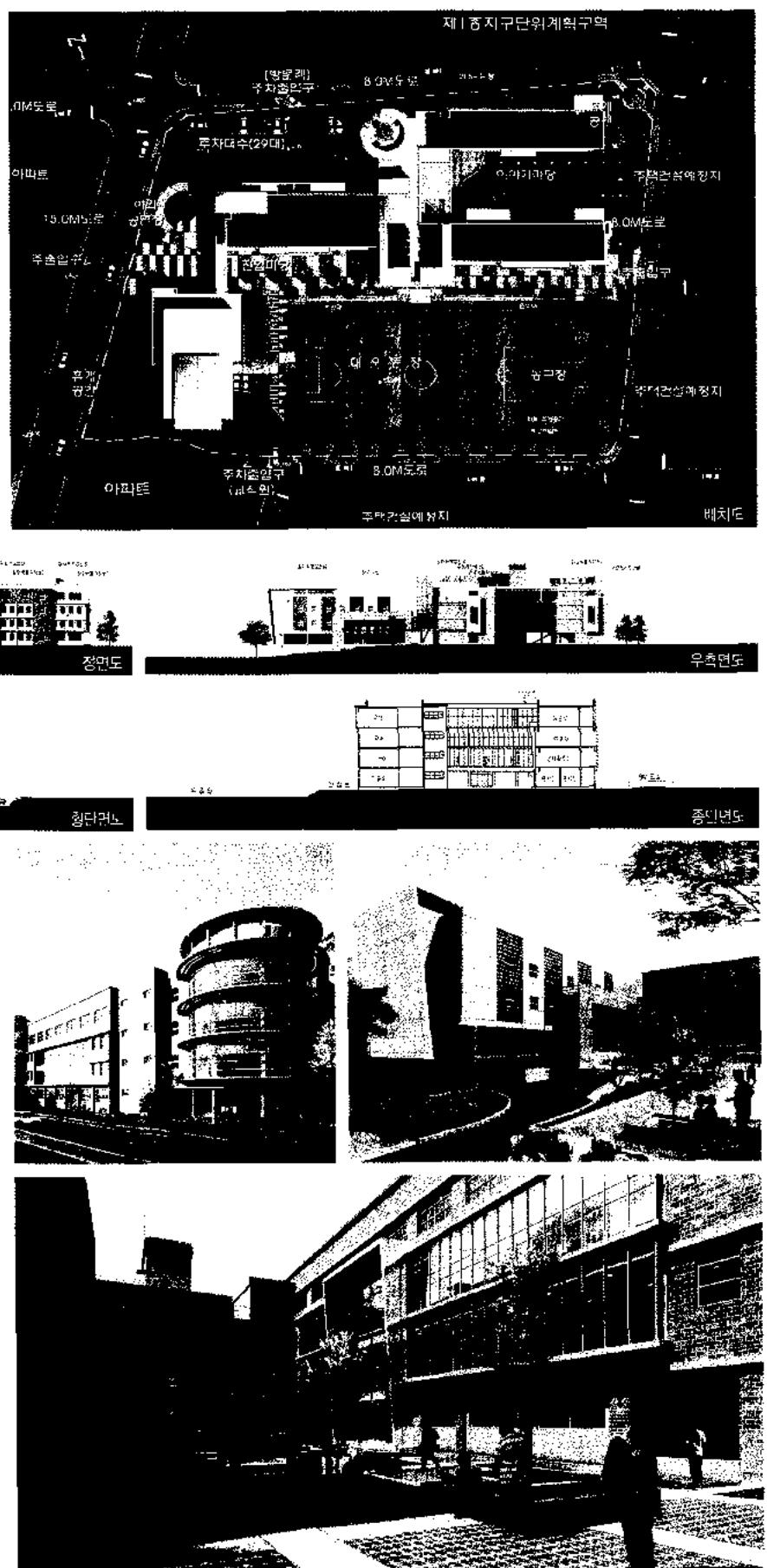
동하고 시 흠클레이스에 개인물품을 정리하고 복도를 따라 이동하는 번거러움을 최소로 하여, 1층 필로티에서 2층 흠클레이스로 출입할 수 있도록 직통계단을 설치하여 동선을 짧게 계획하였다.

주차장은 교직원과 방문객을 구분하여 배치하고 방문객은 본관 행정동과 연계하여 인접 배치하였고, 교직원은 체육관 지하에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평면_평면상의 중복도 부분은 채광이 되지 않아 어둡고 답답할 수 있어 외부와 접할 수 있도록 Open공간을 계획하였고, 따로는 천창을 두어 자연 채광으로 실내를 밝게 하여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도록 계획하였다. 또 교과 교실형 이동수업으로 인한 복도의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각 병면 단 위별 다목적홀을 두어 평면적인 해결과 입면의 Mass에 변화를 주고자 계획하였다.

입면_교사동 전면 2층 중앙부에 도서관을 배치하여 획트인 전경을 볼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입면계획보다는 단순하면서도 건물의 중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학교건물이 되기를 바라며 입면을 계획하였다. ■



비우고 나니 다시 채워지고 있었다

– 2009 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 일본건축 탐방을 다녀와서

Now that I cleared my mind, I feel refilled again

김향희 / 정희원, 건축사사무소 좋은집
by Kim, Hyang-hui, KIRA

본 기행문은 2009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 심사위원인 필자가
수상자들을 인솔하여 해외건축탐방을 다녀온 뒤
건축 기행문을 게재한 것이다.

길에 올랐다.

여행길… 어떤 길에서고 내겐 늘 목적이 함께하는 길이였다.

그러나 이번 여행길은 목적의 부재가 진짜 목적이었으면 하고 가볍게 길을 나서고 싶음이 간절했다.

진행하던 업무의 시달림과 회의 및 강의 등으로 필자는 거의 녹초가 되어 있던 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행의 성격이 2009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의 수상자들과 함께하는 건축물 탐방 형식의 여행이지라 조금은 무게감과 책임감을 동반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조금은 나를 비워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길을 나섰다.

여명이 시작되기 전 사는 곳 보령에서 출발하여 만나기로 약속된 장소에 도착해 보니 협회 관계자를 비롯해 인솔해 주실 여행사 관계자 그리고 수상자들, 또 같이 심사를 했고 이번 여행의 일정도 함께 해주시는 유대근 교수님까지 필자를 제외한 모두가 모인 상태다.

미안함 마음에 시계를 보니 늦게 도착한 것도 아니건만 역시나 달

라도 다른 학생들이구나 싶은 것이 기특하고 대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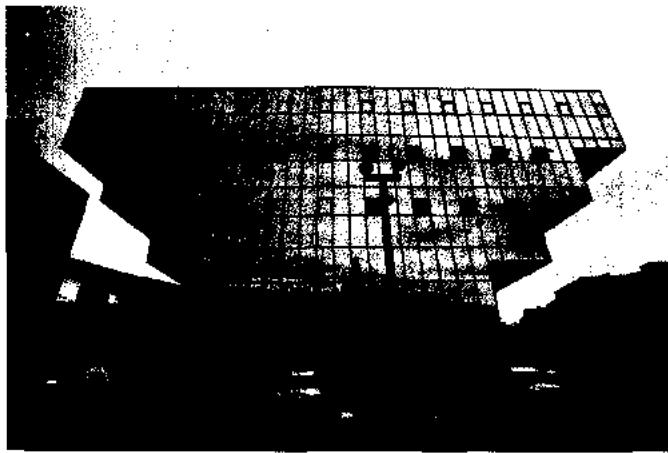
돌려보니 지난 심사과정에서 프레젠테이션과 인터뷰를 통해 조금은 익숙해진 얼굴들이 하나 둘씩 눈에 들어온다.

심사를 하는 내내 많은 응모작들이 도시에 놓인 역사성 및 지역성 그리고 현재의 이야기까지 저마다의 고민과 생각으로 펼쳐 놓았던 이야기들 속에서 무한세계로의 여행을 막껏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되살아 났고 내 언제 피곤했더니 싶은 것이 슬슬 여행에 발동이 걸리며, 근질거리는 몸과 함께 후쿠오카행 비행기에 몸을 실는다.

불안전한 기류가 몸으로 느껴질 정도로 흔들거리던 비행은 공포감을 주는가 싶더니 아니나 다를까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하니 안개를 둘러싼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힘든 여행의 서막이 아니길… 하며 이미 도착해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차에 오르며 뒷좌석으로 가다가는 멈칫! 다시 돌아와 앞쪽의 자리에 잡으며 피식 웃는다.

왠지 아이들만의 소통 공간을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든 것이다.



구마모토 북경찰서 오관



구마모토 시암 신체단지

어찌 생각하면 내 이런 생각이 보이지 않는 선을 긋고 있는 것인지도 도를 일이다.

해서 보이지 않는 선을 조심스레 지워버리는 관계의 모색을 이번 여행에서 해 봄이 어쩔까 하며 낮게 웃어본다.

답사가 시작되기 전 이미 논의는 도어 있었으나 급박하게 잡아진 일정으로 협회 관계자와 여행사측에서는 적잖은 노고가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정의 짜임은 매우 좋았다.

첫 탐방지인 NEXUS-WORLD KASHI에 노착하니 조금 전 이슬비는 제법 끊어졌고, 바람 역시 심해져 들고 있던 우산이 무색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정해진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 학생들의 종종거림으로 이어졌으며, 마치 여러 개의 악기가 연주되는 듯 바닥소리 빗소리와 더불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여러 명의 건축사들이 모여 대지의 나눔과 공간의 암힘을 조심스레 풀어나간 흔적이며 재미난 디테일,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듯 어울림을 주는 공간 사이사이를 헤집고 나난다.

그래서였을까?

스산한 날씨의 우울 mode도 이런 우리의 열정을 저지하지는 못함인지 첫날을 빼고는 답사 내내 제법 훌륭한 하늘빛을 만날 수 있었다.

일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같아 참여했던 학생의 기행문에서 충분히 적혀질 것이니 필자는 참여자들의 동선을 따라 뒤에서 바라보듯 서술하려 한다.

현지 여전상 일부 일정이 바뀌어 진행되기도 했고, 이미 가 보았던 곳도 또한 있었으나 전혀 색다른 경험처럼 다가왔다. 바뀐 도시의 싱그러움과 환경의 변화, 그리고 움직임 주는 사람들의 다른도 이유였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거기에 참여한 학생들의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시선과 질문 등으로도 다른 시선을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깝게 보던 시선의 위치를 조금만 뒤로 물렸을 뿐인데 보이는 건 확연한 차이를 두고 있었으니 말이다.

여정의 시작에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일본도 외국인데 전혀 외국

에 온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 학생은 일본의 건축적 특장을 찾아 무엇을 우리가 취해야 하는가를 이야기 한다. 또한 필자로 하여금 미처 예상치 못한 질문으로 당혹감을 주는 학생도 있었으며, 무엇이든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해 여기저기를 정신없이 다니며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학생도 여럿 보인다. 그 뿐이 아니다. 일정 이외의 장소도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제법 다양한 체험을 경험해 보기도 한다. 영화 '장군의 아들'에서 나온 전차도 타보고, 생전 처음 먹어본 음식 문화의 경험까지도….

일정이 하나씩 진행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지던 관계는 서로의 속내도 이야기하고 대본 짖꽃은 장난기까지 발동시킨다. 서두에서 소통의 영역하며 운운했던 선이 회미해지는 순간이다. 억지스럽게 지우려 하지 않았어도 어느새 흐려져 버린 선이라는 명제를 명명했던 필자의 정의가 민망하다.

마지막 탐방지는 안도다다오의 혼립 장식 고분관이다. 첫날 그 어둡고 칙칙했던 하늘빛은 오간데 없고 눈이 시리도록 맑은 하늘빛이 우리를 반긴다. 다양한 시선을 유도하듯 고분을 간싸고 놓여진 경사진 동선을 따라 올라가 보니 저 멀리 산과 신령성이 이를 죄아 암은 예쁜 구름까지 한 눈에 들어오는 것이다. 마치 내가 지금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앞이 아니며 너 별리 보아야 함을 가르쳐 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서서 길을 간다.
억지스럽게 비우지 않았음에도 이미 비워잔 내가
다시 무언가를 채우려 떠나왔던 곳으로…

어짜면 필자의 꿈이 아니었을 이번 답사는 이각표(주. 엔드레이 종합건축사사무소) 위원장님을 비롯한 신사위원님들의 양보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기에 본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심사의 주관과 답사를 추진해 주신 협회의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우리의 건축 미래가 너무도 밝고 기대가 됨을 직접 느끼게 해준 글번 2009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의 수상자들과 더불어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韶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날개를 펴다

Spread its wings for a new leap



유성문

by You, Seong-moon

-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 재학
- 2006 청주시 건축사진 공모전 입선
- 제32회 충청북도 미술대전 건축부문 입선
- 제2회 한국농촌대학 학생
- 제6회 드로모모코리아 디자인 공모전 입선
- 2009 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부문 대상

본 기행문은 2009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간증물부문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건축탐방에 참가한 수상자를 대표하여
필자가 건축 기행기를 개새한 것이다.

2009년 5월~8월동안 더위와 써름하며 정답이 없는 설계로 고민을 하며 체력적으로 지치게 하였던 2009년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우리를 일본 후쿠오카로 2박 3일의 일정으로 초대하였다. 친근하기만 하던 대한민국 땅을 떠나 가깝지만 먼 이웃나라 일본답사는 긴장과 함께 설레임이라는 단어를 내게 안겨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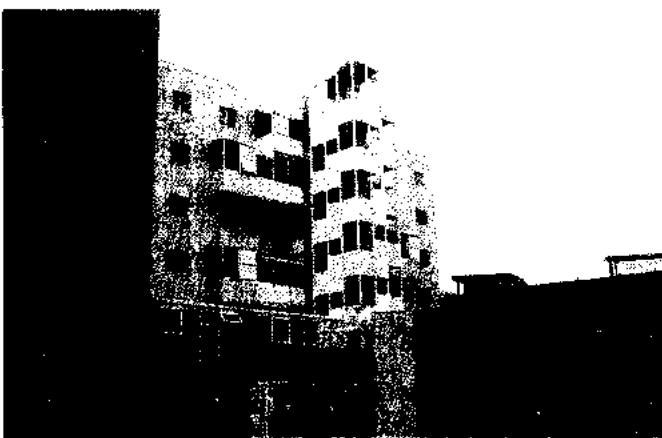
11월 11일 인천공항에 아침7시 30분까지 모여야 했기에 우리팀은 청주에서 4시 30분 공항버스에 올랐다. 전날 긴장한 탓인지 잠이 오질 않아 눈에는 피곤한 기색이 보였고 우리는 버스에서 잠들었다. 공항에 도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모이기로 한 장소에 학생들이 하나 둘 모이기는 했지만 처음에 어떻게 무슨 말을 걸어야 할지 몰라 우리팀만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정도였다. 프리젠테이션때 날까로운 눈빛으

로 우리를 보시던 유대근, 김향희 심사위원님이 도착하였고 대한건축사협회의 관계자와 함께 우리 18명은 후쿠오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상공에서 바라본 후쿠오카의 주거단지는 바둑알을 줄에 맞추어 늘어놓은 듯 정돈이 잘 되어있었으며 소박한 느낌을 주었다.

후쿠오카에 도착한 우리는 버스로 이동하였으며, 이동하는 동안 좌측동행하는 차량들의 어색한 모습을 본 후에야 일본에 왔음을 느낄 수 있었다. 첫 날부터 바람이 불고 날씨가 흐려 답사를 제대로 할 수 있으려나 하는 우려와 걱정이 들었다. 그래도 일정은 취소되지 않고 진행 되었으며 일본에서의 첫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였다. 기내식을 먹긴 하였지만 여러 곳을 직접 걸어다니며 공간을 체험하는 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배를 든든히 채워야만 했다. 같은 문화권이어서 그



(그림 1) 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일본 건축학회상을 수상한 범퍼하스의 9, 10동



(그림 2) 캘리포니아의 맛은 아미지를 연상케하는 패턴으로 외장을 장식, 마크매의 8동

런지 몰라도 일본의 우동은 어색하지 않고 입맛에 맞았으며, 양이 푸짐하여 모두들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다.

일본에서의 첫 식사를 마친 우리는 보슬보슬 비가 내리는 것을 무시한 채 꿈과 열정이 만들어낸 도시공간인 'NEXUS WORLD'를 납사하였다. 이 곳은 아파타 이소자키를 중심으로 오스카 투스케, 크리스티앙 포집박, 마크맥, 램풀하스, 스티븐 홀, 오사부 이시야마라는 6인의 세계적인 건축사들이 설계에 참여하여 이슈가 된 단지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시간 20분.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보고 싶은 마음에 모두들 발이 빨라졌으며 우리는 사진으로 이곳이 주는 감정과 느낌을 카메라에 담았다. 각기 다른 표현과 설계스타일이 각동의 거성을 살리면서 하나의 단지를 어색하지 않는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만들어 합주곡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지를 둘러보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고 주거단지이기에 내부를 볼 수 없는 점이 아쉬웠지만 아수움을 뒤로 한 채 우리는 후쿠오카 타워를 향하여 이동하였다. 234m의 높이로 일본 해변가에 있는 타워 중 가장 높다고 가이드님이 설명해주셨다. 전망대에 오르고 싶었지만 시간과 돈이 따라주지 못하여 위로 올려보는 것으로 만족해야했다.

바로 앞에는 해변공원이 위치하였으며, 바람이 마침 강하게 불아쳤기에 해변을 거닐 수는 없었지만 이곳에는 일본 최초로 인공지반을 이용한 건물이 있었다. 예식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물은 바람으로 인한 파도로 위태해 보였다. 자연을 정복한 인간에 대한 자연의 복수같이 느껴졌다. <그림 1~2>

다음 목적지는 후쿠오카 돔구장이다. 올림픽에서 우승한 우리나라로 가지지 못한 봄 구장을 직접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마음 같아서는 내부로 들어가 야구 경기도 관람하고 돔의 내부도 촬영하고 싶었지만 경기가 없어 외관을 감상하는 것에 내몰려야했다. 초대형의 돔을 개폐하는데에는 한화로 약 1,000만원 정도가 소비된다고 설명해 주셨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야구장 주변 외부공간에는 여러 조형물과 공원의 조성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즐기며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준 야구장이 그저 경기만 보는 곳이 아니라 하나의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 <그림 3~8>

후쿠오카 봄을 둘러본 후 우리는 시내에 있는 아크로스 후쿠오카를 방문하였다. 친환경건축 수업시간에 보고 들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건축물을 구경하며 사진기에 모습을 담았다. 시내 한복판에 산을 옮겨 놓은 듯 한 건축물은 주변 녹지와 어울려 하나의 자연경관을 연출하고 있었다. 스텔가든을 오르고 싶었으나 비가 오는 관계로 출입이 금지되어 매우 아쉬었다. 가이드가 건물의 설비관계자를 초빙하여 건물이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며 그분은 우리를 심포니 홀로 초대해 주셨다. 공연이외에는 거방을 하지 않는다는 심포니 홀은 거대하였으며 내부에는 목재마감의 냄새가 가득하였다. 아무도 없는 거대한 홀은 우리들로 하여금 차분하며 숙연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곳에서 단체사진을 찍어 우리가 심포니 홀에 웠음을 인증하였다.



<그림 3> 후쿠오카의 외관. 일본 최초의 개폐식 돔구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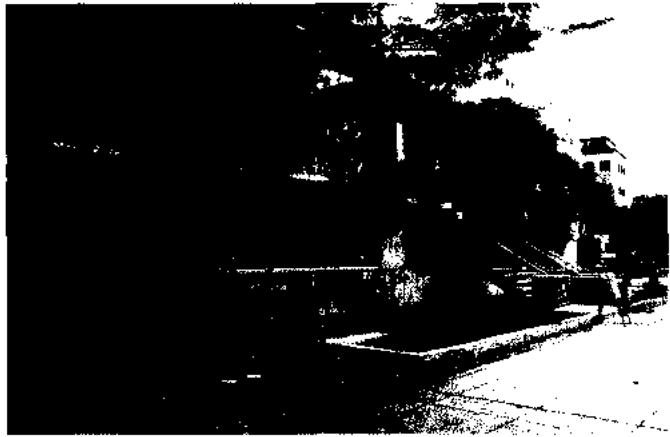
<그림 4> 외부에는 유명 인사들의 손을 본떠 만든 조총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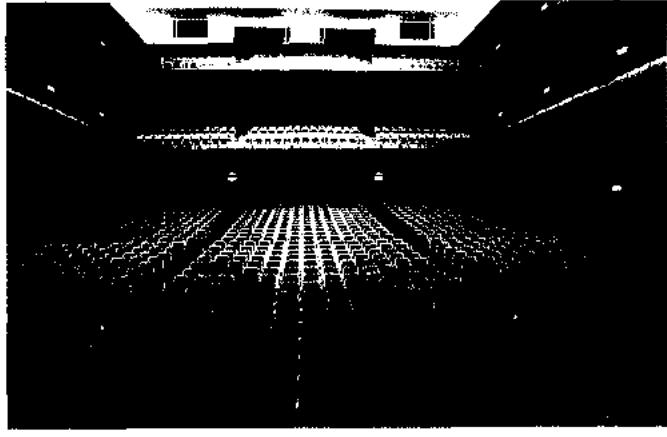
<그림 5> 아크로스 후쿠오카의 스텔 정원의 모습과 중산의 아트리움



<그림 6> 내부에서 아트리움 부분을 올려다 보았다



(그림 7) 스텝정원의 한켠에는 수공간을 배치하였다. 정원에서 떨어지는 물이 인상적이었다



(그림 8) 심포니홀의 내부전경. 1,867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

이렇게 오후 일정을 마친 후 지친 몸을 보양해주기 위해 저녁식사는 고기뷔페로 하였다. 막고 싶은 것을 마음껏 담아 구워먹고 싶었으나 고기가 잘 익지 않아 그 사이에 초밥과 과일로 배를 채웠다. 그렇게 고기는 많이 못 먹었으나 여러 가지 해산물요리를 맛 볼 수 있었다.

배도 부르고 몸도 피곤하고 이제 호텔에서 쉬고 싶었지만 다음 일정이 또 있었다. 일단 우리는 호텔에 짐을 풀고 걸어서 캐널시티 하카타로 향하였다.

캐널시티 하카타는 약 180m의 인공운하를 두어 주변으로 호텔, 레스토랑, 영화관, 상점으로 이루어진 멀티플렉스이다. 인공운하를 따라 외부공간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가 행하여 지며 우리나라

의 동대문의 패션타운과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우리가 갔을 때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아무런 이벤트도 없어서 약간은 실망하였다. 실망을 뒤로하고 우리는 호텔로 향하였다. 몸은 피곤하였지만 우리는 썩고 나같이 모여 이야기 할 시간을 가졌고 내일의 답사를 꿈꾸며 잠자리에 들었다. 이렇게 일본에서의 첫날은 바쁘게 지나갔다.〈그림 9~10〉

어제의 피로가 끌리지는 않았지만 일정을 위해 아침부터 서둘러야 했으며 호텔에서의 조식을 마친 우리는 모든 짐을 꾸려 신속히 버스에 올랐다. 이를날 첫 방문지는 야초시로 시립박물관이었다. 박물관을 대충 둘러본 우리팀은 박물관근처의 주택단지를 둘러보았다. 깨끗한 인도와 차량들의 질서를 보고 일본사람들의 의식을 알 수 있었다. 주택단지는 조용하였으며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안마당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정원이 발달했다는 일본을 단적으로나마 주택단지와 안마당에서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구마모토 경찰서를 탐방하였다. 경찰서하면 어떤 느낌이 가장 먼저 떠오를까? 딱딱한 콘크리트와 철창으로 이루어진 폐쇄적인 공간이 떠올랐다. 버스에서 내려 역피라미드 형태를 띠고 있는 미술관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찰서가 우리를 반겼다. 이곳은 전면에 유리를 두고 형태적인 변화로 필자가 생각했던 경찰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낮에는 정면부의 유리가 도시의 모습을 반사시켜주지만 밤에는 경찰서 내부가 훤이 보이는 투명한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보안상 경찰서 내부를 둘러 볼 수는 없었지만 1층 로비에서 관계자와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다. 1989년에 설립되어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수공사를 한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하니 여기서 일본건축의 섬세함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들어선 후에 1년도 채 안되어 보수공사니 뭐니 하여 다시 공사를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 점에서 조금은 부끄러웠다.〈그림 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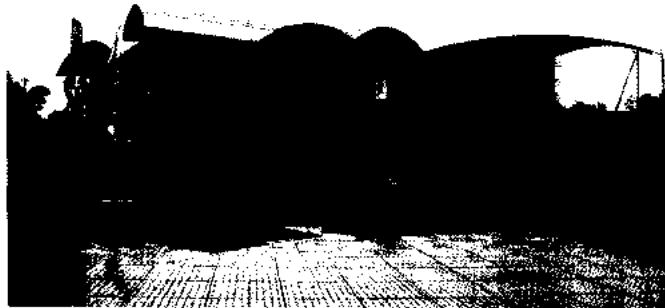
그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구마모토 실내체육관이다. 돔형식으로 이루어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에 구애 받지 않고 사람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체육관 안에 들어서니 테니스를 치는 사람, 산보를 즐기는 사람, 한켠에 수영장에서 운동을 하는 여러 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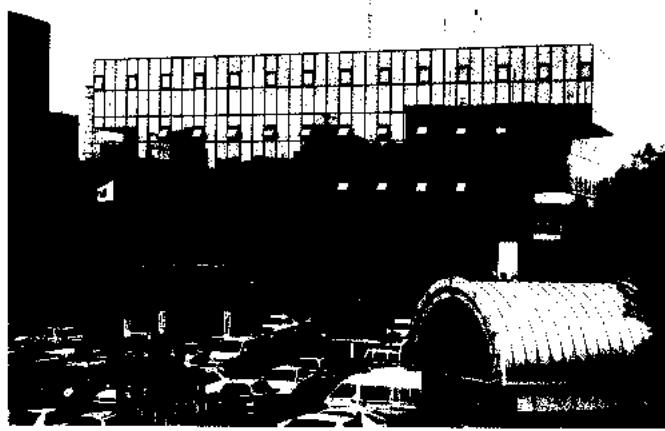
(그림 9) 걸어서 바라본 캐널시티. 광고 조명으로 밤에도 눈에 쉽게 뭇다.



(그림 10) 운하를 중심으로 좌측의 호텔과 우측의 상업 시설을 극선으로 이용한 배치



(그림 1) 이즈시로 시립 미술관_워프의 구성으로 접근성을 높인 배치



(그림 12) 구마모토 경상서_외부마감에 바주어진 반대편의 모습이 인상적

행위가 일어나고 있었다. 체육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시킴으로써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참여를 우도하는 프로그램이 인상 깊었다. 내부에서 사진 촬영을 하려고 하자 관계자가 사진은 안된다고 저지를 했지만 우리는 관계자 눈을 피해 돌아다니며 몰래 사진을 찍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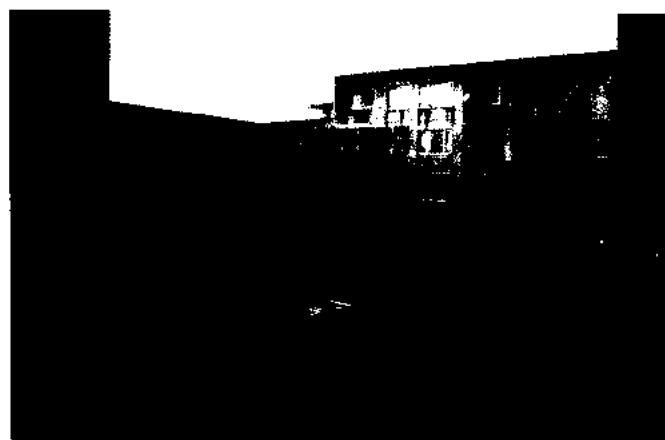
이제 오늘의 마지막 답사장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하루종일 걸어 다니면서 답사를 하였기에 피곤하기도 하였지만 마지막으로는 단어가 힘이 되었다. 구마모토시경 신치단지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단지로써 폐 넓은 공간에 자리하고 있었다. 각각의 단지를 마다 다른 건축사가 설계를 하여 각기 특색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커뮤니티 공간의 활용성이 눈에 띠었다. 건물을 찍으면서 돌아다니는데 꼬마아

이가 ‘꼰치와’하고 인사를 했다. 주위를 둘러 보았지만 그곳에는 같이 이동하였던 학교동기들뿐이 없었다. 이곳의 아이들은 이방인을 반겨주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꼬마아이들에게 인사를 수차례 받았다. 아이들이 인사하면 먼저 나가 와 우리도 서툰 일본어로 같이 인사하며 거리감이 사라짐을 느꼈다. 아이들을 따라가니 난지 커뮤니티 공간에서 야구를 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아이들과 같이 놀며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이렇게 우리를 반갑게 반겨준 아이들이 너무 고마웠지만 주어진 시간이 다되어 우리는 아이들과 작별인사를 하고 버스로 향하였다. <그림 13~15>

호텔도 향하는 길은 하루 파로를 풀어주는 자양강장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호텔에서 씻고 풀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해지면서 한편으로는 마지막날이라는 아쉬움이 있었다. 호텔에서 석식을 하고 구마모토성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하루하루 일정이 빽빽하다보니 방에서 쉴 사람은 쉬고 답사 갈 사람은 답사가는 자유로운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씻고 시간에 맞추어 1층 로비에 오니 역시나 다들 기다와 열정을 가지고 도여 있었다. 구마모토성을 가기 위해 지상 전동차를 이용하였다. 조선시대 경성을 배경으로 한 티비 프로그램에서나 나올 법한 전동차를 타니 다들 마냥 신기하는 눈치였다. 전동차에서 다 같이 단체사진을 찍으며 옆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성으로 향하였다. 야간이어서 성문은 잠겨있었지만 야간에 비추어진 조명은 구마모토성은 더욱 웅장하고 멀숙한 자태로 우리에게 보여졌다. 외부로부터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높은 대지에 위치하였으며 성을 둘러싼 성벽의 기단부분은 입이 벌어질 정도로 높았다. 성벽의 기단을 축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원이 몇 년 동안 일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려왔다.

시내에서 심사위원님들은 우리들을 초대해주어 이야기 할 시간을 만들어 주셨다. 여기서 간단하게 음식을 먹으며 우리는 마지막날을 이수하며 같이 여행을 간 다른 학교 학생들과 못 다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티복 짧은 시간이었지만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건축이라는 것이 우리를 더욱 엮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일본에서 아주운 마지막 밤이 흘러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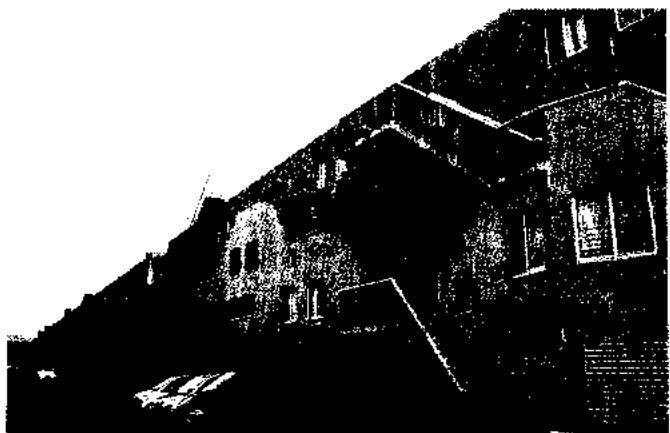
마지막날은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현립 장식 고분관을 방문하였다. 넓은 부지에 서있는 안도다다오의 노출콘크리트 건물이 저 멀리



(그림 13) 기둥사이로 보이는 커뮤니티 공간



(그림 14)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준 신치단지의 꼬마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그림 15〉 외부공간에서 현관까지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계단. 직접 올라가보니 조금은 무서웠다



〈그림 16〉 구마모토성을 배경으로 단체사진 한 것



〈그림 17〉 강식 고분관에서 찍은 마지막 단체사진



〈그림 18〉 강식 고분관의 선큰 전시공간

에서부터 눈에 띄었다. 건물은 주변 출토지역을 한눈에 관람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었으며, 램프를 통해 자연을 느낄 수 있었으며 섬세한 내부공간의 꼼꼼함을 볼 수 있었다. 〈그림 17~18〉

이렇게 2박 3일의 모든 일정이 끝나고 우리는 후쿠오카 공항으로 향하였다. 공항에 도착함과 동시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모든 일정을 순조롭게 마친 후에 내리는 비가 고마웠다. 2박 3일 동안 최대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였기에 서로에 대하여 알아가는 시간이 부족했지만 심사위원님과 대한건축사협회의 담당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어 조금이나마 가까이 다가설 수 있었고, 우리는 카페를 만들어 한국에 돌아와서 짧은 날의 추억을

공유하며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기로 하였다. 일반 관광이었더라면 4일 정도 소요되는 시간을 2박 3일로 축소하여 강행군으로 이루어진 답사기간 동안 건강하고 아무 사고 없이 답사를 마치게 되어 다행이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각자 지방으로 출어져야 하기에 모두들 제대로 된 인사는 못 하고 헤어져 아쉽지만 건축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었던 점은 분명하였다. 이번 건축탐방을 계획해주신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물에 대해 가이드가 되어주신 유대근, 김향희 심사위원님, 그리고 미래의 대한민국의 건축계를 이끌어나갈 건축 동기를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답사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우리들의 인연은 이제부터가 시작임을 2009한국건축문화대상은 말해주고 있었다. ■

사림(士林)의 도시(上)

The town of chu-tz scholars (a first part)

이 글은 필자가 그동안 틈틈이 짬을 내어 16세기 선비들이 계회를 했던 장소를 중심으로 답사하며 생각했던 내용들을 산문의 형식을 빌려 정리한 것이다. 말하자면 서원 그리고 정원과 정자를 대상으로 자연 속에 모여드는 선비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쓴 글이다. 그래서 이런 연재의 서론격인 전반부는 한국철학사와 건축사에 깊은 영향을 남긴 퇴계 이황이 한양을 떠나 소수서원을 거쳐 안동의 도산서당으로 가는 농안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다. 한마디로 퇴계 이황의 눈을 통해 조선시대 선비들이 왜 서원과 정자와 정원을 만들었는가를 풀어보자고 쓴 글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사림의 도시라는 제목의 글을 쓰려고 했던 것은 전혀 아니다. 20여 년 전 필자는 건축학회에 소쇄원에 대하여 하서 김인후의 소쇄원 48詠 시조 속에 내재한 시적 이미지와 상관하여 논문을 발표한 이래 평소 조선시대 사림과 경관은 매우 특이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선비들이 지난 경관이미지에 대한 관심을 정리할 성산으로 소쇄원과 보길도 그리고 도산서당에 대한 답사와 조사를 해왔다. 그런데 해를 기듭할수록 이들에 대한 이해가 김어지자 16세기 조선시대는 별난 시대였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우선 당시 인물들의 인간관계를 생각해보면 소쇄원을 조영한 사람은 양산보와 하서 김인후는 그와는 사돈지간이었다. 그리고 김인후와 같이 성균관에 머물렀던 퇴계 이황 역시 말년에 도산서당을 조성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양산보와 김인후 그리고 퇴계 이황 이들은 서로 같은 시대를 살다간 면식을 지난 사람들이었던 셈이다. 동시에 모두 경관이 빼어난 장소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천력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인연의 실타래가 그렇게까지 모진 것인지 몰라도 양소보의 소쇄원이 있는 성산과 고산 윤선도의 보길도 사이에 기박한 사연이 숨어있었다. 바로 양산보와 김인후 그리고 호남 유린의 중심지 성산에서 자란 송강 정철이 서인의

정여립 모반사건을 취조할 때 그의 혹독한 문초를 못 이기고 숨진 사람이 바로 고산 윤선도의 증조부였던 까닭이다. 말하자면 관동별곡을 쓴 가사문학의 대부 정철과 시선의 경지에 있던 시조의 고수 고산 윤선도 사이에 기막힌 악연이 있었던 셈이다. 이런 점에서 1500년에서 1650년 대 사이 한국사상사과 문학사에 가장 빛나는 영남과 호남의 인물들이 모두 하나같이 자연을 배경으로 인연의 고리에 끌려있었고 이들은 한국 건축의 대표적인 정원과 서원을 남긴 사람들�이기도 했다. 그런 까닭에 이들이 남긴 자취는 개별적인 것으로 각론적 입장에서 다를 것이 아니라 뚜렷한 사조를 지닌 시대의 흐름으로 정리할 문제였다. 그뿐만 아니다. 이들이 남긴 삶의 궤적 속에 영남의 선비들은 서원으로 호남의 선비들은 정자로…인물들이 끊임없이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목격한 필자는 바로 아곳이 사림의 도시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16세기 조선에는 이를 발화시킨 자연과 생명과 삶에 대한 사고(思考)가 있었던 셈이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퇴계 이황의 이야기를 뛰어어 구체적으로 서원과 정원이야기로, 소수서원과 도산서원 그리고 소쇄원과 관동별곡 그리고 보길도를 중심으로 상, 하 10여회씩 총 20회 분량으로 전개된다.

이 글을 통한 필자의 바램은 독자와 함께 도시라는 거대한 기계적 도구들의 틀 속에 마을과 춘락을 포함시킨 현대도시와 대별되는 새로운 도시에 대한 담론을 나누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가 이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녹색건축, 녹색도시를 물어갈 인문학적 실마리와 출발선임을 알리고 싶다. 만약 이를 계기로 생명이 가득한 지구를 만들어 가야하는 미래의 짐을 지고 우리가 물질문명으로 가득한 도시문화의 터널 속을 제대로 걸어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는가. 이런 기대를 하면 할수록 여행기 비슷한 답사록과 좀 다른 형식으로 글을 써야 한다는 소리없는 부담이 그런자처럼 필자를 떠나지 않을 것 같다.

필자 : 한재수, 현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교수

by Han, Jae-su

한재수 교수는 한양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취득하고 건축사사무소 신아건축에 근무한바 있으며 한옥한집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지난 10년 간 농림부 과제로 한옥 산업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와 관련된 2가지 특허출원과 함께 전통목조 기법의 현대화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관련학회에 발표한 바 있다. 저서로 건축학자가 풀어낸 「황도개경의 비밀(2002, 도서출판 옛오늘)」이 있으며 조선시대 읍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조선시대 도시사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현재 한리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 대한건축학회 이사, 논문집 편집위원, 역사위원회 위원장
- 한국건축학회 논문집 편집위원
-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
- 강원도 문화재 위원회 위원,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위원

목 차

1. 여로(故路), 영원한 생명의 무지 찾아보기 Journey, searching for the Eternal life giving town
2. 퍼즐_Puzzle
3. 통화대로의 절경 남한강 길 The beautiful scenery of south han river side, in the way of Bonwha road
4. 실경산수, 구암봉과 유흥봉 The picture is drawn from mountain top of guadem, uksun
5. 토개 이황이 험악으로 머물렀던 도시 영단군 The town Danyang, a place for whang-ice was mayer
6. 선녀들이 계학(契軒)을 산신수석로(參應水石路) A meeting place for Chu-tz scholars, the Samshinsuk road
7. Walking space, 운계 구곡로(雲溪九谷路) Walking space, the Ungeoguguk road
8. 통화대로의 그적, 죽령▲ Ridge of the way of Bonwha road, guklyuring
9. 죽령 고개를 넘나든 사림(士林) 그들은 누구인가 Who is him, the Chu-tz scholar, going over the Ridge of guklyuring
10. 풍기촌과 사림_The Chu-tz scholar in Iyungki
11. 소수서원 가는 길_A Way to the Soosu seowon



2. 퍼즐

- Puzzle -

게임의 법칙

과연 이곳 풍광들이 퇴계 이황으로 하여금 머물고 싶은 곳으로 비쳤을까?

상진 대교 앞에서 있는 필자에게 묻는다면 썩 달가운 질문이 아닌, 자신없는 물음이지만 대답에 앞서 필요해진 일은 퇴계 이황이 살던 시대의 단양의 모습을 알아내고 그가 이곳에 머물고 싶었을 만한 장소성, 바로 경관적 백락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하려면 3가지 논리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현장의 풍광에서 변형된 부분들을 지워버리고 옛 모습으로 찾아갈 수 있는 코드를 만들기, 문헌이나 자료, 전해오는 이야기를 통해 조각난 과거의 편린을 찾아내어 퍼즐 조각 만들기, 이들을 서로 끼워 맞춰 하나의 완성된 도상 만들기 이상 세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된다.

간단한 게임의 법칙으로 구성된 퍼즐인 셈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퇴계 이황의 종적을 이 방법으로 찾아낼 수만 있다면 이번 답사는 그동안 하찮은 게임으로 생각해왔던 퍼즐 게임 덕을 톡톡히 보는 셈이다. 원래 이 게임은 18세기 영국에서 지리 과목의 학습자료(지도를 조각내어 맞추기)로 처음 개발된 것이었다. 그런데 조각그림 자료들이 계속 능장하면서 역사·알파벳·식물학·농물학과 같은 과목에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 1860~70년대 미국과 영국에서 대중적인 그림을 직소 퍼즐에 이용한 이래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¹⁾.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면 인류는 오랜 동안 지워진 과거를 연속적인 수수께끼로 가정하고 풀어내어 정답을 찾는 놀이를 즐겨왔던 셈이다.

기억이라는 수많은 과거의 편린을 주서모아 답사를 통해 지워진 역사를 짜 맞추는 일은 대중과 함께 미지의 시간대에 대한 모험과 미스터리가 풍부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이 게임은 컴퓨터 게임에

선도저히 느낄 수 없는 지적 쾌감을 주는 구석이 많았다. 누구나 다 흔히 신문이나 잡지를 읽으며 해본 심심풀이 놀이 퍼즐 속에 역사의식이 숨어 있었던 셈이다.

이제 여러 가지 시설물로 불규칙하게 얼룩져 있는 경관조각들을 발라낸 다음 원상태로 자연경관을 복원하여 역사적 사실과 아귀 맞춘 풍광의 모습을 그림이나 지도 속에 그려 넣으면 된다. 그런데 이 일은 예외 없이 고지도에서부터 비롯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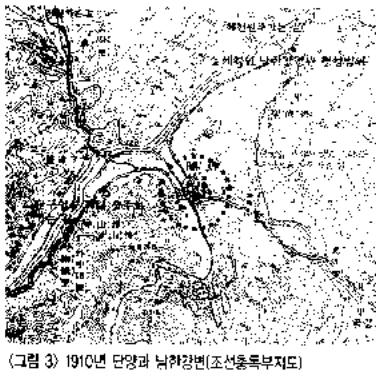
과거로 들어가는 문, 고지도

퍼즐 게임은 조선시대 옛 지도를 찾는 일부터 시작되었다. 지도는 퇴계 이황이 살았던 시대 작성된 것이면 더 좋았다. 다행스럽게도 규장각과 장서각에는 조선시대 고지도가 많이 소장되어 있어 자료를 구하는 일은 별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회화사와 일반 역사 하는 사람들 이 서지학적으로 해온 까닭에 건축과 도시적인 맥락이 밝혀진 것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노력으로 지도 작성년대가 고증 뒤 까닭에 비교적 가까운 시대의 지도를 찾아낼 수 있었다. 바로 영조 때인 1750년 경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국지도**²⁾와 해동지도 모



1) 여기서 말하는 '직조 퍼즐'은 퍼즐 조각이 나루나 판자 위에 붙여놓은 복잡한 내용의 그림을 섬틀(jigsaw)으로 수십 개의 조각으로 잘라낸 것을 말하는데 잘라낸 조각의 수와 모양에 따라 퍼즐의 난이도가 나타나는 게임이다. 이렇게 시작된 퍼즐 게임은 1900년대 초 대단한 인기 오락도구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1930년대 대공황 때에는 값싸고 누구나 재사용 할 수 있는 오락도구로 발전하여 대중화되면서 오늘에 이른 장수형 게임인 셈이다.

2) 도별도는 각 도를 1장의 지면에 그렸으나 함경도는 남도와 북도가 각각 1장으로 되어 있고, 반대로 경기도와 충청도는 합쳐서 1장으로 되어 있다. 함경북도 도폭에는 여백을 이용하여 지도를 만든 동기와 범례가 실려 있어 이전 지도의 결점과 이 지도의 제작 원리를 알 수 있게 하였다. 즉 이에 의하면 정확한 지도 작성을 위해 백리척(百里尺)을 사용했다는 점, 각 도를 이으면 전도가 되도록 같은 축적으로 그렸다는 점, 행자와 지형이 협준한 곳은 축적의 비율 다르게 했다는 점, 도별(道別), 성읍(城邑)을 다른 색으로 구분하였고, 수륙의 도로, 좌우도의 경계, 봉수(烽燧)와 역 등을 식별하였다는 것을 밝혔다. 이 지도의 가장 큰 특징은 지도에 축척을 표시하여 실제 거리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즉 100리를 1자로, 10리를 1치(尺)로 표시하고, 산지나 개곡 등 굽곡이 있는 지형에서는 1자를 120리 또는 130리로 적용하였다. 또한 제척(梯尺)을 세로로 그리고 백리척이라 표시했는데, 제척의 실제 거리는 9.5cm이므로 100리를 9.5cm로 표시한 것이다. 또한 도별로 채색을 달리하여 식별하였으며, 산과 하천, 드로, 경계, 봉화, 역 등도 색을 달리하여 시작점으로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지도는 조선 후기 내륙지도 발달에 획기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로서는 가장 정확한 지도였다. 이 지도를 본 영조는 감탄과 함께 홍문판과 비변사에 비치하도록 했으며, 신경준, 이의 등 당시의 여러 실학자들도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림 3) 1910년 만경과 낙한강변(조선총독부지도)

두 채색 필사본인 이 두 지도 가운데 쓸만한 상세 한 것은 2008년 12월 22 일 보물 제1591호로 지정 된 해동지도였다. 이 지 도에 표기된 18세기 단양 군 모습을 보면 당시 단양 군은 7개의 면으로 구성 되어 있었는데 읍치인 읍 내면을 중심으로 6개의

면 동면, 서면, 남면, 북면, 소야촌면, 조산촌면이 낙한강을 따라 포 진해 있었다.

현데 이 지도의 단점은 축적이 엉망이었다. 그리고 도시구성 내용을 산세 중심으로 디자인된 비례에 맞춰 끼워 넣은 까닭에 이 지 도에 그려진 지리정보를 일일이 현장에서 파악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이를 가능하게 해줄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졌다.

최신지도를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았으나 근자에 이르러 이 지역 까지 도시화 현상이 확산된 까닭에 지형 번영이 워낙 심해 오히려 해독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으므로 불편했다. 때문에 조선시대 해동지도를 그렸을 당시 원지형을 그대로 남긴 지도를 찾아내야 했다.

조선시대의 땅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대동여지도와 1910년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단양군 지형도였다. 이 두 지도는 모두 축적이 정확했으므로 서로 비교해 볼만했다. 대동여지도가 조선시대 언어로 작성된 지도였다면 1910년도 지형도는 현대어로 작성된 조선시대 땅의 모습이었다. 말하자면 대동여지도와 1819년 지형도는 해동지도를 해석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길잡이인 셈이다.

이 두지도의 비교에서 커다란 수확 하나가 있었다. 그것은 청풍에서 단양으로 오는 봉화대로 구간이 강변길과 제비봉 능선 길 두 가지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과연 어느 길이 퇴계 이황의 시대 길이었을까.

해동지도에는 제비봉 능선 길이었다. 이 길은 수산으로 연결되어 청풍을 지나 충주로 이어지는 길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납사계획은 모두 불거운이 되고 말 것이 분명했다. 현데 낙한강변 경관을 조사하면서 적어놓은 단구협 일대에 대한 메모가 생겨났다. 야장의 기록에 의하면 원래 외서면 일대를 단구협곡이라 했는데 이곳이 퇴계 이황이 단양군수로 재직하면 시절 옥순봉 충북 제천시 수산면 괴곡리 산9번지 석벽에 '단구동문(丹丘東門)'이라는 글을 익각하여 놓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2008년 9월 9일 명승 제48호로 지정되었는데 이곳은 워낙 경관이 뛰어나 소금강이라고 할 정도였는데 그 가운데 옥순봉은 희고 푸른 여러 개의 봉우리가 마치 대나무 쌍과 같다고 하여 붙어진 이름이었다는 것이다... 기암괴봉이 거대한 병풍처럼 뻗쳐짐 이곳은 충주호 담수로

옛 모습을 잃어버렸지만 수면 위 삽아버지 화강암자락 윗부분이 연출하고 있는 경관은 뛰어났다. 연산군 때 김실손은 《여지승람》에, 택리지로 유명한 이중환은 《산수록》에 이곳의 뛰어난 경치를 칭송하였던 곳 아닌가.

말하자면 단구협 일대가 퇴계 이황을 비롯한 선비들과 관련 있는 곳임이 분명했다. 이제 내일부터 하야할 작업은 상진대교에서 단양의 관문이 되었다고 전해지는 단구동문의 봉우리 옥순봉까지 낙한강변의 역사경관을 찾아내고 의미를 분석하는 일이다.

이것이 첫 퍼즐을 부는 과정이 된 셈이다.

퍼즐 1단계 역사코드 만들기(낙한강변 옛 모습 찾기)

지금 내가 서있는 삼진나무가 비록 강원도에서 단양으로 들어가는 이목쟁이라곤 하지만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곳은 인근에 있는 제천, 영천 등과 같은 도시들이 워낙 낙후된 지방 도시들이 있으므로 사람과 물류의 왕래가 한산했다. 그래서 봉화대로(烽火大路)였던 3번국도보다 이곳은 접근성 떨어졌다. 말하자면 이곳은 정막감을 지난 옛 단양의 부 진입로에 해당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와 달리 이곳의 풍광은 구한 밤부터 지금까지 백여 년 동안 내 차례에 걸쳐 너무도 많은 변화와 진통을 겪게 된다.

농경 128도 20분 31초 북위 36도 59분 해발 충주호 수면 높이 20여 미터, 낙한강을 가로지르는 상진대교는 불과 이십년 전만 해도 원래 여기서 오른편으로 80여m 떨어진 곳 아래 살여 미터 내려 간 지점에 있었고 그 밑에 십여 호의 아주 자그마한 강변 마을이 있었다. 거기서 사십 여년 더 거슬러 194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단양 철교 역시 워래 상진대교 옆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른편으로 3키로 미터 정도 떨어진 수양개 마을에 있었다. 그래서 하과 터널을 뚫고 나온 중앙선철도는 지금처럼 여기서 곧장 낙한강을 건너지 않고 우회전하여 천주터널과 애곡터널을 지나 문곡리 수양개 마을에서 원편으로 돌아 낙한강을 가로질러 죽령천 하구를 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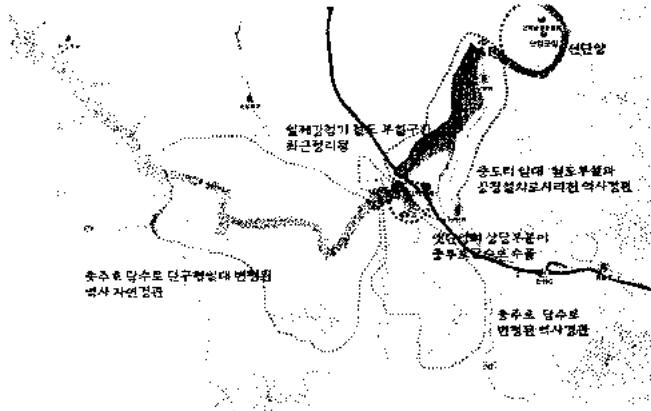
(그림 4) 충주호 담수로 별도 보한 모래섬 A루섬과 충도리 일대 역사지역경관(위성사진)

단성역을 거쳐 죽령터널로 연결 되었다. 그보다 더 20여년 거슬러 오른 1920년대 초만 해도 이곳 사람들은 지금의 상진대교 교각 동쪽으로 이백여 미터 거슬러 올라간 곳에 위치했던 상진나루에서 나룻배를 타고 남한강을 건너 남쪽 강변 백사장 길을 따라 옛 단양으로 걸어갔다. 천교가 있었던 예곡리와 수양개 마을 사람들도 역시 철교 교각에서 강을 따라 십여리 내려간 하진리(下津里) 아랫 나루를 이용해 강을 건너 옛 단양으로 갔다. 그 무렵 일제가 구한말 신작로를 근대화하면서 5번 국도를 개설하자 죽령 길은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 폭을 지난 신작로로 리모델링되게 되었다.

이때 매풋읍에서 상진리로 들어오는 5번국도와 죽령길이 옛 단양읍 삼거리에서 서로 연결되도록 〈사진 4〉에서 보이는 옛 상진교 교각 자리에 나리가 세워진 것이다. 이후 중도리 일대 광산이 개발되고 단성역을 중심으로 5번 국도를 따라 주거지가 형성되었다. 말하자면 이곳에 근대적인 새로운 토지이용 현상과 인구증가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죽령길이 슬금산 산록을 따라 상진교와 이어지는 새로운 도로가 생겨났다. 이렇게 5번국도 선형이 갖추게 되자 상진나루에서 단양으로 들어오는 길이 사라지게 되었다. 때문에 이 지역 교통 거점이었던 단양읍 삼거리의 구심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1970년대 단양의 모습이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단양은 남한강 북쪽에서 단양읍내로 들어오는 상진과 하진 두개의 나무터와 하나의 교량 상진교 그리고 남한강 철교와 단성면 일대 광산촌을 일종의 부심으로 지닌 제법 규모있는 도시였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하여 시작된 산업화 초기 도시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던 도시였다.

상진나루에서 남한강 하구를 바라보면 강과 산으로 어우러진 옛 단양의 모습이 한눈에 보였다. 그리고 상진대교 왼편, 지금의 신 단양이 있는 상진리 나루터와 도담 초등학교 분교 그리고 도전리(道田里)³⁾ 별곡리(別谷里)⁴⁾ 일대는 몇 안 되는 작은 강 마을이 있던 곳으로 매우 한갓진 곳 이었다. 이곳은 물론 강 건너 심곡리(深谷里)와 슬금산⁵⁾ 일대 작은 마을이 몇 있었는데 그 역시 으레 이맘때가 되면 깊은 산줄기에 가려져 어둠에 싸여있었다. 여기서 서쪽으로 삼십리 밖에 떨어져 있는 하진리 일대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것이 불과 사십년 전 옛 단양으로 진입하는 도시경관의 첫 인상이었고 조선물략이후 오십년 동안 지속되어온 경관의 모습이기도 했다.

현대 1980년대를 기점으로 철도와 철교가 5번 국도를 따라 상진리로 이전되고 불과 백여 호 남짓한 별곡리와 도전리 강 마을이 단양인구의 45%가 밀집한 1,850세대의 신 단양으로 개발되고 종도리 일대에 단양역이 생기면서 도시가 형성되자 이곳 겨울밤의 적막함은 이제 도시의 불빛으로 희번하게 물려나기 시작했다. 단양이란 도시공간이 두개의 조직으로 분화된 셈이다. 동시에 매풋에서의 진입로가 주 진입로로 바뀐 된 셈이다. 그로인하여 도담 삼봉



〈그림 5〉 충주호 담수와 근대화로 야기된 남한강 일대 역사경관 변화 내용

에서 흘러 들어오는 남한강줄기를 따라 흘러온 한겨울반 달빛의
싱그러움, 그 빛을 받아 상진나루 백사장 가득히 피어오른 현란한
달빛 여울도, 도시의 불빛으로 어이없이 무너져 내렸다. 밤하늘의
무녀집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강쪽은
그대로였으나 흐르는 강물은 이예 호수로 바뀌어 버렸다. 충주호
답수로 수면이 이십여 미터 높아지자 모든 옛 것이 물에 잠겨버린
것이다. 그 풍에 남한강 물은 호수가 되어 주변 산자락을 올라섰고
줄지에 강물을 막아서게 된 실금산 산비탈은 자신의 앞자락을 가
로지르고 지나가는 자동차 길과 철길을 발끝으로 애써 제거 세우
려고 콘크리트 용벽으로 데두리를 둘러싸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해
서 마침내 단양군 치소가 있던 단양읍 하방리 옛 단양은 도시의 약
70%가 물에 잠겨버렸고 신단양이란 새로운 도시가 생겨났다. 단
양의 외부공간조직에 커다란 변화가 생겨나자 조선시대까지 그대
로 내려왔던 태고의 자연경관 체계는 히물어져 내렸다. 그리고 두
도시공간은 서로 연관성이 전혀 없어보였다.

산은 낮아졌고 단양이란 역사 도시는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신단양이란 신도시가 생겨나면서 도시의 주 진입로마저 뒤 바뀌게 된 것이다. 불과 사십년 만에 자연과 역사의 도시 단양의 폐려다임이 화연하게 세 번이나 바뀌어 버린 것이다. 하지만 더 심한 몸살을 앓은 것은 상진리에서 단구협에 이르는 남한강변의 자연하천경관의 변화였다. 이곳은 상진리에서 옛 단양의 중심 하방리로 들어오는 길과 불화대로를 따라 충주에서 단구협을 지나 옛 단양으로 들어오는 두 진입로가 강변과 만나 매우 특이한 경관회랑을 구성한 곳이다. 원래 옛 단양의 도시적 배경을 이루는 자연경관의 구성요소는 별판이 아니라 강과 산이었다. 이점은 강원도, 경상도 지리산 일대 산속에 분포한 도시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단양은 이들의 서로 어우러져 모양새를 갖춤에 있어 매우 특이했다. 굳이 레오플드(Leopold, 1969년 하천을 끼고 형성된 계곡의

③ 상진리 뒤쪽의 넓은 밭이라는 뜻으로 도전이라 했는데 상업 교육 중심지로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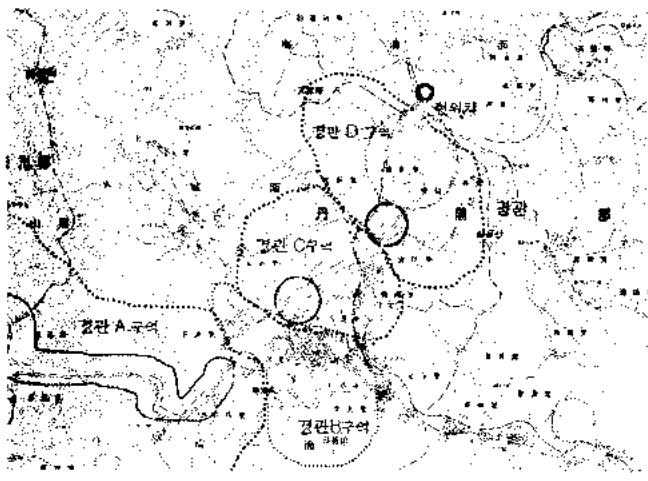
4) 봄날이 봄날이었고 여름날이 여름날이었고 겨울날이 겨울날이었고 가을날이 가을날이었다.

5) 산이 깊어 산삼이 많이 났다. 그래서 주변에 형성된 삼곡리를 심실이라고도 했음.

경관분석법(개발)의 경관측정법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그 특징을 한 눈에 드러난다. 산과 강이 맞 부딪치는 곳에 장단을 갖춘 구비가 여럿 있었고 앞산에 빌려 냄취 술수 밖에 없었던 깎아지른 듯한 기기 묘묘한 암벽들 틈바구니를 바집고 흘러가는 강물은 폭과 깊이를 지닌 단양의 결모습이었다. 그때 만해드 상진나루에서 오른편으로 고개만 돌려도 휘몰아치듯 넘실거리며 환을 지어 성재산자락을 휘감고 서쪽으로 빠져나가는 소백산줄기를 비집으며 밀고 들어가는 남한강을 따라 펼쳐진 도봉한 둑덕의 하얀 모래톱은 실낱같은 우리나라 강줄기가 주는 매력적인 경관이기도 했다.

상진리에서 하진리까지 약 삼십 여리 가웃한 남한강줄기에 죽령천과 단양천이 흘러내려 형성된 하구의 커다란 모래톱으로 강줄기는 세 개의 마니로 나뉘어 있었다. 첫마니에 해당하는 구간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상진리 앞 남한강줄기이다. 강폭 250미터의 40% 정도를 강너비로 할애한 길이 천이백 미터의 남한강 줄기, 이 물줄기가 서쪽으로 흘러내려 실금산 자락 중도리⁶⁾를 지나칠 때면 강폭은 세배 가웃 넓어지면서 강줄기는 반대로 더 가늘어져 6, 70 미터 정도로 좁아졌다. 이렇게 흐른 물이 현천리⁷⁾ 꽃 거리와 앞에 이르면 죽령천과 합쳐져 두 배 정도 불어났고, 성재산 앞에서 강폭은 엄청나게 줄어들어 약 150여 미터로 좁아졌다. 마치 이를 기본 리듬으로 잡은 듯 남한강은 중방리를 지났고 물목이 좁다란 성재산 앞 협곡 약 천오백여 미터를 쏜살같이 빠져나와 하방리 노래벌판을 단양천과 함께 통과했다. 그리곤 미련을 버린 듯 월목산, 말목산이 벙king기는 바람에 급하게 흐름을 멈춰선 제비봉 발목을 잡아 돌아 몇 구비 굽이진 협곡을 빠져나와 충주로 흘러 나갔다. 때문에 천천히 숨을 죽여 가며 흐르던 물이 중노리 하방리 중방리 앞에선 소리를 내어 빨리 흐르기 시작했고 물목에 이르면 자신의 리듬을 되찾기라도 하듯 상대적으로 천천히 흘러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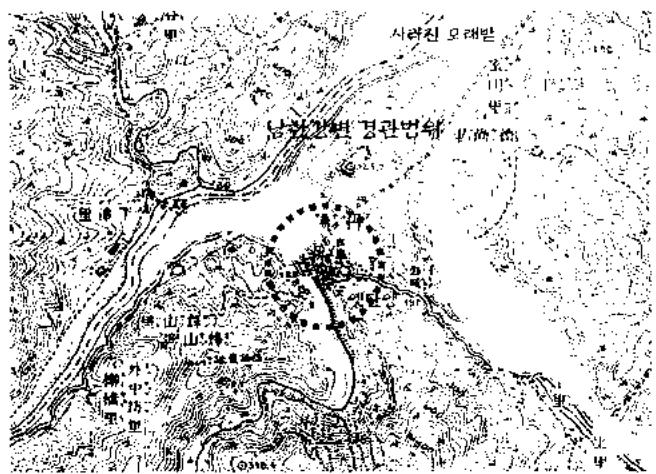
땅이 넓어지면 흐르는 물줄기는 좁아졌고 땅이 좁아지면 그 물



(그림 6) 1974년 지도를 바탕으로 복원한 조선시대 단양 경관구조

줄기는 다시 넓어졌다. 땅이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으면 물줄기는 거센 소리를 내며 흘러갔다. 이런 되풀이를 거듭하여 충주로 가는 것이 이곳 물길의 생리였다. 그리고 한결같이 이것의 바탕이 되어 준 것이 바로 백사장이다. 시루섬, 강 건너 마주한 실금산(671.1미터) 아래 기슭을 슬그머니 밀어내고 만든 벌판같이 드넓은 강폭, 그것의 대부분을 차지한 중도리(鵠島里) 모래톱, 이를 시작으로 현천리 중방리로 이어지는 모래벌의 양감과 남한강 줄기가 만들어낸 선의 대비와 그 위에 살포시 내려앉은 월광의 아름다움. 그것은 실제로 대단한 미학적 원리를 갖고 있었다.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자체의 아름다움을 한껏 뽐내고 내고 있었던 이곳 경관의 특성은 형식미학적 입장에서 볼 때 근접성(近接性, Proximity, nearness)의 원리가 명확하게 드러난 곳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강한 수직성과 상승감을 지닌 단구협 구간의 경이로움은 백두대간 줄기를 따라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한반도 바위산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물과 함께 풀어낸 대단원을 지난 자연서사시의 극적인 단전이기도 했다. 이곳에 가면 산은 산대로 봉우리들의 밀착성이 강해지면서 유사성(similarity)이 강하게 드러났고 물은 물대로 흐름이 좁아지고 급해지고 빨라지면서 속도감을 드러내자 연속성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산과 물은 하나가되어 급한 템포로 흘러간 것이다. 결국 이 흐름은 단구협의 경관적 특질이 방향성에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곳을 찾을 때마다 자연이 내린 역설적인 비례의 아름다움에 취해 흐르는 남한강과 옛 단양을 바라보곤 했다. 사람의 손으로, 노식적인 노시 경관미학으로는 도저히 봄어낼 수도 없고 빗어낼 수 없는 3차원의 경관미학이었다.

생각이 여기 머물지 않고 나래를 펴 시대를 거슬러 갈수록 선명해지는 자연경관의 아름다움, 이것은 더없이 간절한 그리움으로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 뇌계 이황 그를 생각할수록 이것을 문학적으로 승화시켜 정리한 사림(士林) 탁영 김일손과 이윤영, 그리고 이



(그림 7) 충주호 담수로 빨로 변한 남한강변 모래밭

6) 일명 시후선이라고도 하는 이곳은 상진나루 아래 위치한 아름다운 마을로 충주댐이 생기기 전 남한강 수량이 많으면 마룻배로 건너갔고 저울때는 걸어서 선으로 가기도 했다.

7) 현천리는 한때 삼거리를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했는데 여기서 옛 단양으로 성재산을 돌아 들어가는 길이 있었다. 그런 터 이길이 충주호 담수로 폐쇄되고 신단당이 형성되면서 인구가 격감했고 상권이 축소됐다.

8) 현천리 상권이 활발했을 당시 주점이 많았던 석주가였다.

들의 뒤를 이어 이곳 풍광을 제영시와 가사문학으로 노래했던 많은 선비들의 삶의 흔적에 대한 궁금증은 더해 가기만 했다. 그들과 함께 그림으로 이곳을 기록했던 단원 김홍도와 엄치우, 그리고 이방운과 최복을 비롯한 많은 화원들이 남긴 화첩속의 풍광들 그동안 무심코 보아만 왔던 규장각, 장서각의 자료들이 이젠 그들의 삶과 시대정신에 대한 궁금증이 되어 갈증처럼 내속을 타들어왔다. 이들이 바로 거대한 그물처럼 이곳을 지배하고 있었던 태고적 모습을 그대로 간직했던 자연에 자신의 말을 건네고 눈에 보이는 장소 하나 하나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며 산책문화 도시의 퍼리를 짜내었던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걸으며 한 장면 한 장면 정리한 자연풍광, 그들이 남긴 모든 이미지와 언어들은 이곳 자연에 대한 해석이자 장소성에 대한 정립이기도 했다. 아마 이런 사람들과 교분을 지녔던 퇴계 이황 역시 이곳에서 자신이 살아야 할 장소성을 지닌 곳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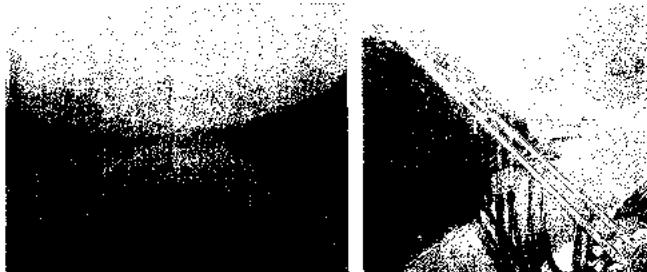
하지만 삼십여 년 만에 이곳을 다시 찾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호수처럼 변해버린 강과 강줄기 한 가운데 손톱만한 모래톱을 빼꼼히 고개 내민 채 어둠 속에 가라앉아 있는 시루섬의 잔형 뿐이었다. 그리고 어둠으로 자신의 몸 색깔마저 잃어버린 강변에 이따금씩 가로등 불빛에 반사되어 희끗 희끗 보이는 것들은 강변에 널브러진 검붉은 진흙 뺨과 물결을 따라 시대를 비아냥거리듯 넘실대는 플라스틱 농약병, 콜라병, 스치로플 박스임이 분명했다. 장마철에 훌러들은 것이 대부분이었을 이들은 여울에 말려 군데군데 쓰레기 군락을 형성하고 있었다. 오른편 멀리 실금산줄기를 밀어낼 듯 차오른 충주호의 숨 가쁜 턱이 도시의 불빛 속에 흐려진 어둠사이로 뜨끔하게 보였다.

멀리 옛 단양을 바라보자 적성면과 단성면을 잇는 단양대교를 통과한 중앙고속도가 하방리 중심을 가로질러가자 성재산 산자락의 윤곽은 유난스레 흐릿해졌다. 멀리 허공을 가르며 줄을 이어 성재산 자락을 파고드는 불빛은 단양대교를 지나치는 자동차 행렬이었다. 성재산 머리에 주저앉아 있는 휴게소의 기로등 불빛과 간간히 새어나온 도로의 불빛으로 단양의 진산은 아예 그 모습마저 쇠락해 버렸다. 장엄한 자연의 원형적인 모습을 극적(劇的)인 연출을 지닌 이곳 남한강의 경관이 일반적인 표준화된 근대 도시 경관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이다.

조선의 선비들이 사랑해 왔던 자연과 마을경관이 충주호 담수라는 간단한 행위로 이렇게 퇴락해 가고 있는 것을 보는 순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다.

과연 오늘을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진정 싶어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우리는 과연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도시를 만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자 시간이 흐를수록 무겁게 내려앉기만 하는 깊은 침묵과 같은 어둠 속으로 내 마음은 착잡하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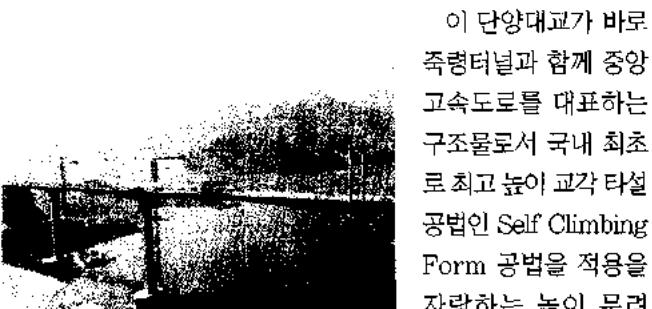
퍼즐 1단계 역사코드 만들기(성재산 밑 단양 옛 모습 찾기)



〈그림 8〉 상전리에서 본 성재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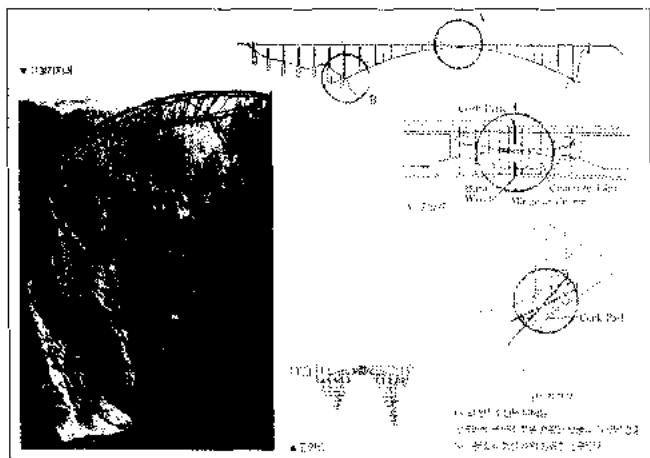
〈그림 9〉 사적265호 적성산성(赤城山城) 주변을 가로지르는 중앙고속도로와 단양대교

날이 밝기 무섭게 찾아 가야할 그곳은 화두로 떠오른 옛 단양이다. 조선시대 읍치가 있었던 옛 단양은 여기서 남한강을 비스듬히 남서쪽으로 가로질러 이십 여리 떨어진 높다란 봉우리 두악산(723m), 마을 사람들이 소금무지 산이라고도 부르는 성재산(323) 그 산줄기 끝자락 서쪽 사면에 있다. 영남으로 가는 길목 도시인 단양은 지금 나지막한 성재산자락에 안겨 신라 사람들이 만든 적성산성을 힘겹게 머리에 이고 살아온 텃인지 옆모습조차 능선에 가린 체 소리 없이 남한강과 소백산만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성재산 머리와 강 건너 적성면을 연결하는 일직선의 두개의 다리가 어둠보다 짙은 검은색선으로 드리워져 있다.



〈그림 10〉 또 다른 단양대교(현재 완공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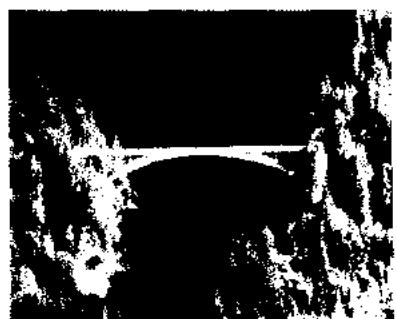
이 단양대교가 바로 죽령터널과 함께 중앙고속도로를 대표하는 구조물로서 국내 최초로 최고 높이 교각 타설 공법인 Self Climbing Form 공법을 적용을 자랑하는 높이 무려 103m 왕복 2차선의 초대형구조물인데 현재 두개가 완공되어 나란히 서있다. 이 교량을 세운 목적은 중앙내륙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국토의 균형 개발은 물론 인근 월악산, 소백산, 금수산 등의 관광자원 개발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배로 이루어지는 충주호 유람을 의식하고 설계과정부터 미관을 각별히 고려하여 상판을 군더더기 하나 없이 매끈한 외관의 아치형으로 제작한 교량이다. 사실 교량 그 자체로만 본다면 단양대교는 세계적인 기술임이 분명했다. 그런데 이 다리는 충주호 유람선을 타고 수상관광을 하는 사람들에게 현대의 토목건설기술을 감상하는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불행스럽게도 이 다리 교각 왼쪽 무성한 숲이 바로 적성산성이 있는 성재산이다. 그리고 다리 오른쪽 뒤편에 가를가을 보이는 마을이 옛 단양이고 마을 앞을 지나는 자그마한 하천이 황장산 줄기를 타고 남한강으로 흘러내리는 물 좋기로 소문난 단양천이 있다. 그런 까닭에 아무리 보아도 이곳 자연경관과 피라미드와 같은 초



〈그림 11〉 실기나트벨의 다리 시공장면과 구조가림

자연적인 스케일로 깨끗하게 솟아 있는 단양대교는 서로 조화될 수 없는 상대였다. 이 다리는 이곳의 풍부한 자연경관을 압도함으로서 균형을 상실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달리는 차량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낙타가 고작이었으므로 자동차 위에서 단양의 아름다운 풍광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설사 힐끔 결눈질로 뭔가를 본다고 해도 불과 1,2초 사이 시속 100km로 스치듯 지나치며 풍광을 감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단양대교는 성재산 8부 능선을 치고나가면서 두악산과 어우러져 만든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에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다. 과연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우리는 이런 사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우리나라 문화재 보호법에서 찾아진 것이 아니라 역사마을과 노시보존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워싱턴 현장에서였다.

1987년 제정된 이규정을 보면 도시와 지역 계획 시 건설되는 자동차전용도로는 역사 마을이나 역사도시 지역을 관통해서는 안 되지만 이를 지역과의 접근성을 좋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When urban and regional planning provides for the construction of major motorways, they must not penetrate an historic town or urban area, but they should improve access to them Chapter for the conservation of historic towns and urban areas)고 못 박고 있다.



〈그림 12〉 1930년대 작품인 실기나트벨의 다리

이 현장에 명시된 내용으로 미루어본다면 고속도로와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역사마을이나 역사 도시를 통과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편성에도 어긋나는 행위였던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은 이미

1978년부터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자연재해나 전쟁 등으로 파괴의 위험에 처한 유산을 복구 보호함으로서 인류 보편적 유산의 파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세계각지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를 위한 국제간 협력과 각 나라별 유산 보호활동을 고무하기 위하여 세계문화유산을 제정해오고 있다. 이런 세계문화 흐름 속에서 단양대교는 너무도 냉혹하게 성재산과 옛 단양의 역사유적 한복판을 가로질러 죽령터널로 치닫고 있었다. 굳이 이 코스를 고집하지 않더라도 일제 때 만들었던 단양철교 위치를 재활용 할 수도 있었다. 그렇게 했더라면 이렇게 무참하게 역사도시의 파괴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설사 이 노선을 고집해야 할만한 말 놓할 사정이 있었더라도 이곳에 세워질 다리는 단조로운 자연선형을 자닌 성재산 주변 자연 경관 속에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구조물로 세심하게 디자인 되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갖게 한다. 과연 그런 디자인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사례는 없는 것일까.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1930년대 작품인 실기나트벨의 다리를 생각나게 한다. 마야르(1872~1940, 스위스 베른 태생)가 설계한 이 다리는 암프스계곡에 세워진 길이 교량으로 길이 90미터 폭 3.5미터로 겨우 자동차 한대정도 지나칠 수 있는 콘크리트조의 다리이다. 역학적으로 세 점 한지를 기가 막히게 활용 설계한 중정구조물의 아치교인 이 교량은 구조해석의 명학성과 온도변화와 지점변화에 대한 흡수력이 잘 기획된 근대건축의 영원한 기념비적인 구조물이다. 입지조건이 단양대교와 거의 비슷한 이 다리는 크기 면에서 단양대교보다 작지만 질적인 내용면에서 보면 결코 작다고는 할 수 없는 구조이다. 1930년대 구조이론을 현대 건축사들이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그런데 주변 역사 환경을 고려한 또 다른 다리 더럼의 도보교가 생각나자 우리는 이곳 경관을 더 생동감 있게 드러낼만한 절호의 기회를 유감스럽게도 노치고 말았다는 아쉬움마저 느끼게 되었다. 이 다리는 내 머릿속에 아름다움을 보존하기 위해 기술이 존재한다는 또 다른 믿음을 심어준 다리였다. 스코틀랜드 달링턴 역에서 기차로 한 30분 정도 가면 아쉽이 설계한 더럼의 도보교가 있다. 두개의 V자형 교각을 자닌 이 다리는 교각사이가 40m 폭 2.4m로서 1963년 완공되었다. 아름다운 워어강 하구에 세워진 이 다리 주변에 영국 최대 로마네스크 건축 양식인 더럼대성당(1093~1220)이 있다. 영국의 건축역사가 페브스너(N, Pevsner)가 말한 것처럼 이 성당은 리브 바울트, 측랑에 설치된 첨탑의 횡단아치 마치 고딕의 구조의 출현을 예고하는 듯한 아름다운 건물로서 말굽처럼 휘돌아 가는 워어 강이 둘러싸인 시암 절벽 위에 서있다. 그리고 이 사원의 주변 낮은 구릉지에 오랜 대학건물이 분포해 있었는데 학부 중설에 따라 워어 강 건너에 동쪽에 학생회관이 신축되자 이 두 캠퍼스를 연결하는 다리 설치가 불가피해



〈그림 13〉 보트먼슬장 워어강 위에 세워진 노보교

진 깨닭에 세워진 교량이다. 이 교량의 입지 조건 역시 문화유적을 배경으로 세워졌다는 점에서 단양대교와 비슷했다. 살기나트벨의 다리와 더럼의 도보교, 이들과 단양대교를 비교해 보자 문화유적지인 성재산에 설치된 고속도로와 교량은 설계과정에 있어 경관자원의 특성에 대한 분석과 관리방안이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구조물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제대로 설계했더라면 성재산의 사회문화적 가치와 적성산성과 남한강 자연경관의 가치구역에 대한 조사, 고속도로와 교량설치에 의해 발생되는 부정적 요소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 흔적이 구조물 디자인에 역력히 드러났을 것이다. 이렇게 설계 했더라면 성재산 정상부를 무자비하게 깎아버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심지어 성재산을 깎아 세운 단양 휴게소만 보아도 마찬가지였다. 단양 IC에 올라 상행선을 따라 가다 오른편에 있는 이 휴게소는 바로 옆에 적성산성이라는 훌륭한 문화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엄한 경계철책으로 건물 주위를 둘러쳐 놓고 있다. 휴게소와 적성산성이란 문화재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서 있는 셈이다. 이러한 건축행위는 기존 토지이용과 이용패턴의 연속성(land use and land cover continuity)을 무시한 전형적인 사례였다. 원래 터줏대감인 적성산성에 대한 접근성이라곤 전혀 배려하지 않았던 셈이다. 우리는 이곳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지나치게 크고 무거운 문명의 옷을 아무 생각 없이 입혀버림으로서 시간과 공간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문화의 사슬을 끊어내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런 건설행위 결과를 놓고 이 시대 우리는 사회적 유보(Social reservation 문화적 역사적 가치로 인한 보호)가 된 토지와의 올바른 관계설정에 전력한 문화의 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사태가 이렇게 발전되기까지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많이 있었겠지만 무슨 사연이 있어 그 지경에 이르렀는지 더 묻고 싶지도 않았고 알고 싶은 것도 없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를 관계만 잘 설정, 활용했어도 멀진 문화공원이 조성되었음직한 곳이라는 사실이다. 엄청나게 귀한

문화유산이 낭비되고 있는 현장을 보고 있는 셈이다. 그래도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다. 선생님의 지도로 적성산성을 보기 위해 이곳에 온 이들은 휴게소에 버스를 세우고 철책 뒷문을 이용해 답사를 하고 있다. 마땅히 당당한 자세로 우리 역사유적을 보아야 할 그들이 마치 수업시간 중 선생님 몰래 학교 뒷문 옆 라면가게라도 가듯 응크린 모습으로 휴게소 뒷문으로 빠져나와 줄지어 성재산을 오르고 있다. 이런 사실에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듯 이방인처럼 서 있는 휴게소, 적성산성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은 학생들 모두가 서로 제각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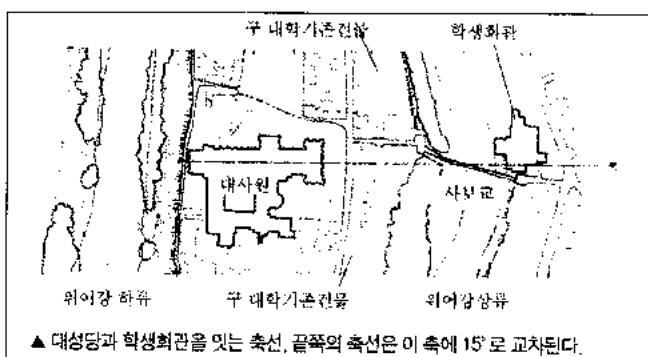
(그림 14) 적성산성을 외면하고 있는 단양휴게소



(그림 15) 성재산 적성산성 상벽을 조망거리며 걷고 있는 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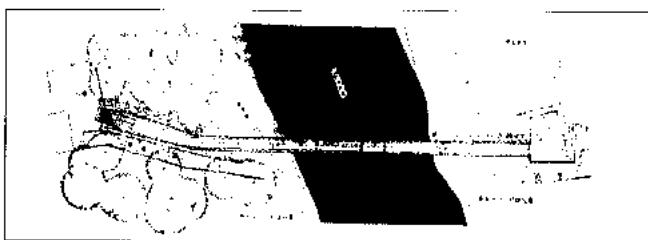
장대하게 세워진 상진대교, 단양대교, 철교, 충주댐, 중앙고속도로, 도로포장 이런 것들을 앞세운 개발 일꾼들은 국토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오지를 찾아 끊임없이 새로운 장소들을 만들고 있다. 이들은 문화재가 분포한 역사마을이나 도시지역을 지역 경제적 발전을 가로막는 저해요소, 인근 주민들의 재산 가치를 손상시키는 요소라는 끊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수립·집행 과정에서 문화유적에 대한 검토는 맨 마지막 절차로 미루어 놓음으로서 최종 의사 결정과정에서 문화재가 걸림돌이 되도록 역사문화 환경을 구석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누군가 모든 국토가 박물관이라고 했지만 그 말은 밤글이라는 입장에 한정된 말이다. 하지만 유자관리와 보전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문화재는 부동산의 힘없는 천적이자 개발의 천덕꾸러기임에 틀림없다. 사실 이러한 곳에서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곳이 지금 내가 찾아 가려는 사람의 땅, 선비들이 사랑하고 노래하며 그리워했던 단양이란 도시 경관의 현실이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내 가슴 속에서 소리 없는 탄식처럼 우리나라온 말은 세월이 약이란 밀처럼 이를 모두가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서로 어울리는 장소성을 발휘할 수 있게만 된다면… 얼마나 다행일까, 하지만 이것은 푸념어린 위로에 불과했다.

이곳에 도착한지 불과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았건만 거친 호흡으로 떠오른 생각들로 영겁 같은 시간이 흐른 느낌이다. ■



▲ 대성당과 학생회관을 잇는 축선, 끝쪽의 축선은 이 축에 15°로 교차된다.

(그림 14) 대월 도보교 배치도



(그림 15) 도보교 평면도

협회와 전시산업의 미래

The future of KIRA and exhibition industry

이규환 / 정회원, 아카펠라 건축사사무소
by Lee, Kyu-hwan, KIRA
전시사업위원회 전문위원

통상적으로 그 해의 전시회가 끝나면 정산 과정을 거친 후 바로 다음해의 전시회를 준비하게 된다. 그 중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이 다음 전시회의 개최시기 결정과 장소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야 비로소 다양한 전시준비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절차는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매우 첨예한 경쟁구도 속에서 상당한 신뢰와 힘의 구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2010년도 전시회는 장소 확보를 위한 전쟁이 국에 달할 전망인데, 그 이유는 G20정상회담이라는 거대한 행사가 2010년 11월 중에 우리나라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G20정상회담에는 당시국인 20개국의 국가원수는 물론 주변국을 포함하여 30~40명의 국가원수가 참가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 수행원들의 인물구성이나 수를 생각하면 가히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큰 지구촌 행사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기에 G20정상회담이 열리는 장소는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위치로 결정될 것이며 또한 정상회담 시기에 앞서서 많은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11월에 열리는 행사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앞서 1

달에서 2달 정도의 준비과정이 필요하고, 이 시기는 바로 우리가 지난 4년간 지속해온 전시기간과 겹친다는 사실이다. 전시시기를 옮겨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문제는 장소까지도 옮겨야 하는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으로, 제5회 째를 맞는 한국건축산업대전의 시기와 장소를 한꺼번에 바꿔야 하는 엄청난 상황을 고민하면서 동시에 우리 전시산업의 미래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

제1회 전시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시장을 배정받기가 쉽지 않았었다. 그 이유는 유사전시회가 너무 많으면 전시산업의 발전에 저해된다는 점과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유사전시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전시업계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난관을 극복한 것은 바로 차별화였다.

기존 전시회는 건축자재 중심의 부분적인 전시회이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건축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진정한 건축전문전시회로서 국가적인 건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주최하는 전시회가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결국 몇 가지 약속과 함께 첫 번째 전시회가 무사히 개최될 수 있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 질문의 해답을 찾는데 MICE산업이 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협회와 전시사업위원들이 모두 힘과 마음을 모아 준비하고 있는
'2010 한국건축산업대전'이 우리들의 궁금증에
하나의 답이 될 수도 있다고 감히 생각해 본다.

그 약속이란 첫째, 차별화를 이를 것과 둘째,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지속될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전시회가 건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었다. 강제성은 없는 약속이었다. 그러나 전시회의 방향성을 제시할 의무가 있는 그들로서는 당연한 요청이기도 했었다.

실제 문제는 전시회를 주최하는 우리들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문화가 아닌 산업이라는 낱말을 도입한 것에 대한 반발이 예상보다 커졌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 글에서 발표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다행히 낱말에 대한 반발은 차츰 수그러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우리를 마음속에 “건축사는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허황된 착각이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전시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일들은 주변의 너부도 많은 분들이 “건축사는 문화전반의 일들을 총괄하는 자휘자로서 산업전시회 정도는 간단히 해 낼 수 있는 일이다.” 또는 “문화인인 건축사는 매사에 봉사정신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 등의 말이었다. 그때마다 한결같이 답변하면 말이 있다. “산업전시회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한 전문분야이다. 또한 사업을 통사로 할 것인가?”

전시산업의 최강국으로 분류되는 독일에서는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전시업무에 전문적으로 투입되어 진행한다고 한다. 해당분야의 업무능력과 전시업무능력이 결합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시회 최강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 왔는가? 전시위원회는 해마다 급조되었고, 대체로 힘들면 쉽게 포기하지는 말들이 난무하면서 진행되어 오지 않았던가? 황금알을 낳는다는 보물단지를 내팽개치듯 애물단지 취급해 온 부분도 없지 않음을 인정해야 할 것 같다.

전시를 준비하면서 우리 건축사들이 참으로 기다림에 악하다는 것을 느끼곤 한다. 가꾸어 크게 이루기보다는 당장 눈앞의 이득에 훨씬 더 흔들어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결국 2010년도 전시장 배정 협의에서 약속 불이행에 대한 불신의 말이 나왔다. 약속의 긍사자는 중도하차했었고, 차별화는커녕 그간의 전시회가 외관상 성공적으로는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였다. 그리고 그 평가의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전시회를 개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G20정상회담을 인정하더라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은 남아있다는 판단을 했었다. 그러나 현실은 최소한 2010년도

전시회에 한 해서 만큼은 시기와 장소를 새롭게 검토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전시산업을 대표적으로 MICE(Meeting, Incentive tour, Convention, Exhibition)산업이라 통칭한다는 것을 지난 건축문화신문 2009년 10월호에서 언급한 적이 있었다. 건축문화를 버리자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진짜 작품은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면과 투시도 등의 설계 자료를 아무도 구매해 주지 않는 패널이 붙여서 전시하는 것이 상당한 건축문화라고 칭각하지는 말자는 것이다. 대신 국제회의와 집회 및 교육 그리고 산업전시회와 관광 등도 우리들이 소중히 가꾸어 갈 건축문화라고 생각해 보지는 것이다.

간단한 예로. 우리가 관광여행산업에 관여한다면 일반여행사와 비교하여 과연 부끄러울 것이 있을까? 건축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건축과 관광여행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MICE산업은 우리 건축사들이 그리고 협회가 괴롭 있게 보아야 할 분야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의 업무영역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것에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능동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MICE산업은 국가의 신성장동력이기 이전에 우리 건축인들이 우선적으로 개척해야 할 우리의 업역이다. 조급해하지 말고 차분히 가꾸어 간다면 분명 우리들에게 황금알을 건네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짧은 글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상황변화들이 전시업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우리도 그 속에 담겨있는 것이다. 남들이 목숨 걸고 임한다면 우리도 그에 걸맞는 준비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남들은 뛰어가는데 우리는 걸어가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생각은 더 이상 하지 말자.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다. 험부로 문화창조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현실을 망각하지도 말자. 낭철하게 현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 질문의 해답을 찾는데 MICE산업이 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협회와 전시사업위원들이 모두 힘과 마음을 모아 준비하고 있는 '2010 한국건축산업대전'이 우리들의 궁금증에 하나의 답이 될 수도 있다고 감히 생각해 본다. ■

한국건축산업대전 URL : www.kaff.biz

신한옥개념의 농어촌경관주택 표준도 연구

Study of Standard Design for Residential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

이관직 / 정희원, (주)비에스디자인 건축사사무소
by Lee, Kwan-jick, KIRA

글을 시작하며

농촌은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다. 모두가 몸과 생활은 도시에 두고 있지만 산과 들과 시내와 점점이 집들이 어우러진 우리의 시골 혹은 농촌은 아직도 우리마음속에 언젠가 돌아 갈 곳으로 남아있다. 그런데 그런 농촌은 마음속에서만 있을 뿐 아름다운 곳, 마음의 고향으로서의 관심에서는 멀어지고 개발과 빈 땅은 개발과 투기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모습은 괴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샌드위치 패널집과 공장과 창고와 집이나 창고로 쓰는 컨테이너 박스가 여기 저기 놓여있고, 초가집을 지붕만 알록달록한 슬레이트와 철판지붕으로 개량한 집들이 우리의 농촌 풍경이다.

최근까지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 표준주택은 1992년과 1993년 2차례에 걸쳐 농어촌 주택 기본설계 현상공모를 실시하면서 농어

촌 주택 표준설계도 개발을 다시 추진한 결과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994년, 1995년, 1997년, 1999년, 2000년, 2001년 등 6차례에 걸쳐 51종의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개발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농촌 표준설계도는 농어촌 주택의 계량화와 농어촌 마을의 경관을 도성하고, 개선하는 점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개선하는 점에 있어서 본 연구 과정에서 농촌공사로부터 제공받은 표준주택에 대한 농촌 주민들의 민원 내용을 보면 그러한 문제를 부분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민원 내용 요약

- 1) 표준주택 활용절차 불편, 자료 미비, 종합적인 안내책자 필요
(고령, 김포, 여주, 인천, 영천, 달성, 전남)
- 2) 건물형태와 공간구성이 낙후되어 이용률 저조(상주, 경남)
- 3) 평수별 기본구조(조적, RC, 패널, 목조 등)의 다양성 요구(상주)
- 4) 농업용 주택의 공간구성 필요(문경)
 - 예) 1층 농사용 창고, 2층 주택 또는 별도의 창고 공간 확보
 - 5) 농어촌 주택과 전원주택(주말이용)의 기변적 이용에 대한 요구(경산)
 - 6) 태양광 설비 등 친환경적 저에너지 설계요구(청송, 영양, 달성)
 - 7) 거주인원감소에 따른 100m² 내외로 규모 축소(담양)
 - 8) 공사비 자료의 현실적인 내용이 가능하도록 자료보완(담양)
 - 9) 인허가시 추가적 전문가의 필요에 따른 불편
 - 10) 표준도의 일부 변용 적용에 따른 문제점(곡성)



〈그림 1〉 주문집

11) 1개방을 구들 난방 할수 있는 구조(정승, 영양)

또한 본 연구의 설계자로서 민원 내용의 기본적인 의견을 존중하고, 또한 전문가적인 주기적 분석을 통해서 2009년의 농어촌경관주택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했다. 본 연구는 (주)비에스디자인 건축사사무소와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 우송대학교가 공동으로 수행했다. 2008년 수행된 연구단계에서 농촌 주택의 수요대상자에 대한 광범위한 전국단위의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우송대학교의 이해숙 교수의 책임으로 수행된 연구용역에서 설문조사를 통하여 군집분석을 하고 군집에 따른 거주생활 유형을 도출했다.

생활 유형 시나리오

생활 유형1	사회적 특성	기능예정/ 대출/ 40~49세/ 가족 2~4명/ 비농업/ 개인 및 가정생활형
	공간적 요구	38평형/ 복 4개/ 회장실 2개소/ 숲의 침실/ 워크 룸/ 가족실 거실중심 생활공간
	회방 공사비	약 1억 1천만원
생활 유형2	사회적 특성	귀농가주 10여/ 고졸/ 50~59세/ 가족수 4명 네농업/ 전민생활·주말기주자·취미랜드사업/ 기정 및 문화생활형
	공간적 요구	30평형/ 복 3개/ 회장실 2개소/ 살나의 창고/ 암·뉘이방/ 안방과 거실중심 생활공간/ 넓은 부엌 및 거실
	회방 공사비	약 9천만원
생활 유형3	사회적 특성	월세가주 31세/ 중졸/ 60~64세/ 가족수 2명/ 농업/ 개인생활형
	공간적 요구	21평형/ 복 2개/ 회장실 '가소'·성고나·초시·팔오입을/ 거마당/ 안방중심 생활공간/ 좁은 부엌 및 거실
	회방 공사비	약 8천만원
생활 유형4	사회적 특성	월세가주 35년/ 중졸/ 60~70세/ 가족수 3명/ 농업/ 개인 생활형
	공간적 요구	26평형/ 복 2~3개/ 회장실 1개소/ 실외창고/ 옥마당/ 거실중심 생활공간/ 넓은 부엌 및 거실
	회방 공사비	약 8천만원

최종적인 4개의 생활유형 그룹을 농촌 주택으로 건축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주택의 유형을 선택하는 시뮬레이션을 시행했다.

이러한 수요 예측은 실제 설계 단계에서는 건축 설계의 기본 자료가 되었지만 농촌경관 주택의 설계자의 입장에서 수요분석을 통한 방식만을 가지고 건축적 유형을 결정하는 대는 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수요자 중심의 요구가 주택 건설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는 하지만, 주거 건축의 형태와 농촌경관에 대해서 보다 한국적인 전망을 가지고 우리 의 것을 만들려는 노력에는 긴 안목의 역사적이고 건축 본질적인 고찰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연구보고서를 중요한 자료로 참고하여 건축적인 연구와 과정을 첨부하여 설계를 진행하게 되었다.

농촌공사에서 제시한 2009년 농어촌표준설계도 개발의 목적은

- 1) 아름답고 개선된 농촌주택 기본제시
- 2) 전통과 현대 주거의 융합
- 3) 행정 간소화와 경제적 품질 확보
- 4) 농촌경관 정비 노보
- 5) 경관특성의 농촌 마을조성

의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설계자로서 농촌을 상황을 조사 연구하고 용역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농촌주택은 무엇인가에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과거에 새마을 운동으로 시행된 무조건적인 슬레이트 지붕으로의 개조와 마구잡이의 개발사업, 계획, 조절 없는 주택과 공장, 창고 등의 건설로 우리의 농촌의 경관은 파괴해질 대로 파괴해졌다. 또한 지금까지의 여러 번의 농촌주택 표준도의 작성과 보급사업도 농촌 경관의 관점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다.

우리나라이 비해 최근까지 일본의 농촌경관은 마을이라는 공동체적인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전통적인 거족의 기본적인 구성을 지속하고 표준화된 보급을 통해서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주택의 건설을 통하여 농촌을 만들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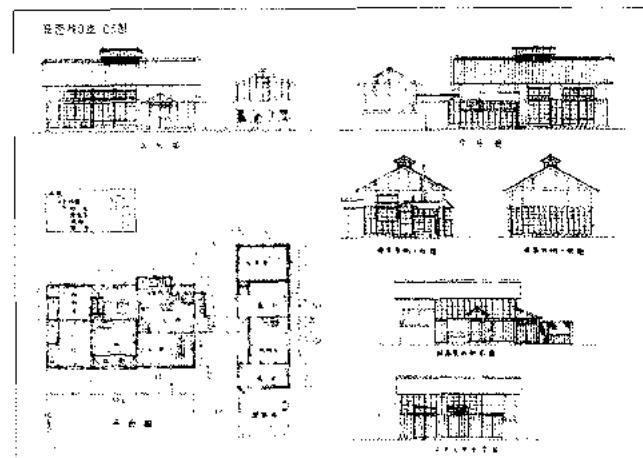
〈그림 2〉 일본의 농촌 풍경

또한 경관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본에서 수입된 것으로 생각될 정도니 일본은 제도적인 법적 장치를 통해서 도시와 마을을 시작적이고 미적 가치의 대상으로서 바라보는 관점을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아름다운 농촌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서 설계를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선결되어야 하는 개념들에 부딪쳤다.

경관개념을 이해하고 주변과 단위 주택과의 관계를 해석하고 집합으로서의 마을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보급을 통해서 점차로 마을의 경관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 표준설계도 작성의 저한된 용역의 범위로는 그 많은 문제를 다 해결하여 나갈 수 없다고 생각됐다.

기본 개념과 정책, 경제적 보급을 위한 표준화, 공업화, 사공할 수 있는 시스템과의 연결, 사용자의 문제점은 피드백 하여 설계에 재 반영하는 문제, 친환경적인 접근 등등, 많은 문제는 자문과 실무를 받는 동안 반복적으로 거론됐다. 그러한 모든 문제가 설계적인 관점과 연결되는 것이지만 단계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 이 용역의 설계 방향을 정하였다.



〈그림 3〉 일본의 1940년대 표준설계도서

농어촌경관주택 기본 방향

농어촌경관주택의 기본 방향은 기존의 농촌주택표준설계도의 방향

이 소위 양옥이라는 우리나라에서 도입기 서양건축의 표피적인 수용이라고 생각되는 점과 후에 아파트 평면이 무분별하게 주택의 평면으로 재구성되었다는 반성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평면과 공간구성, 구조방식, 지붕형식 등을 새로운 농촌주택에서 접목시키려 하였다. 그래서 아직도 농촌 마을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전통적인 목조의 구조와 평면의 주택에, 초기아이었던 지붕을 슬레이트나 철판 기와로 개방한 전형적인 주택들과 어울리면서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농촌마을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있다. 기본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통화 반야 풍경_이관직 작



〈그림 5〉 판매도 풍경_이관직 작

유형을 통해서 일반적인 생활양식을 수용하는 건축 : 농촌주택의 표준설계도는 집단적인 단지구성이 아니며, 개별 건축주를 위한 것도 아니다. 농촌에 거주하는 주택을 지으려는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대상자로 한다. 불특정 다수가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 즉 유형화를 전제한다. 또한 유형화는 일반적인 생활양식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아파트의 평형처럼 면적 기본 유형이 아니라 농촌 거주 유형 분석을 통한 구성기본의 유형이어야 한다.

한옥의 전통적인 주거에서 발전된 신한옥개념의 주택 : 우리의 한옥의 전통에는 수백 년 이상의 자연과 사람과 생활이 그 안에 용해되어 있다. 농촌은 아직도 대부분의 농가가 전통적인 구조 방식과 평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둥과 창호와 대청마루 중심 평면의 주택을 개조하여 살고 있다. 전통적인 평면과 건축형식의 장점과 현대적인 주거를 반영한 미래의 새로운 주택을 이어야 한다.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건축 : 주택은 그곳에 사는 사람을 위한 필요 공간과 장소를 만드는 것이다. 편리하고 실용적이어야 한다. 또한 가구식 구조의 장점을 통하여 라이프 사이클에 대응하고 사용자의 필요에 의한 변형과 조절이 용이한 건물이어야 한다.

환경의 조절과 조형이 조화된 건축 : 친환경적인 설계와 대체 에너지의 사용은 녹색 성장이라는 국가적 목표뿐만 아니라 전지구인의 공동의식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 효율과 비용의 문제와 형태적인 조화가 문제가 된다. 전통적인 건축은 구법과 형태, 그리고 재료적인 측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친환경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한 전통적인 장점과 새로운 개념의 친환경 개념을 조화롭게 건축적인 형태와 접목시켜야 한다.

류춘수 선생의 이공건축은 삼하리 주택이나 부암동주택, 중심서원, 남한산성주택 등의 주택 설계를 통해서 한국적인 공간, 구법, 형태를 현대 건축으로 실험하여 왔다. 그러한 프로젝트의 설계담당자로서 필자는 오랫동안 이공건축에서의 설계 경험을 토대로 이번 농촌주택표준설계 연구를 공동 수행하면서 이번 기회가 한국적인 현대 주택을 농촌에 보급할 수 있는 다시없는 기회라고 생각되었다.



〈그림 6〉 삼하리 주택

농촌경관주택의 건축계획

〈구조와 구조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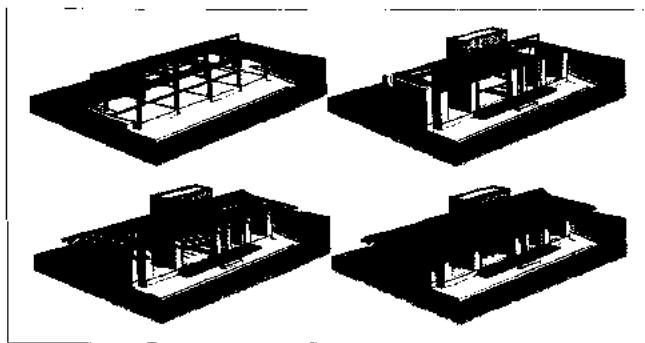
농촌경관주택의 건축계획은 공간구성과 형태구성에 있어서 한국적인 건축 특히 요사이 관심이 되고 있는 한옥의 장점을 어떻게 현대화하고 보급형 주택으로 만들 수 있는가가 내용의 중심이다.

공간구성에 있어서 기둥식 구조를 채택한다. 기둥식 구조는 공간을 일정한 기본 단위로 계획하도록 하면서도 벽식 구조에 비해서 확장성과 가변성이 뛰어나다. 그러나 구조 부재의 재료에 있어서 기둥과 도리와 대들보는 스텀파이프로 설계했다. 목구조를 기본적으로 검토했으나 공사비의 문제와 숙련된 대목수를 수급하여 공사하는 것이 어렵고 오히려 철골작업이 지방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최근에 전라북도에서 천년한옥 등의 브랜드화된 한옥보급사업을 지방자체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한옥의 목조 구법을 그대로 농촌주택에 적용하는 것은 시공업체의 수급과 자재의 확보 등의 경제적 문제가 아직은 많다.

〈평면과 흘집〉

평면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흘집의 개념이다. 규모가 작은 경우 체를 분리하기는 어려웠지만 기본 모듈을 지키면서 모든 방들을 단일 기둥 간격으로 구성하였다.

전통적인 우리의 건축에서 궁궐이나 대형 사찰과 같은 대형공간과 많은 방들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3량이나 4량으로 구성된다. 한옥의 경우 일자집, ㄴ자집, ㄷ자집의 선형구성이 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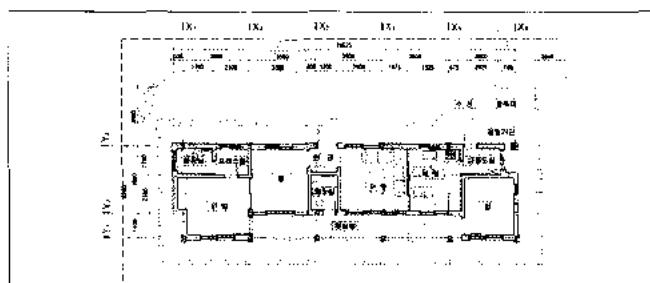
(그림 7) 조형구성단계

이다. 난방의 문제를 현대적인 단열과 밀폐식 창호로 보완하고 대부분의 평면을 흘결로 구성하였다. 한기와 채광의 기능적 장점은 물론, 농촌에서 대청 중식의 평면은 흘결의 평면구성의 장점에 기인한다.

일제시대 때에 건축가 박길용은 그 당시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소위 문화주택이라 평면구성을 주장한다. 일본식의 주택에 영향을 받은 그와 같은 주장에 따라 당시 경성에 많은 개량화된(?) 문화주택이 보급되었다. 이 문화주택(집중식 배치주택)은 겹집 혹은 내부 복도식 구성을 하고 있고 현관을 포함하고 있다. 아마 지금은 너무나도 일반화되어 있는 현관의 원형이 아닌가 한다. (1933, 박길용, 재래식주거개선에 대하여- 2008, 손영민, 한국근대도시주거 평면변천에 주거사상에 관한 연구에서 재인용)

전통적인 우리의 주택에서는 외부 공간 즉 마당은 농촌 생활의 중심이고 마당은 대청마루와 직접 면한다. 우리의 마루는 주택의 열린 입구이다.

이번 농촌 주택에서는 평면 구성에 있어서 마루 진입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았다. 현관은 일종의 뒷문으로서 겨울철에 제한적인 사용을 위한 공간으로 보조적으로 고려하였다.



(그림 8) 평면도

〈처마와 서까래〉

지붕 구성을 위한 구성 부재로서 서까래는 전통적인 구법의 핵심이고 아직까지도 경제적이고 실용적이며 현대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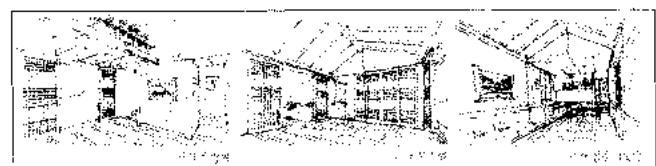
근대학의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는 얻은 것도 많지만 잊어버린 것도 많다. 일어버린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주택, 바로 집에 대한 존중이다. 마음에서 집을 짓는 일은 가장 중요하고 큰일이었다. 모두가 품앗이를 하고 기술적인 조언과 역사적인 고증에 참여해서 집을 짓는다. 위치와 방위를 잡는 지관이 참여하고, 성주신을 모시는 제사를 지내고 집의 곳곳에 자리를 잡게 되는 영험한 귀신들에 고수례를 한다. 재목을 구하고 대목과 목수가 나무를 다듬고, 조립하고 등등.

산세와 전망을 우리 선조들만큼 누가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싶다. 그

런 것이 한 채, 두 채, 산을 배경으로 옹기 종기 모여 살게 되면서 전통적인 마을의 경관이 생겼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의 시골은 볼나면 그 연기로 사람이 질식되는 싸구려 단열재로 만든 샌드위치 패널로 이틀이면 집이며 공장이며 창고를 나 짓어버린다. 그러나 집은 문화적인 표현이며 그것들이 모여서 마을의 모습과 품격을 만들고 기분 좋은 풍광과 걷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장소를 만든다.

이번 용역에서 서까래와 처마는 구법의 중요성을 표현하면서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표준도면에 포함된 것이다.

지붕의 중요한 구조재인 목조의 서까래는 마루와 같은 주택공용공간에서는 경사면을 그대로 살려서 연등천정으로서 서까래의 구조를 드러내도록 설계되었다. 그에 맞추어서 내부의 인테리어도 한옥을 기본으로 한 공간과 부재로 구성되도록 계획하였다.



(그림 9) 설내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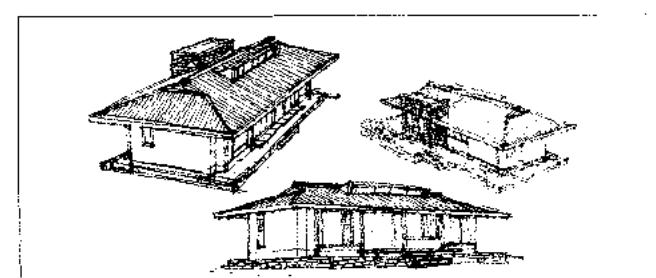
〈경사지붕과 합각지붕〉

주택에서 암면 즉 오관의 기둥의 표현이 농촌 경관 주택의 중요한 조형요소이지만 전통적인 물마을을 가진 경사지붕의 조형성이야말로 아우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규모와 건물의 쪽에 따라 전통적인 건물의 지붕의 물매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3/8 정도의 물매를 자료를 통해서 찾았다.

지붕의 끝부분에는 나무가 외부로 드러난 수평홈통을 달았다.

또한 이번 표준도에서는 앞뒤로 물매가 있는 바공지붕과 사면이 모두 물매있는 합각지붕을 기본형으로 삼았다. 현대 주택에서 합각지붕은 좀처럼 조형미를 만들어 내기 어려운 형태 중에 하나이다. 그렇지만 지금 농촌에 남아있는 많은 슬레이트나 철판 지붕의 개량 주택은 대부분 합각지붕으로 되어있고 그 지붕의 군집이 우리 농촌의 풍광이다. 새로 지어지는 표준도를 활용한 주택이 하나 둘씩 그 마을에 보급되더라도 조화롭고 자연스러워야 할 것이다.

경사지붕의 단면상 내부 공간은 일부 유형의 경우 다락방을 설치하고 공간의 활용과 채광을 위하여 들판을 설치했다.



(그림 10) 외관 스케치

〈절충식 지붕-평지붕과 경사지붕의 조합〉

합각지붕을 가지고 현대 주택의 조형을 만드는 일 만큼 어렵고 힘들었던 것이 평지붕을 일부 도입하는 문제였다. 혹시 마당이 좁고 작업장이나 건조장을 다로 공간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농촌주택에서 지붕을

단순히 조형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만 경관을 중요시하는 농촌주택으로서 평지붕의 적용은 그 조형적인 조화로운 해결책을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설계팀 내부에서도 상당히 의견이 상반되었지만 일부 유형에서 적용하는 정도로 정리했다. 평지붕의 부분은 작업장, 건조장, 장독대, 조망, 휴식 등의 장소로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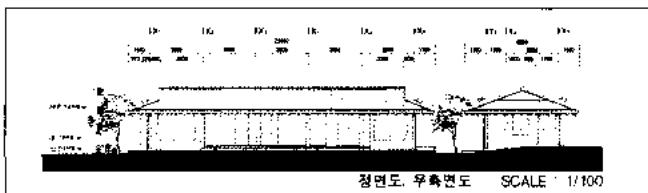
〈화장실과 부엌의 실내와 동시 접근〉

화장실과 부엌은 이미 현대화된 생활양식을 반영하여 완전한 입식의 내부로 계획했다. 일부 평면에는 외부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 화장실과 부엌이 되도록 계획했다. 귀촌 여가형 주택과 취미 생활을 위주로 하는 농촌 주택이 아니라 농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농가의 경우, 외부 일을 하다가 바로 실내로 연결되도록 원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반영하였다.

〈벽체 재료와 모듈의 문제〉

기구식 구조의 주택으로 벽은 구조를 담당하지는 않지만 내부와 외부를 경계하는 구성체로 공법이 쉽고, 경제적이고, 견고한 성능을 가져야 한다. 이번 표준주택에서는 그러한 성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6인치 시멘트블록을 주된 외벽 재료로 선택하였다. 그에 따라 기둥의 간격 즉 모듈도 3,000mm, 3,400mm, 3,800mm를 기본 단위로 사용하였다.

400mm의 블록 크기의 배수에 기둥 크기인 200mm가 포함된 치수이다. 단면 치수도 기본적으로 블록 치수를 기본으로 하여 결정하였다.



〈그림 11〉 입면도

기본형과 24유형의 구성

24 유형으로 구성된 2009농어촌경관주택 표준도는 정부에서 농촌주택 신축시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활용되도록 가급적 연면적 100m² 이하가 되도록 계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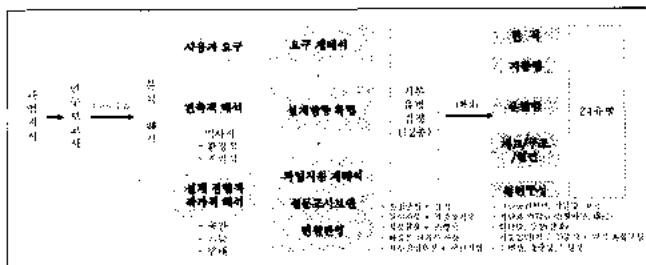
평면 유형의 기본형은 일자두방마루진입팔작지붕형이다. 이름이 조

금 길지만 아파트처럼 단순히 면적 자체가 유형의 이름이 되는 것을 피하면서 실제로 평면과 조형의 특성을 유형의 이름으로 표현한 것이다. 주택 전면에 외부형 뜻마루가 공간을 연결하고 중심에 마루와 부엌이 있어서 좌우의 두 방을 연결한다. 전면은 3,800mm의 4칸으로 되어있고 측면은 4,200mm이 평면 폭으로서 4량집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주택의 확장과 미찬가지로 수평으로 확장되어 일자세방집이 구성된다. 또한 전면으로 돌출되는 거자집과 후면으로 돌출되는 냐자집으로 확장된다. 규모가 조금 커지면서 모자집과 채분리형이 구성된다.

친환경 개념을 도입한 온실부착형이 있고, 복층형의 유형을 추가하였다. 또한 추후 연립으로 구성할 수 있는 유형도 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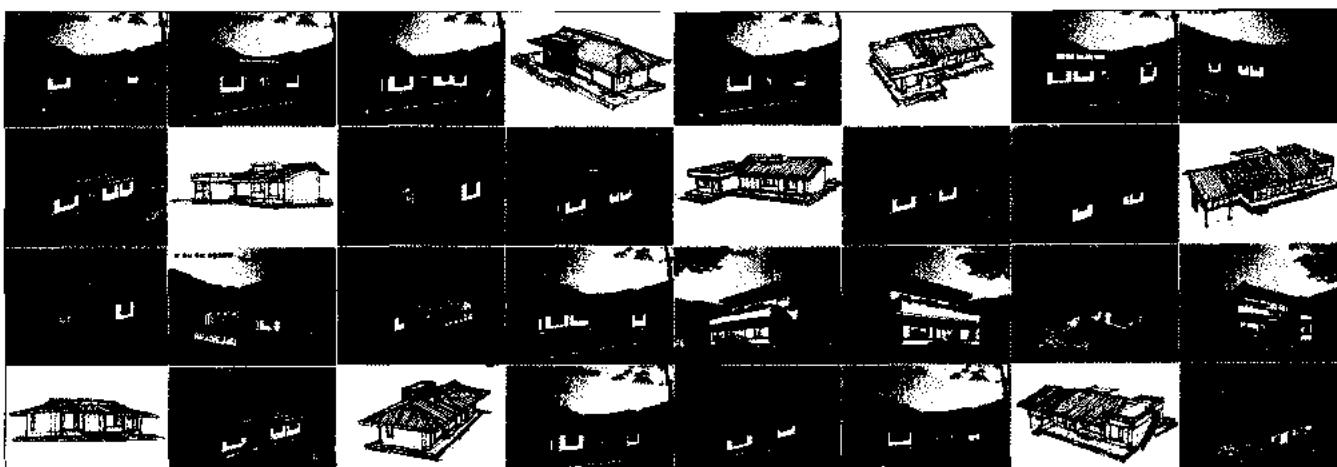
농촌경관주택은 표준도의 작성과 공고 그리고 동사무소에 구비해 놓는 것으로 그리 쉽게 보급되지 않을 것이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고, 무엇보다 건설과정에서의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공업화주택의 단계를 거치면서 표준화는 물론 제조 생산의 단계와 시공하여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각 지역별로 체계화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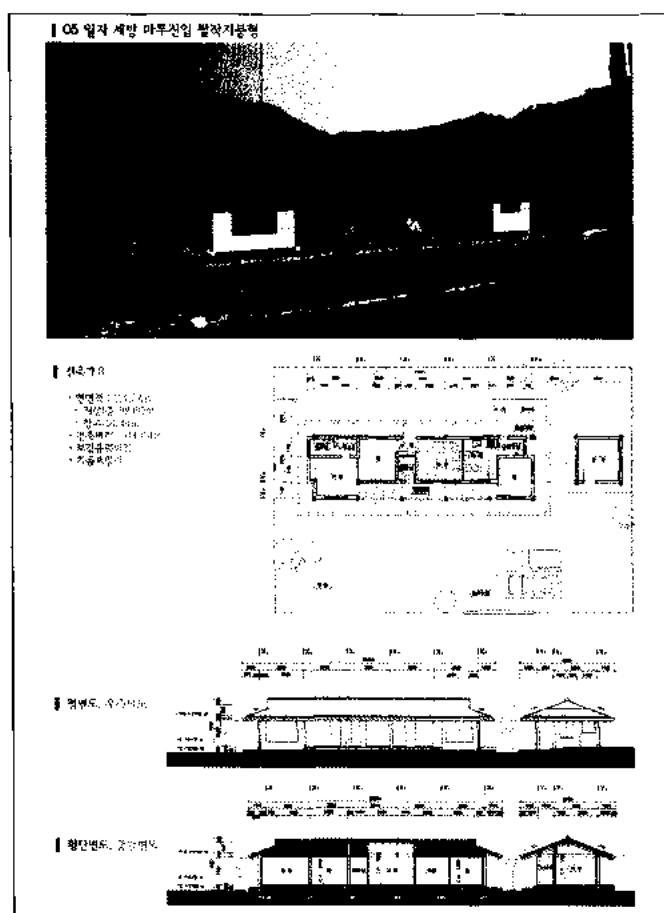
〈그림 12〉 24유형 프로세스

국토하양부와 각 지자체는 농촌 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수한 주택의 보급과 관리를 위해서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를 연구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전라남도의 현대적인 한옥 보급사례가 그 시범사례가 될 수 있다. 표준도를 잘 연구하여 작성하고, 경제적인 가격에 지어질 수 있도록 전국적인 시스템을 확보하여 공급하고, 사용자들의 의견과 문제점이 다시 다음 표준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관리체계도 확보해야 한다. 농촌 경관을 위해서는 좋은 표준도의 보급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학계에서의 농촌 경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통하여 기본적인 개념의 정립과 가이드라인의 제정도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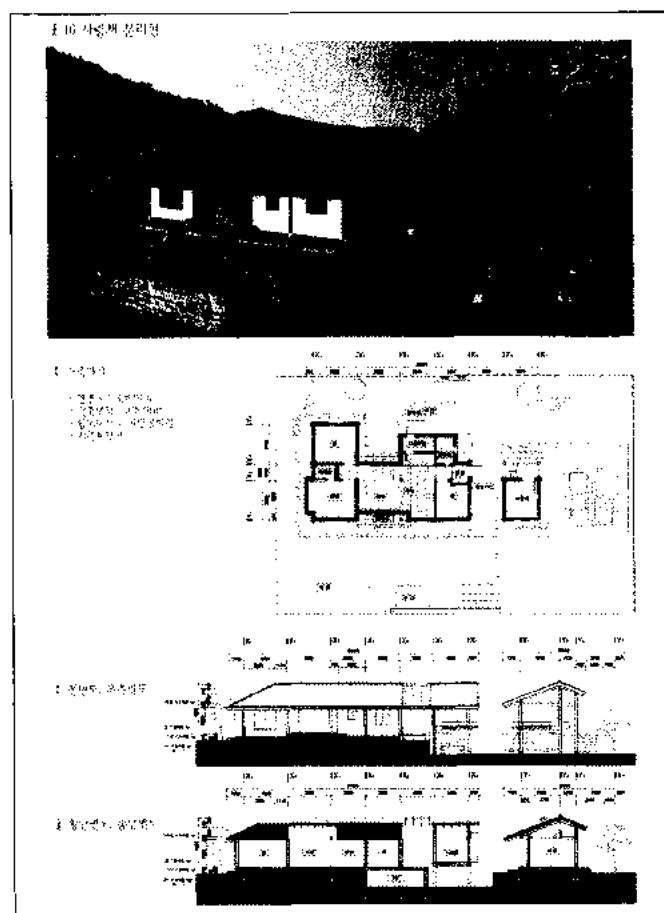
다시 돌아가 살고 싶은 곳, 가보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곳, 주민이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마을이 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이 작업이 그런 과정에 일조할 수 있는 작업이었으면 하고 바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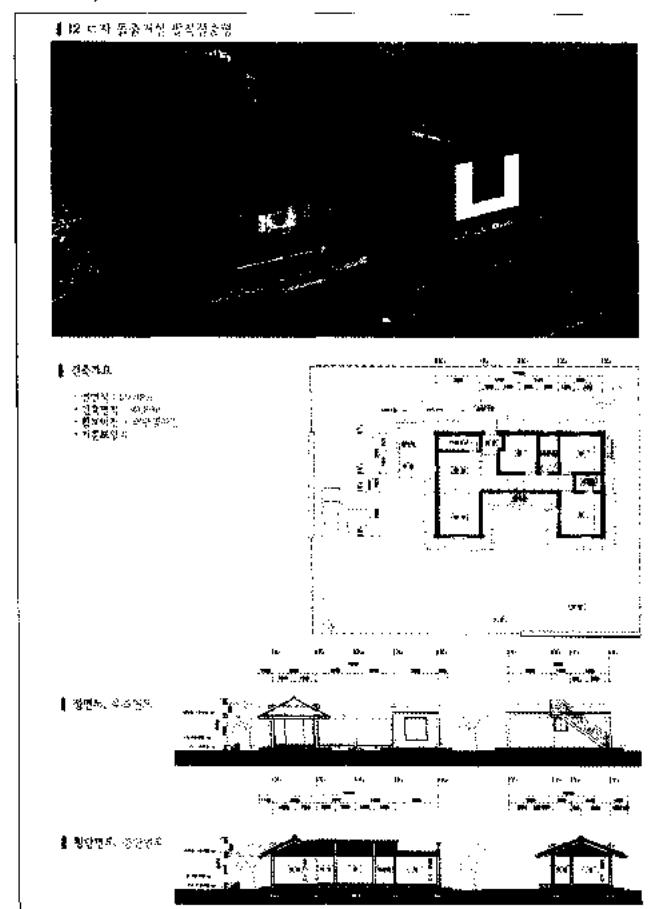
〈그림 13〉 전체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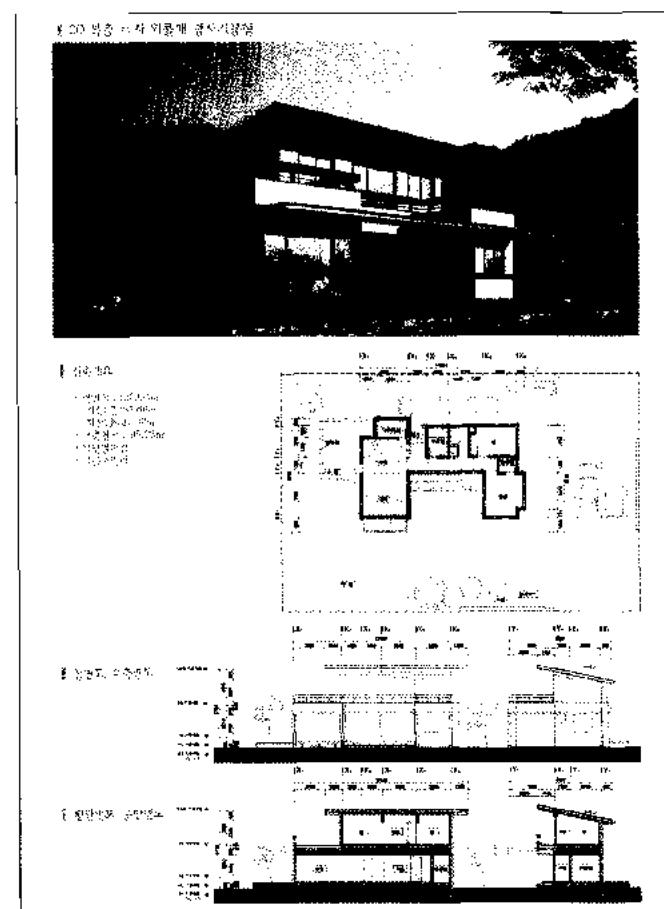
〈그림 14〉 일자세방 마루진입팔작지붕형



〈그림 16〉 사랑채 분리형



〈그림 15〉 디자인 출가실팔작지붕형



〈그림 17〉 복층 디자인 출가실지붕형

승인 후 건축주 임의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 및 관련 자료를 조사한 후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제4회 건축사 지위 향상을 위한 TF팀

제4회 건축사 지위 향상을 위한 TF팀 회의가 지난 10월 30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사회

제11회 이사회

2009년도 제11회 이사회가 지난 11월 11일 오후 2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제1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홍보대사 위촉에 관한 건과 2009년도 제1회 임시총회 결과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의안 : 제1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홍보대사 위촉에 관한 건
 - 제1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사회자 2인 (박시은, 지진희)을 금번 행사의 홍보대사로 위촉하기로 함.
- 제2호의안 : 2009년도 제1회 임시총회 결과에 관한 건
 - 비공개로 자유롭게 논의하기로 함.

위원회 개최 현황

■ 제1회 법제소위원회(내부마감재료)

제1회 법제소위원회(내부마감재료) 회의가 지난 10월 28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1호 :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관련 법령 개선에 관한 건
 - 각 위원이 건축물 내부마감공사가 사용

▲ 협의사항

- 제1호 : 설계발주제도 개선추진에 관한 건
 -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함
 - ① 건축기본법시행령에 건축관련전문가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구분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제7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7호에 건축설계 포함
- 제2호 : 사후설계관리업무에 관한 건
 - 사후설계관리업무에 대한 용어정의의 수정과 건축사 대가기준의 해설서 마련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추진방향 및 계획을 이메일을 통해 협의하여 정리하기로 함

■ 제11회 법제위원회 회의

제11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29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사무소 명칭에 관한 건
 - 동 사업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으로써 법리적인 자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제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업이 아니나 협의사항에서 삭제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설계 발주제도에 관한 건
 - 해당 TF팀은 회장지시 TF팀으로서 오랫동안 심도있게 논의한 정책을 전반적으로 법제위원회에서 자문하기에는 문제가 있는바, 해당 TF팀에서 최종안을 제시하고 그 제시된 내용에 대해 집행부가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세훈 전임회장 별세, 지난 12월 4일 향년 69세로



주요약력

1963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1966~2009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서한 대표
1975~2003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겸임교수
1976~1978	한국항공대학 도시설계 강사
1978	단국대학교 대학원 공학석사
1979~1990	관악구 용산구, 마포구, 영등포구,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
1981~1984	중앙대학교 건축미술학과 강사
1987~1989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1989~1990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부회장
1996~1998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제7대 회장,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1997~1999	시굴특별시 건축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규제개혁 및 민임조시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03~2004	건설교통부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2003~2004	대한건축사협회 제25대 회장

우리협회 제25대 회장을 역임한 이세훈(李世勳) 전임회장이 지난 12월 4일 향년 69세로 별세했다.

故 이세훈 전임회장은 평생 둔안 건축계에 몸 담아 작품활동과 건축사 권익신장에 힘쓰고 원로로 건축사이다. 최근까지도 우리협회 고문직과 대한건축학회 참여이사로 활발히 활동했으며, 서울

특별시건축사회 17대 회장 및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겸임교수, 건설교통부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등 평생 후학양성과 건축계 발전에 헌신하였다. 지난 12월 6일 서울상도병원(前 강남성모병원)에서 거행된 영결식에는 우리협회 최영집 회장을 비롯해 임즈원, 가족 등 50여명이 참석해 엄숙하게 진행했다. 고인의 호박고 농장이자 50년 지기

인 하종용(하원여고, 영상고 교장 역임)씨의 조사가 있었으며, 최영집 회장은 영결문에서 “故 이세훈 고문이 후배들에게 준 가르침을 바탕으로 건축문화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지는 남양수 선산이다.

■공제사업제2소위원회(4차)

공제사업제2소위원회(4차) 회의가 지난 11월 19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보증 · 용자 약정 및 담보물 관련 협의
- 보증 · 용자 약정 및 담보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함.

■제10회 정책위원회

제10회 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27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협력업체 업역 조율과 수입구조 개선(안)
- 건축사의 업역 조율(coordinate) 업무를 전문화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대

가 없는 책의 구조를 개선하여 건축사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고, 회원의 수익구조 개선에도 노력을 주고자 ‘협력업체 업역 조율과 수입구조 개선(안)’ 사업을 제안함

- 제2호 : 발주제도 관련 정책위 대응방안에 관한 건
- 협력업체 업역 조율과 수입구조 개선(안) 사업을 바탕으로 2010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작성

이 날 행사에는 우리 협회 최영집 회장을 비롯 대한건축학회 손장열 회장, 한국건축가협회 이상우 수석부회장 등 30여명의 건축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김의원을 축하했다.

김의원은 “아마도 건축을 아끼는 사람 중국 회의원이 된 것은 본인이 처음이라고 본다. 건축문화발전을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입을 열 것이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며 “그렇기 위해서는 건축계 인사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영집 회장, 김진애 의원 국회 등원 기념 모임 참석

우리협회 최영집 회장은 지난 11월 17일 하이앳 호텔에서 개최된 김진애 의원(민주당) 국회 등원 기념 모임에 참석했다.



우리협회 최영집 회장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지





난 11월 19일 오후 2시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건설산업 청렴 결의대회'에

서 주요 참석자들과 업계 자정 의지를 다졌다. 이날 행사는 건설업체의 비리가 업계 전체 이미지를 흐리지 않도록 업계의 자정노력을 통해 부정·부패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우리협회에서는 최영집 회장과 임직원이 참석했으며, 권홍사 건단련 회장과 이재오 권의 위 위원장을 비롯해 건설 관현단체장과 주요 건설사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건설업계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건설산업

청렴실천 결의문(전문 참조)'을 발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세부 실천사항으로는 불법행위 근절 및 공정경쟁 정착, 입찰가격 협정·담합 금지, 건설 기업·근로자 간 상생협력, 덤픽 수주 지양, 적정 공사비 확보 및 안전시공, 윤리경영,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 등을 채택했다.

권홍사 건단련 회장은 대회사에서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공사수주와 관련된 금품수수나 비자금 조성 등 불법행위를 뿐만 아니라 경쟁을 해치는 담합·dump 수주를 없애 업계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결의대회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개토론회'와 건단련 주관 '건설업계 대표 간담회'가 개최됐다.

제13회 한·중·일건축사협의회 참가



회의록 서명을 마친 3단체 대표_왼쪽부터 최영집 회장, 왕부첨 NABAR 회장, 와타나베 사다오 일본건축사회연합회 이사

한국, 중국, 일본 건축사단체의 연례행사인 제13회 한·중·일건축사협의회가 지난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중국건축사등록관리위원회(NABAR)의 주최로 중국 장시성 징강산시에서 개최됐으며, 우리협회에서는 최영집 회장을 대표로 11인이 참가했다. 24일에 개최된 건축사실무핸드북위원회에서는 각 국의 건축사 업무범위, 외국건축사의 법적지위, 업무대가기준, 외국건축사와 국내건축사간 업무범위 설정에 관한 정보교환 및 토론이 있었다. 우리협회에서는 이근창, 김성민, 최재희 국제위원이 자료준비와 토론을 담당했으며, 국토해양부 최종화 주무관을 비롯한 각 국의 정부 측 담당자를 또한 참석해 삼국 간, 민·관 간의 입체적인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25일에는 한·중·일건축사협의회의 본 회의가 개최되어 각 국의 APEC등록건축사 프로젝트 추진현황(담당: 신축규 이사)을 점검

건설산업 청렴실천 결의문 (전문)

우리 건설산업은 지난 60여년간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고, 사회 기간시설 건설과 주택공급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을 뿐 아니라, 해외건설수주를 통해 국위를 선양해 왔다.

그러나 국가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건설업의 성장세는 둔화되는 반면 건설업체수는 급증하여 건설시장내 수주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기업과 건설인들이 수주과정에서 공정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경우도 있어, 건설업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다.

또한, 과도한 경쟁은 저가수주로 이어져, 많은 건설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건설업계는 다음과 같이 솔선수범하여 대처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문화를 기구고, 저가낙찰을 지양하며, 나아가 건설산업과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 우리는 건설공사 수주 및 시공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일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문화가 정착되도록 한다.

- 우리는 입찰자간에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하지 않는다.

- 우리는 건설기업과 건설근로자가 협력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우리는 공사의 품질과 기업의 채산성을 무시한 채 헐값에 공사를 수주하는 이른 바 'dump수주'를 지양 한다.
- 우리는 부실자재나 미숙련 노동력 사용에 따른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공사비 확보와 안전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우리는 입찰 및 시공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을 해하거나 사회적 정서에 어긋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경영을 통해 상시 노력한다.
- 우리는 친환경 공법·자재 사용 및 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4대강 살리기'와 같은 환경복원·재생사업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건설산업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이바지한다.

우리는 싱기 선언이 실효성있게 실천되도록 단체별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건설업자간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전 건설업계의 윤리의식 정착과 청렴정신 확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2009년 11월 19일
전국 200만 건설인 일동

하고, 등록건축사 관련 법령 및 제도(담당: 여구호, 민규암 국제위원)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교환하는 등 실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국토해양부의 웹기반 건축행정 시스템인 세울터의 소개 및 시연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차기 회의의 개최는 2010년 가을 대한민국 광주광역시로 제안하여 중, 일 대표단이 동의하였으며, 신정철 광주건축사회장의 환영연설과 함께 협의회는 마무리됐다. 오후에 개최된 건축세션은 현지 건축사 및 건축학도들에게 공개되었는데, 우리 대표단의 이근창 국제위원(주. 엔드레이)과 진린(주)아키플랜 실장이 각각 “한국의 현대 건축”, “신도시 개발과 그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하여 현지 건축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6일 다오위엔구촌 견학과 환송모친을 끝으로 3일간의 행사는 성공리에 종료됐다.

충청남도건축사회 신우식 회장, 충남개발공사 이사 취임



충남개발공사 임원 추천위원회는 전국 공모를 통해 비상임이사에 지원한 총 21명에 대한 서류심사를 거쳐 8명의 후보자를 충청남도에 추천했으며, 신우식 충남건축사회 회장이 충남개발공사의 비상임이사 4명 중 1명으로 최종 선임됐다.

2009년도 하반기 협회발전 워크숍 개최



우리협회는 지난 12월 7, 8일 양일 간 강원도 양평에 위치한 대명 쏠비치에서 ‘2009년도 하반기 협회발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협회 임원을 포함한 시도건축사회장 및 각 위원회 위원장, 시도 사무국장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시도건축사회 및 본

협회 2009년 주요사업 추진실천보고, 분임토의 등이 개최됐다.

먼저 전국 16개 시도건축사회의 2009년 주요사업 추진실천보고에서는 지역 건축문화발전과 건축사의 위상 제고, 불합리한 제도개선, 다양한 행사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으며, 본 협회 각 위원회의 2009년 추진실천 보고에서는 13개 상설위원회와 9개 비상설위원회가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분임토의에서는 4팀으로 나눠 각각 진행됐고, ‘2009년도 실천 계획의 이행실행에 대한 평가의견’, ‘2010년 실천계획(안)에 대한 수정·보완 사항 및 초기 과제’, ‘건축사 단체 통합 관련 가협회 성명서에 대한 의견 및 협회의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됐으며, 분임토의에 대한 팀별 결과보고 순서와 각 시도 건축사회 및 위원회 사업보고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와 평가가 있었다.

2009 FIKA 송년회 개최



한국건축단체연합(FIKA)의 ‘2009 송년회’가 지난 12월 11일 서울 동팔리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협회 최영진 회장을 비롯해 한국건축가협회 김창수 회장, 대한건축학회 손장열 회장,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정명원 위원장 및 각 단체 임원 100여명이 참석해 다시다난했던 2008년 건축계의 한해를 마감하며 자축하는 시간을 가졌다.

2009 하반기 대한건축사협회 등산동호회 등산대회 개최



2009년 하반기 전국건축사 등반대회가 지난 11월 14일 전남 장성에 위치한 내장산 국립공원 자락인 백암산에서 열렸다.

대한건축사협회 등산동호회가 주관하여 개최한 이번행사에는 전국 11개 시도에서 200여명이 참석하여 ‘친환경 건축을 선도하는 건축사’란 주제아래 ‘미래의 주택, 살고 싶은 주택을 그려 보세요’ 행사를 개최, 백암사 관광객 및 신행에 참여한 등산객들에게 건축사를 홍보했다.

이밖에도 기념품 추첨 및 정기총회 개최하여 전국 회원 상호간의 끈끈한 유대를 다지기도 했다.

경상북도건축사회, 명품청사 건립전략 포럼 개최



경상북도건축사회(회장 박재웅)는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지난 11월 12일 호텔 인터불고 아이리스홀에서 ‘공공청사의 뉴-패러다임(New-Paradigm)’ 이란 주제로 ‘명품청사 건립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한성 국회의원(한나라당)을 비롯해 경북건축사회 박재웅 회장, 도관계자, 시·군 공무원, 건축사 등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기조강연은 김연중 사무관(행정안전부)이 ‘자치단체 청사건립 정책방향’ 이란 주제로 ‘호화·과대청사 신축 억제대책’, ‘친환경에너지절약 청사 건립’ 등에 대해 발표했으며, ‘서울시 신청사 건립사례’라는 주제로는 박성근 서울시 문화시설사업단장이, ‘신청사 건립 구상’ 주제로는 남택진 경북도청 도청이전추진단장 등이 발표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장애물 없는 공공청사 만들기_건국대학교 강병근 교수’, ‘명품청사를 위한 CM제도 활용의 특성_제명대학교 신규철 교수’, ‘공공청사의 그린화_에너지관리공단 김대룡 실장’, ‘유비쿼터스 시대의 공공건

축_KT중앙 연구소 이재욱 연구원', '미래를
짓는 오늘의 건축 디자인_경일대학교 협력수
교수' 등 다양한 발표가 이어졌다.

한편 이번 기조강연 및 주제발표내용은 도청
사신축 시 적용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청
사건립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충청남도건축사회, 공무원과의 간담회 개최



충청남도건축사회에서는 지난 11월 17일 충
남 보령시 웅천읍 소재 비체팰리스 콘도미니엄
에서 충남건축사회 소속 임원 30여명과 충남
도청 및 시군청의 사설 사무관 10여명이 건축행
정 전반에 걸친 간담회를 가졌다.

신우식 회장은 인사말에서 "건축행정, 불합
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업무의 효
율성과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자"고 밝
혔다.

이날 간담회의 주요내용은 적법한 건축인허
가 신청 시의 소수 민원의 이유로 보완요구 사
항의 개선방향 제시, 세움터 운영에 따른 개선
방향, 자구단위계획과 건축조례 및 주차장조
례의 불일치 사례, 2개 시에 걸친 신도시 개발
에서의 건축적용기준이 상반되는 사례, 건축
허가전의 현장조사업무 대행 확대 문제 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

김창현 건축도사과장은 건의사항이나 애로
사항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여
최대한 건축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
겠다는 약속과 함께 건축사의 행정처분 요구
가 대폭 감소할 수 있도록 업무에 단점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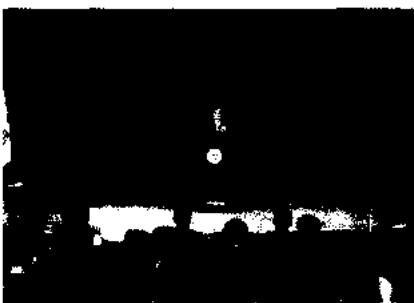
충청북도건축사회, 부동산개발 사전교 육 신청

충청북도건축사회(회장 구창서)는 한국부동
산개발협회에서 시행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
력 사전교육과 관련하여 건축사 회원의 편의
를 제공하기 위해 출장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일자는 2010년 1, 2월 중 주2회(8시간)
4주 교육으로 진행되며, 청주시내에서 열릴
예정이다. (장소는 현재 미정)

• 문의 : 충북건축사회 043-223-3084~6

'충북건축문화 발전세미나' 개최



충청북도건축사회는 지난 12월 4일 충북대
학교 개신문화관에서 '2009년도 충북건축문
화발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건축사를 비롯해 건축공무
원, 교수, 학생 등 210명이 참석했으며, 충북대
학교 박영운 교수와 (주)정립건축 정용교 건축
사가 '친환경 건축물의 접근과 이해'란 주제
로 발표를 진행했다.

건축계소식

갤러리 서미, 'Architecture & Design: Technical Object' 전

갤러리 서미에서는 건축사가 디자인한 소파,
벤치, 테이블 등으로 생활공간을 재연하여 공
간을 설계했던 건축사들의 감성과 미학을 함
께 호흡해 볼 수 있는 'Architecture &
Design: Technical Object' 전을 개최한다.

오는 12월 28일까지 서울 청담동갤러리 서
미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건축사와 디
자이너가 디자인한 독립적인 오브제로서의 의
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로 '비트라 서울'
의 지원을 받아 기획된 유명 건축사 프랭크 게
리, 미스 반 데어 로에, 르 코르뷔제 등이 설계
한 가구작품의 미니어쳐가 전시된다.

주요 전시작은 미스 반 데어 로에, 샤를로트
페리앙, 오스카르 니에메예르, 지오 폰티, 토
비아 스카르파 & 아프라 스카르파 부부의 작
품이다. 그들은 가구를 통해 건축에서 표현할
수 없었던 인체공학적인 설계와 자유로운 디자
인을 시도하였고, 형태와 기능의 진부함을 넘
어서 생활가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시간을 초월하여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
는 모더니즘 건축사들의 가구 작품을 더 깊이
관찰할 수 있는 이번 기회는 20세기 초 그들
이 추구했던 시대정신과 실험성이 현재 우리
의 삶과 공간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
리고 어떠한 예술적 가치로서 평가받을 수 있
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이다.

• 문의 : 02-511-7305, www.seomituus.com

KCC, 이맥스 클럽 신규 회원사 조인 식 개최



축_KT중앙 연구소 이재욱 연구원', '미래를
짓는 오늘의 건축 디자인_경일대학교 협력수
교수' 등 다양한 발표가 이어졌다.

한편 이번 기조강연 및 주제발표내용은 도청
사신축 시 적용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청
사건립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충청남도건축사회, 공무원과의 간담회 개최



충청남도건축사회에서는 지난 11월 17일 충
남 보령시 웅천읍 소재 비체팰리스 콘도미니엄
에서 충남건축사회 소속 임원 30여명과 충남
도청 및 시군청의 사설 사무관 10여명이 건축행
정 전반에 걸친 간담회를 가졌다.

신우식 회장은 인사말에서 "건축행정, 불합
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업무의 효
율성과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자"고 밝
혔다.

이날 간담회의 주요내용은 적법한 건축인허
가 신청 시의 소수 민원의 이유로 보완요구 사
항의 개선방향 제시, 세움터 운영에 따른 개선
방향, 자구단위계획과 건축조례 및 주차장조
례의 불일치 사례, 2개 시에 걸친 신도시 개발
에서의 건축적용기준이 상반되는 사례, 건축
허가전의 현장조사업무 대행 확대 문제 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

김창현 건축도사과장은 건의사항이나 애로
사항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여
최대한 건축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
겠다는 약속과 함께 건축사의 행정처분 요구
가 대폭 감소할 수 있도록 업무에 단점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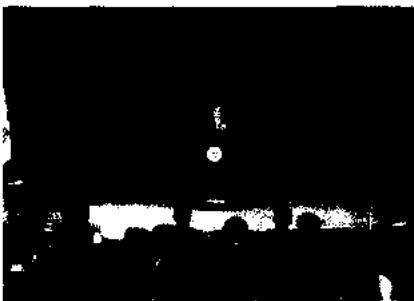
충청북도건축사회, 부동산개발 사전교 육 신청

충청북도건축사회(회장 구창서)는 한국부동
산개발협회에서 시행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
력 사전교육과 관련하여 건축사 회원의 편의
를 제공하기 위해 출장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일자는 2010년 1, 2월 중 주2회(8시간)
4주 교육으로 진행되며, 청주시내에서 열릴
예정이다. (장소는 현재 미정)

• 문의 : 충북건축사회 043-223-3084~6

'충북건축문화 발전세미나' 개최



충청북도건축사회는 지난 12월 4일 충북대
학교 개신문화관에서 '2009년도 충북건축문
화발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건축사를 비롯해 건축공무
원, 교수, 학생 등 210명이 참석했으며, 충북대
학교 박영운 교수와 (주)정립건축 정용교 건축
사가 '친환경 건축물의 접근과 이해'란 주제
로 발표를 진행했다.

건축계소식

갤러리 서미, 'Architecture & Design: Technical Object' 전

갤러리 서미에서는 건축사가 디자인한 소파,
벤치, 테이블 등으로 생활공간을 재연하여 공
간을 설계했던 건축사들의 감성과 미학을 함
께 호흡해 볼 수 있는 'Architecture &
Design: Technical Object' 전을 개최한다.

오는 12월 28일까지 서울 청담동갤러리 서
미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건축사와 디
자이너가 디자인한 독립적인 오브제로서의 의
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로 '비트라 서울'
의 지원을 받아 기획된 유명 건축사 프랭크 게
리, 미스 반 데어 로에, 르 코르뷔제 등이 설계
한 가구작품의 미니어쳐가 전시된다.

주요 전시작은 미스 반 데어 로에, 샤를로트
페리앙, 오스카르 니에메예르, 지오 폰티, 토
비아 스카르파 & 아프라 스카르파 부부의 작
품이다. 그들은 가구를 통해 건축에서 표현할
수 없었던 인체공학적인 설계와 자유로운 디자
인을 시도하였고, 형태와 기능의 진부함을 넘
어서 생활가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시간을 초월하여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
는 모더니즘 건축사들의 가구 작품을 더 깊이
관찰할 수 있는 이번 기회는 20세기 초 그들
이 추구했던 시대정신과 실험성이 현재 우리
의 삶과 공간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
리고 어떠한 예술적 가치로서 평가받을 수 있
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이다.

• 문의 : 02-511-7305, www.seomituus.com

KCC, 이맥스 클럽 신규 회원사 조인 식 개최



KCC는 지난 10월 27일 서울 역삼동 리조칸 트 호텔에서 '이맥스 클럽(E-MAX CLUB)' 신규 회원사 조인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조인식에서 7개 업체가 신규 회원사로 등록됨으로써 KCC 이맥스 클럽은 총 42개 회원사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번에 가입한 신규 회원사는 (주)씨지앤티코, 글로벌산업, 경남 유리, 태영산업, 동경창호, (유)동광유리산업, 범일유리 등이다.

KCC 이맥스 클럽은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로 미래의 복층유리 시장을 이끌어 나간다는 취지로 출범하게 된 복층유리 가공 네트워크이다. 그동안 국내 판유리 시장에서 복층유리의 브랜드화를 통해 기능성 유리 시장을 확대하고, 지금 수입유리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국내 복층유리 시장을 한층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을 얻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가입한 회원들도 엄격한 품질심사를 통해 선발된 정예 업체들로 지금까지 KCC 이맥스 클럽이 이르어낸 성과 이상의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KCC, 단열재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진공단열재’ 출시 예정



KCC는 2010년부터 강원도 분양공장에서 건축용 및 가전용 진공단열재 제조설비를 설치해 ‘진공단열재’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진공단열재란 기밀성을 갖는 봉지자에 심재를 넣고 내부를 진공 상태로 처리한 것으로 기존 단열재 대비 5~10배 이상 단열 성능이 우수한 제품이다. 진공단열재는 일반적으로 심재, 외피재, 가스 흡착재로 구성된다.

심재는 내부 진공 시 외피재를 지지해 형태를 유지하고, 일부 남아 있는 가스 분자의 이동을 방해함으로써 열 전달을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보통 Glass Wool, PU Form, Fumed Silica 등이 소재로 사용된다.

외피재는 진공단열재의 내부 고진공 상태와 외부형태 유지를 위한 충분한 차단 성능과 강도를 지녀야 하므로 주로 Al-Foil 다층구조 필름을 사용한다.

가스흡착제는 심재와 같이 진공 포장되어 심재에 남아 있는 가스와 수분을 흡착하여 더욱 더 고진공화 하고, 장기 사용에 따른 외부 침투 가스와 수분을 흡착하여 내부 진공도를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단열 성능 저하를 방지한다. 주성분은 성석회(CaO)이며 기타 금속 성분(Cobalt, Barium, Lithium 등)이 첨가되어 있다.

진공단열재는 단열 성능이 우수해 가전용으로 적용 시 약 20~30% 정도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건축용으로 적용하면 적용 면적이나 적용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최대 50% 이상의 에너지 절감도 가능하다. 이뿐 아니라 고효율성으로 인한 단열 두께가 얇아지므로 사용 공간이 넓어진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콘크리트에 진공단열재를 부착하고 진공단열재 보호용으로 그라스울을 부착함으로써 단열 성능은 증대되며, 미감건식벽체 시공을 우한 스텐드 설치 후 셧고보드로 마감하면 건축용 진공단열재 시공이 원활된다.

가전·건축용으로 적용되는 단열재는 긴 시간에 걸쳐 사용되므로 진공단열재와 같은 고 효율의 제품을 적용하면 에너지 절감 효과는 매우 률 수밖에 없다. 또한 탄소 배출권에 대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최근 국제 정세를 감안할 때 진공단열재를 활용한 저에너지 소비 제품은 환경적으로 우익하고 지속 가능한 장점이 있으므로 향후 단열재 시장을 주도 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그러므로 진공단열재가 상용화되고 시장에 널리 파급된다면 기존 단열재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문의 : KCC 고객상담실 080-022-8200, <http://www.kccworld.co.kr>

에이펙스 와인셀러 국내 상륙

세계 최고의 와인셀러 브랜드 에이펙스 와인셀러(Apex Wine Cellars)가 국내 첫 선을 보였다.

에이펙스 와인셀러는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둔 전 세계에 커스텀 와인셀러를 공급하는 미



국 최대 규모의 셀러 전문 브랜드로서 100년 이상의 가치와 품질이 돋보이는 다양한 맞춤형 디자인을 선보이는 커스텀 와인 셀러이다.

에이펙스 와인셀러는 주문에서부터 설치까지 철저한 소비자 컨설팅을 통하여 소비자 취향과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된 셀러를 디자인하고 제작한다. 오크와 월넛, 리본 샤플러 등 최고의 원목을 핸드 크래프트 방식으로 제작하여 정통성을 살리면서도 고급스러움을 부가하였다. 특히 20여 년간 개발하여 완성한 셀러텍 쿨링 시스템CellarTec Cooling System은 셀러에 대한 노하우를 집약한 시스템의 결정체로서, 최적의 와인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끊임없이 숙성되는 와인의 특성에 맞춰 설계된 시스템이다.

에이펙스 와인셀러는 32가지 콜렉션으로 되어 있다.

최고급 단계인 시그니처 콜렉션(Signature Collection)은 와인메이커 시리즈(Winemaker Series)와 토스카나 시리즈(Tuscan Series), 캠브리지 시리즈(Cambridge Series)로 되어 있다. 이중 와인메이커 시리지는 에이펙스의 최상급 모델로서 화이트 오크(white oak)를 기본 목재로 사용하여, 실제 5년 이상 사용된 오크통을 이용해 제작한다.

두 번째는 클래식 콜렉션(Classic Collection)으로,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설치된 에이펙스의 대표적인 셀러이다.

세 번째는 락커 셀러(Locker Cellar)이다.

락커 셀러는 타운 하우스, 골프장 클럽하우스, 맴버십 와인하우스 등에 설치된 개인·업무용 와인 락커 셀러로 새로운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강남구 신사동에 오픈한 강남 전시장에서 전세계 누호들이 선택한 고품격 와인 셀러를 만날 수 있다.

- 문의: 02-514-9405

www.apexcellar.co.kr



건축마당
보고서
report

• 제13회 한·중·일
건축사협의회 대한건
축사협회 참가보고서

제13회 한·중·일건축사협 의회 대한건축사협회 참가보 고서

Conference Report : The 13th China, Japan, Korea Registered Architects Organizations Meeting (November 2009, Jinggangshan Jiangxi China)

풀었다. 이후 일정은 24일(화)에 제1회 한중 일건축사실무핸드북위원회와 환영만찬, 25 일(수)에는 제13회 한중일건축사협의회, 26 일(목)에는 달오위엔 구촌 건축물 견학 및 환송오찬으로 진행되었다.

각국의 대표단은 다음과 같다.

- 중국건축사등록관리위원회(NABAR of P.R.C.) : 11인

Wang Suqing²⁾(NABAR 회장), Chen Zhong(중국 주택도농개발부 건설시장감독국 국장), Zhao Chunshan(주택도농개발부 건축사자격등록센터 회장), Cui Kai(NABAR 부회장), Xiu Lu(주택도농개발부 건축사자격 등록센터 부회장), Chen Bo(주택도농개발부 건설시장감독국 과장), Wan Bin(주택도농개발부 건축사자격등록센터 과장), Zhang Baiping(중국건축학회 사무처장), Cai Chen(주택도농개발부 건축사자격등록센터 직원), Yao Tang(초청연사, 난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Zhang Li(초청연사, 칭화대학교 건축대학 부교수)

- 일본건축사회연합회(JFABEA) : 10인

- Watanabe Sadao(JFABEA 이사), Yanagawa Harufumi(국제위원), Sakurai Yasuyuki(국제위원), Hayakawa Fumio(국제위원), Iwata Sako(초청연사, 회원), Shimizu Koichiro(회원), Yamanaka Yasunori(전무이사), Hino Yasuhiko(일본건축교육정보센터 보급부장), Kono Akiko(일본건축교육정보센터 직원), Zhou Hui(통역/상해 일건설계 직원)

참가개요

지난 2009년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 간에 걸쳐 주최국 중국의 장시성(江西省) 징강산시(井岡山市)에서 제13회 한·중·일 건축사협의회¹⁾가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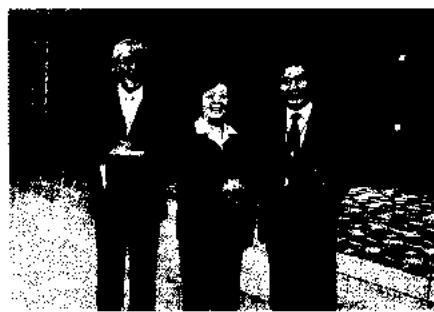
한·중·일건축사협의회는 1997년 1월에 대한건축사협회와 일본건축사회연합회 그리고 중국건축사등록관리위원회가 교류협정을 체결한 이래로 매년 주최국을 바꿔가면서 13회에 이르게 되었으며, 시장개방에 대비한 건축사 자격의 상호인정과 각국의 건축계 주요 관심사를 한·중·일 3국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이다.

금번 협의회는 당초 8월 중 우루무치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신종플루의 창궐로 1차 연기되고, 우루무치 현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장시성 징강산시로 최종 확정되었다.

한국과 일본 대표단은 11월 23일 오후 장시성의 성도인 난창시에 도착하여 중국 측의 환영을 받았다. 이후 4시간 30분간의 버스 여행 끝에 '중국 혁명의 요람'으로 불리는 징강산에 당도하여, 징유웬 호텔에 여장을



환경만찬



환경만찬 중 신동교환 와타나베 사다오 이사, 황수창 회장, 최경길 회장

1) 각 회의 명칭 중 국가명은 당해년 개최국 - 전년 - 차년 순이나, 본고에서는 편의상 '한·중·일' 순으로 표기함.
2) 영문 성명이나 한·중·일 3국의 성명 표기방식을 따라 성-이름 순으로 표기함.

• 대한건축사협회(KIRA) : 총 11인

- 최영집(회장), 신춘규(이사), 신정철(광주 광역시건축사회 회장), 이근창(국제위 전문 위원), 최재희(국제위 전문위원), 김성민(국 제위원), 민규암(국제위원), 여구호(국제위 원), 진린(초청현사, 주.아키플랜 도시·단지 설계연구소 실장), 오세령(국제협력팀 대리), 정부인사: 최종화(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주무관)

11월 24일 화요일에 개최된 제1회 한·중·일 건축사실무핸드북위원회에서는 건축사 업역, 외국건축사 법적지위, 업무 대가기준에 관한 각국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향후 3년간 자료를 수집하여 2011년에 개최될 제3회 위원회 이후 핸드북을 출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한·중은 일본이 핸드북 편집을 주도할 것을 제안하였고, 일본은 검토 후 회답하기로 하였다.

이어 25일 수요일에 개최된 제13회 한·중·일건축사협의회에서는 각국의 APEC 등록건축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본 제도의 틀 안에서 3국간 등록건축사 교류에 관한 협조를 긴밀히 하기로 결의하고, 각국의 건축 관련 최근 법령·제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의회 일정 중 오후에 개최된 건축분야 기술정보 교류세션은 “중간규모 도시·지구 건설”, “특수한 지역 건축디자인”을 주제로 하였으며, 현지 건축사 50여명이 참관하는 등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차기회의는 저에너지 프로젝트를 주제로 2010년 가을 중 광주광역시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한중일 3국 대표의 회의록 서명으로 제13회 협의회가 마무리 되었다.

세션별 발표내용 및 협의결과

제1회 한중일건축사실무핸드북위원회

【 김성민 국제위원 】

▣ 핸드북의 의미 및 금회 토의 내용

지난 2008년 일본 측의 제의로 시작된 핸드북 위원회는 한·중·일 3국의 건축사가 나머지 국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 자

국과 다른 건축 시스템으로 인한 오해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3국의 시스템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핸드북을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핸드북위원회 한국대표

금년이 실질적인 첫 번째 위원회로서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토의하기로 하였다.

- 1)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업무 흐름
- 2) 자국 건축사와 외국 건축사의 업무 범위
- 3) 건축설계비 산정 방법
- 4) 외국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업무
- 5) 건축 허가 절차
- 6) 개발행위 허가 절차

▣ 각국 발표내용

1) 일본

핸드북을 제안한 일본은 자국의 건축사 업무에 대하여 충실히 자료를 준비하여 보고하였다.

건축사의 업무 구분은 연구/기획설계, 기본 설계, 실시설계, 공사 중 실시설계 추가용역, 인허가 업무, 공사계약 관련 업무, 공사 감리 및 준공 후 관리 업무 등 약 8단계로 구분되어 상세하게 건축사의 업무가 정리되어 있으며, 특히 사항은 자국 건축사와 외국 건축사의 업무를 구분해 놓아서 외국 건축사는 기본설계 등 디자인에 관련된 업무에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국 건축사는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지만 실시설계 등

현실적인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건축사의 업무대가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법적인 지위를 가지지는 못하고 가이드라인의 성격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 일본 국토교통성의 지침에 따른 업무대가 산정 방식은 우리의 실비정책가산식과 유사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일본에서 외국 건축사는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없으며 일본의 1급 건축사 자격을 획득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일본은 호주 및 뉴질랜드를 필두로 APEC 회원국과 건축사 상호 인증에 대하여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어서 상호 협약이 이루어진 국가와는 간단한 인터뷰나 자국 언어의 논술형 시험을 통해서 동등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일본의 건축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절차는 상세한 다이어그램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외국 건축사가 인허가 업무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었다.

2) 중국

사실 일본과 한국은 중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핸드북을 활용할 생각으로 이 위원회를 시작하였으나 중국의 자료 준비가 불충분하였고 건축사 업무대가 등 많은 부분을 준비한 담당자가 불침하여 다소 실망스러웠다.

중국 건축사의 업무 구분은 타당성 조사 및 기획, 준비 업무(대지 조사, 설계, 공사 준비 등), 공사 준비(설시설계 승인, 자재 및 장비 구매, 시공 허가 등), 공사 감리, 부동산 판매(주거건축의 사전 분양, 주택 등록, 금융 심사 등) 및 준공 후 업무(건축대장 등기, 거주자 방문 및 사후 관리 등)의 6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 주도의 행정 특성상 건축주, 건축사 및 시공자의 구분 없이 업무 흐름에 따라 통합되어 있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 건축사는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국 건축사와 협업을 통해서만 활동 할 수 있으며 모두가 궁금해 하는 건축사의 업무대가 등은 자료가 미비하여 추후 보완하기로 하였다.

3) 한국

한국은 일본이 마련한 양식에 맞추어 건축사 업무기준을 토대로 비교적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하였다. 특히 공사비에 따라 산정되는 건축사보수기준은 여러 위원들이 많은 흥미를 보였고 상세한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 회의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첫 번째 핸드북 위원회는 중국의 미비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핸드북의 필요성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되었고, 이번 회의를 통하여 전문용어의 정리 등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일본이 중심이 되어 핸드북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도 결정하였다. 또한 이번 회의에는 한국의 국토 해양부의 담당자, 일본의 일본건축교육보급센터의 담당자 그리고 중국의 관련 부처 담당자가 참석하여 단순히 민간단체의 교류 수준을 넘는 공식적인 협의로 진행되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추진 일정은 최초 제안에 따라 3년이 걸친 핸드북 위원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2011년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건축사협의회 이후에 핸드북을 출간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 건축사가 제한된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해외 시장을 두드릴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되며 일차적으로는 광대한 중국과 수준 높은 일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중·일 3국의 건축 시스템을 비교 설명한 핸드북이 발간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여러 나라의 건축 시스템을 비교할 수 있는 제2, 제3의 핸드북이 나와서 한국 건축사의 해외 시장 개척에 일조하기를 바란다.

APEC등록건축사제도에 관한 사항

【 신춘규 국제 담당이사 】

▣ 각국 주요 보고내용

1) 중국

현재까지 77명의 APEC 등록건축사를 배출했으며 최근에 중국의 Monitoring Committee를 중국건축사능력관리위원회(NABAR)에서 중국건축학회(ASC: Architectural Society of China)로 변경했으며 웹사이트(www.apcarchitect.org.cn)를 오픈했다. 새로 구성된 2기 위원회는 인기가 4년이며 17명 내외로 구성되었고 중앙이 사회에서 거론될 안전 등 APEC 등록건축사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할 것이며 다른 경제국과의 서비스 조항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2) 일본

일본의 경우는 APEC 등록건축사제도의 회원국 중 가장 활발하게 운영 및 상호인증을 진행해온 나라 중 하나다. 약 450명의 APEC 등록건축사를 등록한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550명에서 등록건축사가 축소된 이유는 같다고 한다. 특히 뉴질랜드와 호주와는 APRC 등록건축사를 중심으로 Domain Specific의 항목으로 상호인증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자국 내에 활동을 원하는 APEC 등록건축사는 모국의 언어로 2개의 서술 시험을 토면 되도록 되어 있는 것 이 특징이다.

3) 한국

한국은 그동안의 위원회 활동 내용과 제2기 위원회의 구성, 제2기 등록건축사의 재등록 과정 등을 설명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APEC 등록건축사가 277명에서 2기에 168명으로 축소된 이유 등을 설명하고 앞으로 새로 능력점차를 거쳐 더 등록을 진행할 것과 제2기 위원회의 구성 및 계속교육의 시행 등에 대해 설명했다.

▣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토론

한국은 앞으로 별다른 전행사항이 없이 APEC 등록건축사에 대한 혜택이 없을 경우 APEC 엔지니어와 마찬가지로 죽어있는 제도로 될 우려를 지적하고 우선 3국이 적극적으로 등록건축사를 위한 혜택을 마련하는데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교환하자고 제안했다. 일본도 이에 동조하여 우선 3국이 APEC regional council을 만들어 등록건축사간의 교류를 가능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으며 앞으로 이를 위해 토론히 나가자고 동의했다. 단, 중국의 경우 APEC 등록건축사위원회가 중국건축사등록관리위원회(NABAR)에서 학회(ASC)로 이전된 것

한·중·일 협의회 발표모습



이 정부에서의 관심이 축소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원래 NABAR에서 APEC 등록건축사를 통해 자국에서 실무를 하는 외국건축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제약을 두고자 했다는 것이나 지금은 그 역할에 대해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무튼 3국은 APEC 등록건축사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기로 동의했다.

등록건축사 관련 법령·제도에 관한 사항 【여구호 국제위원】

▣ 각국 발표내용

1) 중국

중국은 2009년 중국건축사 현황을 1급건축사시험지원생 23,177명이 응시해 1,416명이 합격함으로서 합격률은 불과 6.11%였으며, 2급건축사는 10,251명 지원해서 850명이 합격해 합격률은 8.29%였다.

현재 등록건축사 수는 1급건축사가 21,276명 2급건축사는 20,340명이며, NABAR는 건축사 인터내셔널 핸드북위원회를 발족하고 APEC건축사 프로젝트 모니터링 위원회가 최근 3년 동안 숙고한 APFC건축사프로젝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구현했고 이와 같은 지속적인 회의가 한·중·일 3국간에 확실한 결과를 보여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2) 일본

일본은 건축사법의 수정사항과 건축사의 정의 및 현재 등록건축사 총 숫자와 건축사가 3종류로 분류되어있으며, 첫 번째로는 1급건축사가 329,535명이고 업역은 모든 건축관련 디자인과 공사감리를 할 수 있다. 2급건축사는 소규모건축물을 디자인하고 감리할 수 있지만 법규로서 규모를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 등록건축사는 706,219명이다. 복구조건축사는 소규모 복조건축물만 디자인 감리를 할 수 있으며 등록건축사 수는 현재 15,664명으로서 2008년 총 등록건축사 수는 1,051,418명이지만 상당수는 중복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더불어 일본은 2005년 구조계산 사기행각으로 2006년 12월에 법안을 상정해서 2008년 11월 의회를 통과했고 2009년 5월

이 법안이 발효되어 현재는 구조설계 1급건축사(S.D.1급 건축사)와 기계설비장비 1급건축사(B.E.D.1급건축사)로 분리시켜 법에서 정의하는 규모이상은 모두 이들의 업역으로 관리되도록 정의되었다. 그리고 모든 건축사들은 건축사사무소를 개업해야 만이 건축설계와 감리를 할 수 있지만, 건축사사무소 설립자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필히 자격을 가진 건축사를 고용해서 모든 일이 건축사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3) 한국

한국은 소규모건축물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유지관리법과, 건축사법에서 건축사자격증 없이도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 코오퍼레이션 사무실에 관한 법개정, 부동산 난개발과 사기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개발법, 등록건축사의 무한정한 기소기간을 형법에 따른 기소소멸제,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 건축사의 날인, 건축사도 디자인 빌더가 가능하도록 만든 법, 건축디자인은 창조성 작업으로서 부기기치세 제외대상에 편입시켜야 하는 논의, 등록건축사위원회의 설립초안 및 국회계류사항, 건축기본법을 근거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역할과 기능 등 기본계획을 소개했다. 더불어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한 세움터 소개 및 시연 프로그램을 10분간 상영함으로서 한중일 건축사들의 관심을 갖게 했다.

▣ 의견 및 소감

짧은 시간에 3국의 국내건축현황을 소개하는 것은 시간상 제약으로 한계점은 가지고 있었지만 3국 모두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솔직하게 언급함으로서 무엇이 각국의 현안인지를 소개하는데 충실했었다. 특히 일본의 사기성 건축구조계산서로 인해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고 건축사를 구조전문건축사와 설비기계장비 건축사로 분류 시킨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도 우리의 건축관련 문제점들을 솔직하게 파헤침으로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 특히 건축감리 문제점과 건축허가시

스템의 문제점 등등.

건축분야 기술정보 교류

【 민규암 국제위원 】

▣ 제1주제 - 각국의 중간규모 도시·지구 개발

1) 일본

○ 발표제목 : 지역타운에서의 도시설계

○ 발표자 : 이와타 사코

일본의 도시는 모두 비슷한 성격의 주거계획으로 최근 형성되어져왔다. 그 결과 각 지역은 고유한 성격을 잃었으며 추운지역부터 더운 아열대까지 모두 특성을 잊고 말았다. 발표자는 일본에서 지역성을 회복하는 예로써 작은 지역 도시개발의 사례로써 미하루라는 소규모 도시재개발을 예로 보여주었다. 이 예는 약 30년의 시간을 갖고 계획되어지고 실현되어졌는데 과거 400년 전의 도시지형도가 다시 검토되어졌고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게 되었다. 건폐율은 5% 용적률은 10% 정도의 최소한의 것으로 구성되었고 도로는 차로가 포함된 전면도로와 그 뒤의 주택들과 인도가 더 중시되는 소도로로 계획되었고 그 주변을 1~2층의 낮은 주택들이 들어서서 고즈넉하고 인간적인 도시를 다시 형성시킬 수 있었다.

2) 한국

○ 발표제목 : 신도시 개발과 그 이슈(송도 도시계획 소개)

○ 발표자 : 진린(주.아키플랜 종합건축사사무소)

한국 인천 송도의 도시설계에 대해서 이를 담당한 아키플랜 건축사사무소의 진린실장의 발표가 있었다. 먼저 송도 신도시의 위치와 자유경제지역으로서의 중요성 그리고 이 신도시가 어떻게 서울 및 인천과 지역적으로 연결되어있는지가 소개되었다. 그 다음으로 1998년 OMA에 의해서 제안된 최초의 도시설계가 설명되었고 그것이 2009년 현재의 도시계획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설명되었고 한편으로는 KPF가 참여한 중심상업지역 설계에 대한 소개가 보충되었다. 그 밖에 간척된 땅에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어떻게 스카이라인 형

성계획이 만들어졌는지와 보행자들 고려하기 위해 어떻게 다양한 도시 밀도가 도입되었는지가 설명되었다. 마지막으로 송도지구내의 작은 한 블록을 예로 제시하였고 이 블록에 어떤 도시설계지침이 마련되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예에 따라서 민간 개발업체에 의해서 제안된 설계안을 보여 주었다.

3) 중국

- 발표제목 : 정체성에 대한 존재론적 접근
- 발표자 : 장리

발표자인 장리는 청화대 건축과 교수로써 주로 작은 타운개발에서 어떻게 정체성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였는데 여기에는 케네스 프램스톤이 말하는 존재론적인 건축에 대한 개념이 설명되어졌다. 이에 의하면 고전을 장식적으로 따라가는 것과는 다르게 건축에 진정성을 갖도록 할 때야 비로소 건물의 정체성이 생긴다고 한다. 이를 기준으로 그는 그가 설계한 2개의 프로젝트와 다른 두 중국 건축사의 작품을 보여주면서 그의 이론을 설명해 나갔다.

▣ 제2주제 – 각국의 설계 소개

1) 일본

- 발표제목 : 아리타의 기후를 고려한 주거 설계
- 발표자 : 코이치로 시미즈

아리타는 일본 큐슈에 있는 전통적으로 도자기로 유명한 고장이다. 발표자인 시미즈는 이곳에 설계된 여러 건물들 주로 저층의 전통적인 구조를 갖는 그러나 그렇게 오래전에 지어진 것은 아닌 최근의 건축물들을 예를 갖고서 지역기후를 반영한 설계안들을 보여주었다. 그 예로는 다음의 건물들이 발표되었다: 큐슈 도자기 박물관, 아리타 도자기 대학, 야마구치 주택, 커센 스튜디오와 숙소.

2) 한국

- 발표제목 : 한국의 현대건축(옛이거죽의 최근 설계들 소개)
- 발표자 : 이근창(주.위앤드이 종합건축 사사무소)

한국의 건축물들은 1950년대의 전란으로 거의 모두 소실되다시피 했었고 그 이후 급

속도로 지어진 것들이었다. 이런 건축 상황에서 한국의 건축사들은 매우 적은 시간 내에 많은 건축물을 설계했어야만 했고 엄청난 건축의 프로젝트들 역시 이런 프로세스의 일부였다고 소가되었다. 여기에 소개된 건물들은 다음과 같다.: 하이마트 본사,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시그네타워, 송도 OK시티, 송도 연세국제단지, 충남 콘벤션 센터, 원주 아이스하키링크, 하노이 랜드마크타워.

3) 중국

- 발표제목 : 장시성의 건축유산과 보존
- 발표자 : 야오탕

난창대학교의 건축과 야오탕 교수는 양쯔강의 서쪽을 의미하는 장시지역이 이미 진나라시대부터 중국의 일부로 편입되었고 송나라 때는 크게 번성하였으며 13세기에서 15세기 간의 원나라 시대의 내전시대를 거쳐서 16세기에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이 지역의 역사적 소개와 함께 이 지역의 건축물들을 크게 사원, 주택, 요새형 집합주택인 웨이우 그리고 목구조와 벽돌구조가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된 구조 등으로 이 지역의 건축특성을 설명하였고 이 지역의 대표적 건축물들을 사진으로 보여주었다.

맺음말

이번 제13회 한·중·일건축협의회에서는 한국에서 본 협회의 최영집 회장과 국토해양부의 최종화 주무관을 포함한 11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여 국제 프로젝트를 하고자 하는 각국의 건축사들을 위한 핸드북 작성에 대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잡고, APBC 등록건축사제도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며 공조체제를 갖추기로 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협의회 발족 당시부터 2004년까지는 총 8회 회의 중 6회에 정부 측 인사가 동참하였으나, 지난 2005년부터 4년간은 참석이 없었다. 금번 협의회에는 지난 협의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국토해양부 인사의 참석을 추진하였으며, 논의의 대부분이 제도적인 뒷받침



다모위엔 구흔 건학



제13회 한·중·일건축협의회 기념사진

이 되어야하는 주제인 상황에서, 미·관이 공조하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꾸준한 참여가 있었으면 한다.

금번 협의회의 오후 회의(건축분야 기술정보 교류세션) 중 지역건축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 중국의 개발 방향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볼 수 있었다. 일본과 중국이 작은 도시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의 역사를 존중하며 장시간에 걸쳐 지속 가능한 개발을 주도한 선례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2009년 건축허가 현황(10월)

(단위: 동, 제곱미터)

■ 용도별

구 분	당월(10월)			누계(1~10월)			
	2008년	2009년	증가율	2008년	2009년	증가율	
계	동 수 연면적	19,850 10,732,521	18,260 7,564,095	-8.0% -29.5%	192,902 96,534,417	171,920 73,292,828	-10.9% -24.1%
주거용	동 수 연면적	6,633 2,587,747	6,713 2,400,028	1.2% -7.3%	65,040 27,178,027	58,189 23,439,301	-10.5% -13.8%
상업용	동 수 연면적	6,106 2,652,180	5,228 2,049,770	-14.4% -22.7%	60,752 28,433,705	52,323 19,406,850	-13.9% -31.7%
공업용	동 수 연면적	1,943 1,819,539	1,663 993,336	-14.4% -45.4%	20,173 15,931,128	15,498 9,040,995	-23.2% -43.2%
교육 및 사회용	동 수 연면적	1,214 2,343,123	1,279 813,801	5.4% -65.3%	11,524 11,522,359	12,037 9,109,217	4.5% -20.9%
기 타	농 수 연면적	3,954 1,329,932	3,377 1,307,160	-14.6% -1.7%	35,413 13,469,198	33,873 12,296,465	-4.3% -8.7%

■ 구조별

구 분	당월(10월)			누계(1~10월)			
	2008년	2009년	증가율	2008년	2009년	증가율	
계	동 수 연면적	19,850 10,732,521	18,260 7,564,095	-8.0% -29.5%	192,902 96,534,417	171,920 73,292,828	-10.9% -24.1%
철근 철골조	동 수 연면적	16,586 10,471,228	15,503 7,352,505	-6.5% -29.8%	163,276 94,119,820	143,449 71,088,462	-12.1% -24.5%
조적조	동 수 연면적	2,218 178,084	1,706 132,227	-23.1% -25.8%	20,520 1,684,197	18,865 1,483,905	-8.1% -11.9%
목조	동 수 연면적	1,004 81,007	936 69,585	-6.8% 14.1%	8,433 689,294	8,934 676,003	5.9% -1.9%
기 타	동 수 연면적	40 2,202	115 9,778	0.0% 0.0%	673 41,106	672 44,458	0.0% 0.0%

■ 시도별

구 分	당월(10월)			누계(1~10월)			
	2008년	2009년	증가율	2008년	2009년	증가율	
계	동 수 연면적	19,850 10,732,521	18,260 7,564,095	-8.0% -29.5%	192,902 96,534,417	171,920 73,292,828	-10.9% -24.1%
수도권	동 수 연면적	6,710 5,649,711	6,132 3,481,724	-8.6% -38.4%	70,101 47,248,465	54,145 32,808,973	-22.8% -30.6%
서울	동 수 연면적	1,043 2,190,498	1,085 644,367	4.0% -70.6%	12,212 13,366,769	8,151 5,951,748	-33.3% -55.5%
인천	동 수 연면적	719 432,825	850 381,753	18.2% -11.8%	6,902 4,525,325	6,255 3,239,902	-9.4% -28.1%
경기	동 수 연면적	4,948 3,026,388	4,197 2,455,604	-15.2% -18.9%	50,987 29,356,371	39,739 23,617,323	-22.1% -19.5%
차별	동 수 연면적	13,140 5,082,810	12,128 4,082,371	-7.7% -19.7%	122,801 49,285,952	117,775 40,483,855	-4.1% -17.9%
부산	동 수 연면적	540 217,327	403 140,062	-25.4% -35.6%	4,878 2,746,936	4,368 2,083,800	-10.5% -24.1%
대구	동 수 연면적	421 251,276	402 162,186	-4.5% -35.5%	4,464 2,778,458	3,620 1,927,366	-18.9% -30.6%
광주	동 수 연면적	282 252,478	332 179,417	17.7% -28.9%	3,024 1,838,442	2,669 1,650,050	-11.7% -10.2%
대전	동 수 연면적	344 389,858	319 173,870	-7.3% -55.4%	3,101 2,404,387	2,740 1,426,582	-11.6% -40.7%
울산	동 수 연면적	377 247,372	364 106,233	-3.4% -57.1%	4,277 3,103,858	3,413 1,478,069	-20.2% -52.4%
강원	동 수 연면적	1,295 295,587	1,205 358,484	-6.9% 21.3%	11,602 3,280,420	11,454 3,446,981	-1.3% 5.1%
충북	동 수 연면적	1,144 306,501	1,256 440,489	9.8% 43.7%	11,626 4,319,526	10,811 3,950,430	-7.0% -8.5%
충남	동 수 연면적	1,631 742,487	1,307 400,493	-19.9% -46.1%	14,537 6,324,473	13,023 5,552,828	-10.4% -12.2%
전북	동 수 연면적	1,336 413,770	1,123 347,139	-15.9% -16.1%	11,492 3,673,683	11,440 3,601,497	-0.5% -2.0%
전남	동 수 연면적	1,489 327,251	1,342 317,884	-9.9% -2.9%	13,267 3,365,886	15,134 3,346,079	14.1% -0.6%
경북	동 수 연면적	2,003 675,590	1,899 578,203	-5.2% -14.4%	18,845 6,129,075	18,712 5,204,650	-0.7% -15.1%
경남	동 수 연면적	1,886 794,327	1,681 637,393	-10.9% -19.8%	18,500 8,090,194	17,046 5,614,565	-7.9% -30.6%
제주	동 수 연면적	392 168,986	495 240,518	26.3% 42.3%	3,188 1,230,615	3,345 1,200,958	4.9% -2.4%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09년 10월말

구 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용역 사무소	합계					
	2인		3인이상		소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회원	사무소	회원	사무소	회원	사무소	회원	사무소	회원	사무소	회원	사무소		회원	사무소	회원	사무소	회원	
합계	5,141	5,141	11	222	11	32	5,263	5,396	1,573	1,573	259	518	59	177	24	96	28	188	
서울	883	883	31	62	3	9	917	954	852	852	154	308	37	111	12	48	15	93	
부산	463	463	18	36	2	6	483	505	93	93	18	36	3	9	0	0	3	26	
대구	408	408	23	46	4	12	435	466	58	58	19	38	4	12	2	8	2	10	
인천	254	254	2	4	0	0	256	258	54	54	8	16	0	0	1	4	0	0	
광주	195	195	1	2	0	0	196	197	40	40	5	10	2	6	2	8	1	5	
대전	234	234	6	12	2	6	242	252	37	37	6	12	4	12	2	8	1	17	
울산	175	175	6	12	0	0	181	187	20	20	1	2	1	3	0	0	0	22	
경기	708	708	3	6	0	0	711	714	220	220	19	38	3	9	0	0	2	10	
강원	168	168	2	4	0	0	170	172	25	25	2	4	0	0	0	0	1	5	
충북	194	194	4	8	0	0	198	202	31	31	4	8	0	0	2	8	2	16	
충남	215	215	1	2	0	0	216	217	42	42	7	14	1	3	2	6	0	0	
전북	234	234	4	8	0	0	238	242	19	19	3	6	2	6	1	4	0	0	
전남	175	175	0	0	0	0	175	175	17	17	2	4	0	0	0	0	1	6	
경북	340	340	4	8	0	0	344	348	33	33	4	8	1	3	0	0	0	38	
경남	390	390	6	12	0	0	396	402	24	24	6	12	0	0	0	0	0	30	
제주	105	105	0	0	0	0	105	105	8	8	2	1	3	0	0	0	10	3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 分	회원				준회원
	건축사	2급	개	비율	
합계	7,948	10	7,958	100.0%	23
서울	2,366	3	2,369	33.9%	10
부산	669	1	670	7.9%	9
대구	592	0	592	7.7%	0
인천	332	0	332	3.8%	0
광주	266	0	265	3.7%	0
대전	338	1	339	3.7%	0
울산	212	0	213	2.6%	0
경기	991	2	993	12.2%	2
강원	206	0	206	2.6%	0
충북	265	0	264	3.0%	0
충남	284	3	287	3.1%	0
전북	277	0	277	3.0%	0
전남	202	0	202	1.9%	0
경북	392	0	392	4.6%	1
경남	438	0	438	5.0%	1
제주	118	0	118	1.3%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 分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전임미처리	합계	비 고
회원수	5,396	2,552	89	8,037	
비율	67.14%	31.75%	1.11%	100%	
사무소수	5,263	1,943	-	7,206	
비율	73.04%	26.96%	-	100%	



건축마당
해외잡지동향
overseas journal

a+u

新建築

a+u

Soi 53 Apartments—Bangkok, Thailand
2002~2004



Kerry Hill—crafting Modernism in Asia Pacific

이번 2009년 11월호 a+u(470호)는 모더니즘을 작품 세계의 기조로 시대, 대지 그리고 문화라는 문맥 안에서 지속적인 작품 탐구를 추구하는 Kerry Hill의 작품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세계 각지에 있는 그의 작품 중에서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주택이나 공동 건축물 등 여타 타입의 건물을 소개한다.

그 중에서도 주요 작품인 Bhutan의 Amankora, 인도의 ITC Sonar Bangla와 Aman New Delhi를 최근 사례로 소개한다.

이러한 작품 소개와 함께 3가지의 Article를 수록 했다. Geoffery London은 그의 에세이 「An Evolving Practice」 진화하는 실천에서 Kerry Hill의 경험과 그의 디자인의 변천 과정을 다루고, 또 Erwin J.S. Viray과의 인터뷰에서는, Kerry Hill의 공간 구성과 부지 상황에 대한 관심을, 그리고 싱가폴 신진 건축사 3명과의 좌담회에서는 싱가폴의 건축이 연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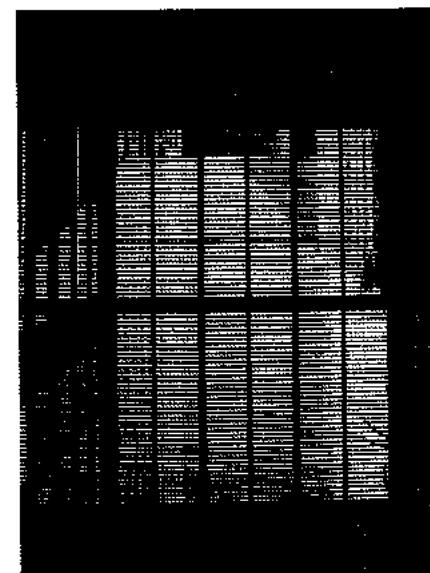
부지는 Bangkok의 번화가 Sukhumvit 더로에서 들어간 작은 골목, 즉 현지 말로 하는 '소이(Soi)'에 면하고 있다. 작품의 개요는 넓은 맨션 형태를 취한 4개의 집합 주택이며, 한 세대는 소유주가 살고 나머지 3세대는 성인이 된 자식 3명이 각각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대가족 전용의 다세대 주택을 도심에서 건축하는 경우는 수직으로 적층 구성을 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이 되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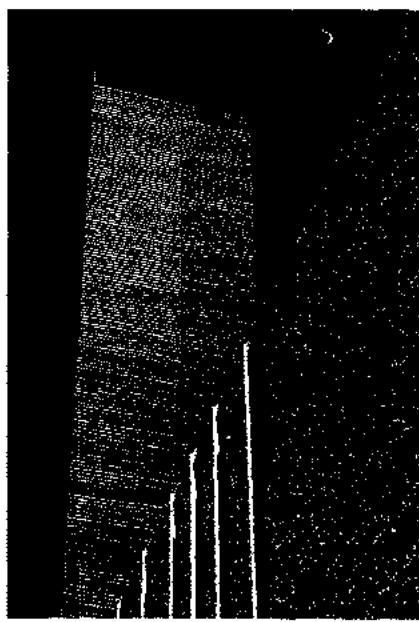
1층은 공공 부분으로서 2층 높이의 석 벽으로 둘러 쌓여 있지만 부분적으로 하늘을 향해 으뜸되어 있다. 석 벽 안쪽으로는 완전한 사적 영역이 구성되어 있다. 거기에는 긴 풀밭, 공용ダイニング 테라스, 체육관, 현관 등이 조성되어 있다. 벽에 수직으로 둋어진 틈을 통해서 계산되어진 양의 빛이 새나온다.

위층에는 사각 볼륨의 형태를 취하는 주거 세대가 있다.

사각 볼륨의 세면에는 작은 오픈 네로 천공된 조석 벽이 둘러쌓았다. 나머지 한 벽은 투명한 유리로 거실과 침실이 배치된다. 세대



김동범
(주)건축사사무소 오두막
by Kim, Dong-bum



구성은 복층형식을 취하면서 수직적 공간연계를 유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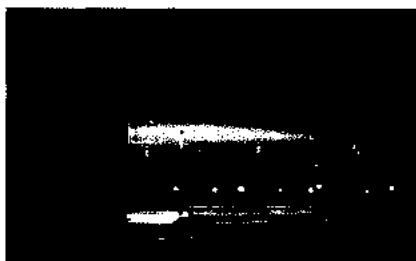
2층 높이의 옥외 테라스는 각 세대내 거실을 외부로 연장시키는 기능을 한다. 소나무 원목으로 덮혀있는 스크린 테라스는 플장위에 걸려있으면서 1층 공공부분과의 시각적인 연결을 도모하면서 세대의 투명한 입면에 대해 차양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테라스들은 위층세대의 옥상까지 이어지면서 보다 친숙한 분위기에 테라스 말하자면 '사라(타이 풍 정자)'와 같이 된다.

Singapore Cricket Association Pavil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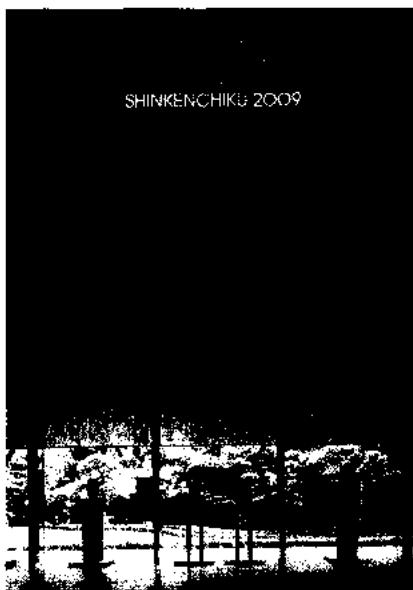
파빌리온의 배치는, 크리켓 광장 방향으로, 관객들이 크리켓 팟치(Cricket Pitch)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사이트 스크린(타자에게 볼이 잘 보이도록 설치된 흰색 판)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놓치는 일이 없게끔 되어있다. 우연히도, 파빌리온 그 자체가 기존 수립대와 잘 어우러져 있는 한편, 가로의 스카이라인은 크리켓 경기장에 대해 극적인 배경이 되고 있다.

파빌리온은 2개의 수평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 떠있는 듯 보이는 지붕의 큰 수평면이고, 또 하나는 지면에 깔려져 있는 한판의 기단이다. 이러한 수평면의 사이에 세장한 십자형의 철제기둥, 복재 스크린으로 둘러 쌓

인 탈의실, 사무실, 선수용 슬로프, 단상 형식의 콘크리트의 좌석 그리고 입구의 계단이 조각적인 요소로서 짜 넣어져 있다. 흰 금속 제의 처마를 따라 파빌리온의 최상부는 부유하는 평면과 같아 보여, 조금은 경사진 금속 제의 지붕을 숨기고 있다. 이러한 처마는 빗물에 의한 오염을 피하기 위해, 옥상의 배수로로 부터 이격되어져 있다. 탈의실을 둘러싸는 수평의 목제 스크린은 자연화기와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디자인되어 있으며 정오에는 면으로서 보이지만, 황혼시에는 행동과 같이 내부의 빛을 투과 시킨다. 기단부와 실사이에 설치한 복재판에 의해 경기장 선수들의 게임진행을 관람할 수도 있지만, 프라이버시 또한 유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파빌리온은 크리켓 경기장의 중심이지만, 저녁에는 시합후의 축하무대로 크게 변화해 나간다.



新建築



PLOA 긴자 빌딩
architect : NIKKEN SEKKI +
YASUDA ATELIER



새로운 플래그십(flag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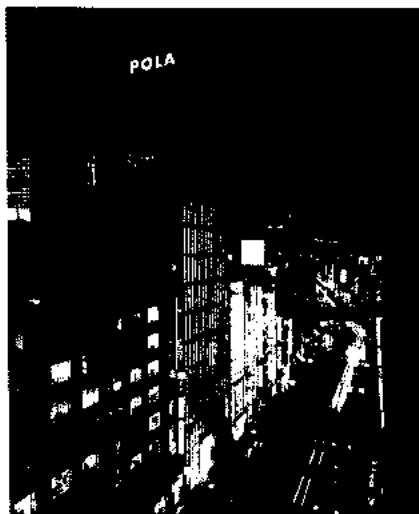
POLA 긴자빌딩은 1960년 준공되어진 옛 폴라 긴자빌딩을 재건축, 창업80주년을 기념한 플래그숍으로 계획되었다. 국내외의 스파브랜드가 집적해 그 매력을 높이고 있는 긴자 지구에 있어, 긴자 중심부의 활기찬 교우하시(京橋)측에 연결하는 긴자 일정목에서 랜드마크가 되는 건물이 되고자 했다. 주변

온 향후 개발이 많이 전망되는 지역으로서, POLA 기자 빌딩은 그 선후적 존재가 된다.

세 가지의 미(美)

POLA가 내건 새로운 빌딩의 테마인 미용(美容), 미술(美術), 미식(美食)이라는 3개의 미(美를) 포함해, 사람의 피부를 빛나게하는 균원적인 존재인 물(水)과 빛(光)을 주요 컨셉트 삼았다. 거기다가 한층 더 상명을 느끼게 하는 이미지로서 시간(時)의 경과와 함께 새기고 변화해 나가는 건축을 목표로 했다. 건축이라고 하는 정적인 구축물로, 변화와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 외중외피(Double Skin)내에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의 가동(可動) 패널과 모든 색채의 표현이 가능한 LED 조명을 편성, 건물의 표정이 스스로 변화되게끔 했다.

긴자를¹⁾까지 이어지는 높이 66m의 이중 와피는 긴자 거리를 향한 연출장치임과 놓시에 그 드래프트 효과를 이용해, 남향건물의 열 부하를 경감 하는 환경 장치로도 기능하고 있다. 1층은 플라 데 브티의 플래그십과, 지하 1층의 에스테틱은 건축주 요구에 의해 Jean-Philippe Nuel의 인테리어디자인으로 새로운 플라의 브랜드 이미지를 보내고 있다. 3층에는 무료로 개방되는 플라 뮤지엄 어넥스가 설치되는 것 외에 업선된 레스토랑과 술이 입주해 문자 그대로 미용·미술·미식을 구현하는 건물이 되고 있다. POLA 창업 80년의 전통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새기는 그릇으로서, 백자와 같이 높은 기품과
늘들한 자세로 거리풍경을 이루고 있다.

움직이는 패사드(Facade)

긴자 중알거리와의 상호작용(Interaction)

수직선을 강조한 빛의 탑

긴자라고 하는 도시의 장례상을 응시해보자면 가까운 장래에는 활기찬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한 점에서 새로이 등장하는 건물의 얼굴이 되는 중앙거리에 접하는 입면을 가장 중시해, 긴자의 거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의도했다. 파사드에 대해서는 수직선을 강조한 스트라이프 이미지를 설계초기단계부터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는 빛의 띠가 하늘을 향해 똑바로 뻗어나가는 강력한 이미지를 발현하는 것이다. 바깥쪽에 300mm 폭의 알루미늄 압출소재를 이용한 샷시와 투명 유리의 심플한 이중외판과가 이러한 이미지를 형성한다. 우리후면으로 180매의 반투명 키네딕 패널을 매달아 지상에서 하늘까지 외관 전체를 다 메우고 있다.

세포 이미지학 패턴

패널은 두께 12mm, 길이 4m의 폴리카보네이트로서 세포 이미지를 연상케하는 크기와 농담이 다른 패널을 양면 인쇄한 후 공장에서 하트홀으로 절곡시켜 기공 제작하게끔 했다.



패널의 회전 구동은 자동경첩과 모터 연동의 힌지풀러의 조합시킨 단순한 가동기구를 신규 개발했다.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패널은 부유감이 있어 당장 움직일 것 같은 기운이 감돌게 된다. 낮시간대에는, 반 투과의 패널은 동남쪽에서의 강한 빛을 부드럽게하는 차양 스크린으로서 유효하게 움직이고, 평상시에는 베네시안블라인드 등으로 빛을 차단하면 시각적인 거리와 차단되어 버리지만 실내에서는 긴자라고 하는 거리를 가까이에 느낄 수 있다. 이중외피과 패널의 조합에 의해서 사람의 피부와 같이 내부 환경을 지켜 에너지 절약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살아 있는 파사드

한편, 이전에는 LED 조명이 패널을 비쳐
파사드 전체를 화이트블루톤의 부드러운 표
정을 도시에 제공한다. 게다가 패널의 움직
임과 빛의 움직임에 의해 외관이 마치 살아
있듯이 그 표정을 변화시켜 긴자에 새로운
빛의 탑을 창출하는 것을 의도했다. 움직이는
것에 의해서, 살아날수는 세포가 활발하
게 움직이고 있는 건강한 사람의 피부를 상
기시켜, 생생하게 한 메시지를 거리에 전달
하는 파사드를 목표로 했다.

와세다 대학 이곰카페

architect : NOBUAKI FURUYA+NASKA
X KUIME SEKKKI

느티나무와 일체화된 흙실공간

대학도 궁극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이므로, 수업을 위한 교실과 복도만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40년전에 이 캠퍼스를 설계한 안도 카즈오(安東勝男) 교수는 베이지(明治) 거리쪽에는 학부생 전체 학생이 모일 수 있는 강당을 구상했다. 그 후 실제로는 대학원생수의 대폭적인 증가 등에 의해 주된 연구실동인 65호관이나 55호관이 지어지고, 계단과 작년 6월에는 지하철 부도심선도 개통되어, 그 출구도 여기에 신설되었다. 이를테면 놓쪽의 새보운 매인 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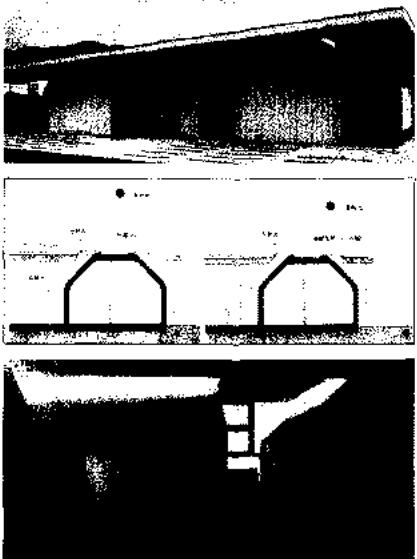
1) 각자지구의 경관을 지키기 위해, 1988년 풍적률과 건축률이 제한, 벽면화로 규정 등을 정하여 지구계획. 그후 도시생태별 배치법이 규정되어 간자지구에 대규모 개발프로젝트가 나타나면서부터, 2000년에 '긴자를' 부터 건물의 높이제한에 대한 예외규정이 생겼다. 전면도로의 폭원에 따라 높이가 결정되어지고, 2009년 10월 현재 규제반주의 건물을 높이 56m, 옥상공작동 10m(합계 66m), POA기지별팅은 이에따라 높이가 정해졌다.



지정[志井]의 크리닉
architect : NORIKO+KAORU
SUEHIRO/NKS ARCHITECHTS

채광과 공조 부하의 제어

안 길이가 깊은 큰지붕 아래로 채광시키기 위해, 지붕과 오두막의 사이의 틈새를 롤판라이트로 처리했다. 롤판라이트는 여름철 열부하가 문제가 되지만, 슬릿한 형태로 필요한 빛을 효과적으로 취하면서도 면적을 억제, 열선 반사 필름과 블라인드에 의해 일사 조절을 하게 된다. 부지가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창은 열 수 없다. 그 때문에 환기는 외부 공기 처리기를 경유해 내부로 이어지지만, 결과적으로 천정 부근의 공기를 움직이지 않게하는 효율적인 치환 공조가 이루어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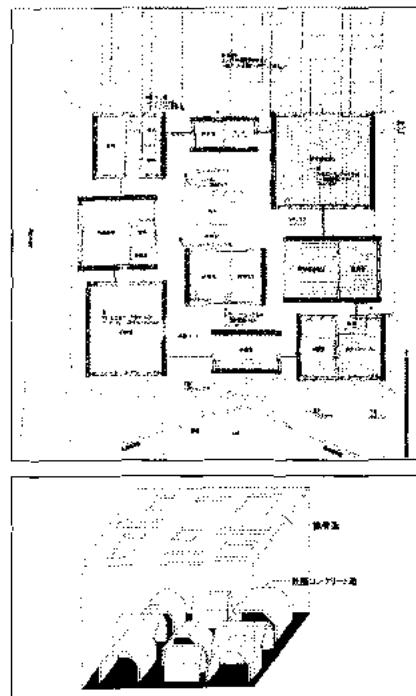


9개의 오두막

시가지와 시골의 경계에 위치하는 크리닉 계획이다. 시골풍경과 산세경관을 방해하지 않게 높이와 스케일감을 누른 심플한 건물을 목표로 했다. 건물의 구성은 사다리꼴 단면을 한 오두막과 같은 9개의 실을, 거의 정방형의 큰지붕과 일체화하는 형태로 했다.

깊숙한 건물의 중앙부에도 자연광을 이끌고 있다. 각각의 오두막의 배치는 필요에 따라서 크기나 배치방법을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오두막끼리의 틈새가 미로 상에 전개되는 통로가 되어, 열려진 장소가 대합실이 되었다. 9개의 오두막은, 각각 구조적으로 독립하고 있다. 방향에 따라서 강성이 다른

오두막을 교대로 90도 회전해 배치하는 것으로, 지붕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했지만, 이것이 동시에 실내 공간의 빛의 도입되는 방법이나 시선의 미치는 방법을 컨트롤하고 있다. 낮에는 롤판라이트로부터 들어온 자연채광이, 오두막의 지붕면에서 일단 반사하고 나서, 간접적으로 오두막 가운데까지도 비추어, 밤은 각각의 오두막으로부터 빠지는 빛이 봉로 부분에도 내비치게 된다.



효율보다 용장성(冗長性: 끝데없이 길)



의료시설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효율적인 평면 계획이 중요한 테마가 된다. 그러나, 여기의 동선은 최단거리라고 하는 효율보다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용장성을 가진다.

진료 내용이나 환자수의 변화, 또 장래의 신의 가능 변화에 대해서도 유연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있다. 큰지붕 아래에 배치된 오두막 사이를 보고 있으면, 작은 취락의 풀목과 같이, 인간적 스케일에 쌓이고 슬릿을 통해 계절이나 때와 함께 변천하는 하늘의 색이나 빛의 양자를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이, 클리닉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평온함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